• 불교의 생활화
• 불교의 현대화
• 불교의 세계화

현대불교

신상품 LED인등 · LED전구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제 691 호 구독신청 02)2004-8212 Buddhanews.com 불기 2552년 8월 6일(음력 7월 6일) 수요일(주간)



'불교중흥의 싹' 꿈틀
5 불교의 나라 몽골의 오늘



"부처님 가르침 따르면 성공"
9 김태룡 삼화한양식품 대표 이사



"진정한 기도는 남을 위한 것"
17 선지식-해관정사 조실 혜경 스님



고대불교 역사 숨결 느끼다
18 19 최연식 교수의 실크로드 답사기

"국립공원 명칭 '국립' 빼라"

조계종 '공원제도개선 대정부 촉구' 결의

조계종이 국립공원 관리 주체를 환경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 불교계를 배제한 국립공원제도 개선정책의 수립 · 추진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계종 문화재사찰위원회(위원장 현응)는 7월 24일 '대정부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는 국립공원의 명칭을 수정하고, 사유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실시할 것 △국립공원 관리업무의 주체를 환경부에서 지자체로 이관할 것 △환경부는 불교계를 배제한 국립공원제도개선 정책 수립 · 추진을 즉각 중지할 것 등을 요구했다. 국공립공원내 문화재사찰의 잇따른 관람료 시비로 곤욕을 치러온 조계종이 대정부 결의문을 채택한 배경과 쟁점 사항에 대해 짚어본다.

공원제도 개선책 불교계 의견수렴 배제

관리주체 '환경부→지자체 이관' 주장도

■대정부 촉구 결의문 왜 나왔나=이번 결의문 채택은 국공립공원내 문화재사찰의 관람료 시비로 인해 그동안 문화재와 자연환경 보전의 주역이었던 불교계가 오히려 범법자로 취급당하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 게다가 국립공원 중 많은 토지가 사찰 소유임에도 토지 이용권(임대료 등)을 받기는커녕,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각종 규제에 얽매여 피해를 입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경내지에서의 증개축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도 불법으로 규정되는 불이익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참을 만큼 참았기에, 이제는 기본적인 권리를 주장하겠다는 것이다.

■국립공원 · 문화재관람료 제도개선 현황=2007년 초 정부 · 여당은 일체 협의도 없이 국립공원 입장료를 돌연 폐지했다. 이로 인해 국립공원제도의 근본적 문제해결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정부합동으로 '국립공원 및 문화재 관람료 제도개선협의회'를 발족시켜 활동해왔다. 관계기관(문화관광부, 환경부, 문화재청, 국립공원관리공단)합동은 조계종이 그동안 요구해온 자연공원법 상 '역사문화지구' 설정이나 국립공원 편입에 따른 보상, 관리부처의 합리적 조정, 문화유산의 제도적 체계화 등에는 꾸준하게 수용불가입장을 밝히면서도 사찰 매표소 이전계획 등에 집중해 왔다. 이명박 정부 들어 조계종은 대통령직인수위를 통해 제도개선안을 전달하고,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당국과 4차에 걸친 회의를 진행했지만 별다른 합의점을 토출하지 못했다. 게다가 환경부가 2008년 들어 국립공원 제도개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가을까지 환경정책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불교계의 의견 수렴을 배제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조계종은 불교규제국가법령제개정특별위원회를 꾸려 정부 · 국회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성과물을 내지 못하고 있다.

■'국립공원' 명칭과 사찰토지 소유권 문제=문화재사찰위원회는 "전국의 많은 국립공원들이 사찰소유 토지로 이뤄져 있음에도 정부는 '국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국립공원토지가 국가소유라는 인식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사찰 토지가 국립공원에 편입되어 사유권을 침해당하고 다수 대중의 등산장소로 제공됨에 따른 제반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현재 국립공원 주요 탐방로 등 1급 가치의 토지 대부분은 사찰에서 무상 제공한 땅이며 편입된 토지만도 334.382㎢(약 110만5400평), 문화재청 임대료 기준(2007년) 산정시 약 1689억여원에 달하는 규모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국립공원 내 사찰토지에 대한 운영권을 귀속하고 사찰토지의 국립공원 무상편입에 따른 임대료 청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원관리업무의 지자체 이관= 문화재사찰위원회는 "현재 공원관리주체인 환경부는 수질과 대기관리를 기본으로 하는 기관"이라며 "수목과 산림에 전문성이 없는 환경부가 관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므로, 지자체로 이관해 산림청, 문화재청 등의 지원을 받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립공원내의 사찰소유토지는 국가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문화적 마인드 없이 체육레저나 생태 환경적 관점으로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것. 일본이나 중국의 경우 문화유산이나 경승구역 등을 문화 관련 정부부처에서 관리하는 것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관람료'를 문화재구역입장료'로= 문화재사찰위원회는 7월 24일 회의에서 '문화재관람료'란 명칭을 '문화재 구역 입장료'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등산객 등이 사찰소유 토지를 이용함에도 '관람료'란 용어로 인해 문화재만 안 보면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고정관념을 불식시키기 위한 방편이다. 이에 따라, 종무원은 '관람료관리법'을 폐지하고 '문화재사찰 관리 등에 관한 법'을 제정하기로 하고, 9월 임시종회에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공원내 사찰토지 제외' 주장 배경=문화재사찰위원회는 대정부 결의문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사찰 소유의 토지를 국립공원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국립공원 편입으로 인한 수행환경 파괴를 최소화하고, 문화재보호법과 전통사찰보존법에 의거한 역사문화유적지로 보존관리돼야 한다는 의미다. 국립공원내의 사찰토지는 이미 관련법규에 의해 이중삼중으로 규제관리 되고 있기 때문에 국립공원에서 제외되더라도 관리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관람료 사용내역 부분 공개=올 초 문화재관람료 지출 내역 공개를 약속했던 총무원은 문화재사찰위원회의 동의를 구하지 못해 개략적인 사용내역만을 공개했다. 조계종 재무부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전체 76개 관람료 사찰의 매표수입은 330억원이다. 이중 53%는 당해 사찰에서 문화재 관리, 유지 · 보수와 인건비 등으로 사용된다. 또 30%는 사찰 건물 등 문화재 보수와 건물 신축 등에 사용되며 이는 종단의 승인을 거쳐 집행된다. 여기에 중앙박물관 관리 유지 지원비용 12%, 총무원 문화재관련 교육비 지원 5% 등이 포함된다. 재무부장 장적 스님은 "전체 330억 원의 관람료 가운데 53%는 당해 사찰이 문화재 보수와 관리, 유지 등에 사용하고 있어 단위사찰의 동의하에 공개하는 것이 옳다"며 "실제 문화재 관리 비용은 1200억~1500억원이 소요돼 부족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김성우 기자



"어청수 청장 참회하라" 항의법회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 차량에 대한 경찰의 과도한 검문에 대해 불교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종무원 원우회와 시국법회추진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의 불자 200 여명은 7월 30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어청수 청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항의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 장영욱 원우회장과 이세용 조계사 총무과장은 어청수 청장과 경찰의 참회를 촉구하는 삭발을 했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社 告

현대불교 기자모집

현대불교신문사가 취재기자(신입)를 모집합니다. 신심을 가지고 불교계에서 일할 인재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모집부문 : 취재기자
◆모집인원 : 신입 0명
◆지원자격 : 대졸자 이상
◆접수기간 : 2008년 8월 15일(금)까지
◆문의 : 이메일로만 접수 (전화문의 사절)
cgseo@buddhapia.com
◆제출서류
-이력서(자유양식, 반명함판 사진 부착, 상단에 연락처 명시)
-자기소개서
-메일 제목에 [취재기자 지원_이름_ 연락처] 순으로 명기.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

'지관 스님 차량 검문' 불자들 뿔났다

산문폐쇄 등 경찰에 강경대응 방침 밝혀

이명박 정부의 종교편향에 대해 우려하던 불교계가 경찰의 지관 스님(조계종 총무원장) 차량 과잉 검문에 분노해 2000만 범불교도대회, 산문폐쇄 등으로 강력 대응키로 했다.

사건의 발단은 7월 29일 오후 4시경, 차량으로 총무원 청사를 나서던 지관 스님이 경찰에게 제지당하면서 비롯됐다. 총무원측이 사전에 지관 스님 차량 검문 자제를 요청했으나, 오히려 경찰은 지관 스님이 탑승한 것을 확인했음에도 "총무원장 스님 차량일수록 더 검문해야 한다"며 검문을 강행했다.

백주대낮 조계사 마당에서 벌어진 총무원장 모욕 사건에 교계가 발칵 뒤집혔다. 사건 당일 오후 6시경 조계종 원우회(회장 장영욱) 100여명이 종로경찰서를 항의 방문했다. 7월 29일부터 3일 동안 원우회, 종교편향종식불교연석회의, 시국법회 추진위, 불교종단협의회, 참여불교재가연대 등 정부를 규탄하는 교계의 성명서 발표가 줄이었다.

파문이 커지자 조계종은 선방 안거가 해제하는 8월 중순 이후 종교편향 종식을 위한 2000만불교도 대회 구상과 함께 산문폐쇄도 불사할 방침이다. 〈2면에 계속〉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법률사무소 서안 취급업무 : 민사 · 형사 · 가사 · 행정
강영화 변호사 | 031)436-3054 010-7504-4521
김기현 변호사 | 031)436-3114 017-535-06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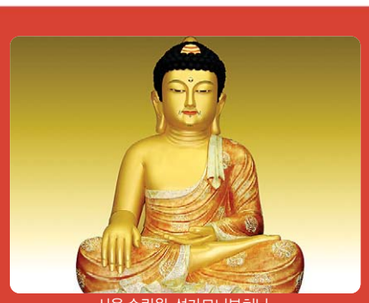
www.buddhabook.co.kr
02_3672_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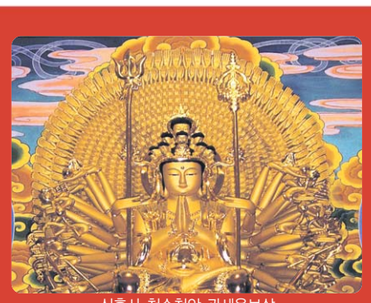
부처님 제1공양
108참회 건강. 청다향
백두대간 천혜의 자연에서 자란 편백, 솔, 쑥, 산요초의 황금빛 향기의 핵을 증류
덕유산 청다향 문의 055)941-10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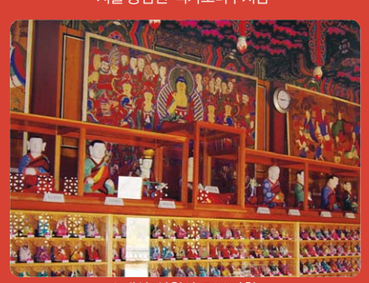
불가 최초생수에 희석하여 사용하는 관불 · 관욕 전용 관불수향
올곧은 마음으로 참된 공양물만을 만드는
능인향당 향 · 조각 · 공양물
본사 02)3663-6777 직영매장(조계사 맞은편 02-730-68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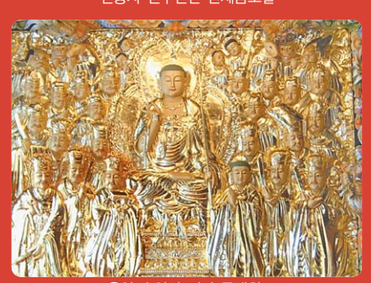
성 불 조 각 원
www.sungbul.co.kr




서울 송림원 석가모니부처님


신흥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오대산 상원사 500나한


온양 수암사 지장 목탱화

귀의 삼보 하옵고
저희 성불조각원은 불교 목공예를 전문으로하여 저희가 생산하는 모든 작품에는 작은 못하나 사용치 않고 짜맞춤 공법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수작업을 필요로 하지만 작은 경상 하나라도 대를 이어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초심을 잃지 않도록 여러 대덕스님들의 조언과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성불조각원이 하는일
■ (목) 부처님 조성, 목탱화, 사천왕, 나한...
■ 법당 내부공사, 조각문, 현판, 용두...
■ 연, 법상, 목어, 불명폐 기타 모든 작품 주문 제작 합니다.

※ 작은 일이라도 불심으로 정성껏 상담합니다.

• 전시장 : 강원도 춘천시 칠전동 594-2
• 전 화 : 033)263-1102 · 017-379-0590



죽비와 목탁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조계종 수장이 교회서 투표?

교회투표소가 또 말썽이다.

7월 30일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정당한 한 표를 행사하러 간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교회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웃지 못 할 일이 발생한 것이다. 지관 스님이 주석하는 경국사가 위치한 정릉3동은 최근 총선 때는 개인공장 건물을, 대통령선거 때는 인근 복지관을 투표소로 활용했던 곳이다. 교회투표와 관련 올해 2월부터 불교계가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시설이 아닌 곳에서 하던 투표를 종교시설로 옮긴 곳이 생긴 것이다.

물론 교회에서, 종교시설에서 투표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다만 종교시설 대부분이 교회에 치우쳐있기에 문제다.

종교시설 내 투표소 문제는 지난 대선 때부터 불거져왔다. 문제의 심각성에 집중한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공동대표 박광서, 이하 종자연)은 2월 27일 '종교시설 투표소설치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종교시설 내 투표소로 인권이 침해됐다는 4명의 청구인을 공모해 작성한 청구서다.

이에 3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으므로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를 하지 말라'는 권고를 이끌어냈다.

당시 종자연의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 대선 때 전국 투표소 중 종교시설 내 투표소 비율은 8.9%(1만3178개소 중 1172개소). 서울은 무려 23.1%(2210개소 중 511개소)여서 지역편중현상까지 드러냈다. 본지 조사에 의하면 18대 총선에서는 서울의 경우 전체 2210개 투표소 가운데 426개소(19.3%)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는 379개소(17%)로 511개소를 기록했던 대선 때보다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많다. 종교시설 내 투표소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인권위의 권고가 무색함을, 선관위의 편의주의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특히 교회투표소는 교육감 선거에서만 봐도 종교시설 전체 379개소 가운데 348개소, 가톨릭을 포함하면 374개소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문제다. 이번 투표소 가운데 절은 불광사 딱 한 곳이다.

교회투표소에서의 선교행위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서 타종교인들이 교회에서 투표를 하면서 겪는 불편함은 '편의'라는 이름으로 쉽게 웃어넘길 일이 아니다. 선관위는 편의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인권위의 권고를 심사숙고해 실천하길 바란다.

한나라당 '종교편향 금지' 법안 추진

조문환 의원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 국회 제출

이명박 정부 들어 공직자의 특정종교 편향행위가 근절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한나라당이 종교편향 근절을 위한 입법조치에 본격 나섰다.

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나경원)가 7월 29일 조계종과 정책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다음 날 조문환 의원(비례대표)이 '공무원 종교편향 금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조문환 의원은 7월 30일 공직자의 정책집행 과정에서 종교적 편향성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법령과 정책 집행에 있어서 합리적인 사유 없이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된 직무수행 금지,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시정과 구제 절차 명문화, 피해사실 입증 책임의 배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계종-한나라당 정책 간담회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조문환 의원(왼쪽)과 나경원 의원.

조 의원은 "최근 정책 집행과정에서 종교편향성 시비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국민 통합을 심각히 저해하고 시국 현안을 푸는데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국가기관이나 공직자에 의한 종교편향 문제를 종교의 관대함으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종교의 자유 및 종교에 의한 부당한 차별금지 또한 헌법의 선언 문구를 넘어 구체화할 시기가 됐다"며 "이 개정안으로 인해 공무원에 의한 종교편향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공무원 복무규정 등 하위법령이나 개별법령에 구체적인 종교적 편향 지양(또는 중립) 규정이 명기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한나라당 제6정조위는 29일 총무원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공무원의 종교편향 근절을 위한 입법조치 방안에 대해 적극 추진하고,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정치 중립 의무와 같은 '종교 중립 의무' 조항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총무원 호법부장 정만 스님, 김영국 종책특보, 박희승 기획차장, 권오국 종교평화위원회 사무국장, 정우식 시국법회추진위 상황실장과 나경원 의원, 정각회 간사 조문환 의원과 김선길 보좌관 등이 참석한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공직자의 종교 중립을 위한 입법에 공감하고 종교편향 근절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정만 스님은 "종단에서는 '국가공무원' 이외에 '초중등교육법'과 '지방자치법'에도 '종교 중립' 조항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나경원 의원은 "당차원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겠다"며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위해 필요하다면 공청회 같은 것의 개최도 추진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공직자들의 종교편향과 관련한 한나라당의 이번 입법조치는 '정교분리 원칙'과 '종교의 자유 및 차별금지'라는 헌법적 선언규정을 넘어 구체적인 입법화를 처음으로 시도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 공직자의 종교편향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조항이 미약해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만큼, 보다 철저한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김성우 기자

1면에서 계속

7월 30일 조계종 대변인 승원 스님은 기자회견에서 "총무원장을 범죄자 취급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어청수 경찰청장 퇴진 등 가시적인 조치가 있기 전에는 정부와 어떤 대화도 하지 않겠다"며 강력한 대응을 천명했다.

7월 31일에는 조계종 중앙종회도 한목소리를 냈다. 조계종 금강회, 무량회, 무차회, 보림회, 화엄회 등 중앙종회 종책모임은 연대성명서를 통해 "지관 스님 과잉 검문은 불교말살 작태"라 질책하고, 하안거 해제 후 임시종회를 소집해 총무원 집행부와 연대해 대처할 뜻을 밝혔다.

선문 스님(중앙종회 의원)은 "원로회의와 종정 교시까지 건의하겠다"고 말해 불교계의 반이명박, 반정부 정서가 심각함을 대변했다.

30일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특정 종교에 대한 탄압"이라 말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이명박 정부는 지관 스님마저 범법자로 취급해 종교편향성을 또 다시 명백히 드러냈다"는 논평을 냈다.

불교계의 거세지는 반정부 정서에 한나라당은 곤혹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7월 30일 홍준표 원내대표가 한 TV방송에서 지관 스님 검문이 잘못된 것임을 시인한 것에 이어, 7월 31일 박희태 대표는 "불교계 노여움을 풀기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제 남은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이다.

조동섭 · 노덕현 기자

"남·북 합심 해외유출 문화재 되찾아야"

인묵 스님 등 환수운동 협의차 평양 방문

유네스코 지정 세계기록문화유산인 '조선왕실의궤'(일본 국내청 소장)를 비롯한 해외유출 문화재는 7만5000여 점. 2007년 12월 조계종이 출간한 <해외유출불교문화재> 일본편에 수록된 문화재 수는 1만477점에 이른다.

이런 가운데 조선왕실의궤환수위 공동의장 인묵 스님(봉선사 주지) 등 교계 인사들이 '해외 불법 반출 문화재 환수운동' 협의를 위해 8월 5~9일 평양을 방문한다.

인묵 스님과 김원웅 前 국회의원, 손안식 조계종 중앙신도회 상임부회장을 공동단장으로 구성된 방북단은 북한 조선불교도연맹과 '조선왕실의궤' 환수를 위한 반환 요청서를 작성해 일본 수상과 외무성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구라 컬렉션 ▲평남 대동군 출토 낙랑유물 ▲개성 화장사 패엽경 ▲데라우찌 문고 ▲규장각 대출도서 938책 등 일본 소장 약탈 문화재 반환도 협의할 예정이다.

문화재제자리찾기 사무총장 혜문 스님은 "일본이 1965년 한일협정을 근거로 문화재반환 문제를 종료됐다고 주장해 남측만의 문화재반환운동은 한계가 있다. 북측은 2002년 평양선언으로 일본 총리가 협력을 약속한 상태라 해외유출 문화재 반환에 남북공조는 필수"라며 방북취지를 밝혔다.

조동섭 기자

원효·만해스님 메달 제작 조폐공사 1만장 한정판매

신라 고승 원효 대사와 독립운동가이자 <님의 침묵>의 시인 만해 스님 메달이 제작됐다.

조폐공사(사업이사 정해윤)는 '한국의 인물시리즈 메달' 제8호와 제10호에 원효 스님과 만해 스님을 각각 선정했다고 7월 28일 발표했다.

메달 크기는 직경 40㎜에 중량 33g 정도다. 슬립 책자형 케이스와 별도로 6페이지 지면에 인물과 관련된 유적 사진, 업적 등을 수록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역사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격은 2만5000원으로 1만장 한정 판매한다. www.koreamint.com (02)710-5223

조동섭 기자

태고종 日서 영산재 시연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의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가 프랑스에 이어 일본 오사카에서 시연된다. 옥천범음대 영산재범음단은 8월 22, 23일 오사카문화원 대강당에서 모두 세 차례 영산재를 시연할 예정이며 각 공연은 '깨침의 소리'와 '수행자의 하루'라는 주제로 펼쳐진다.

김성우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김송호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5199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현대불교 영상사업 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문의 : 02-2004-8279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 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김봉환(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사) 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생모집 안내

제천불교여자전문대학
- 비구니 통학 강원 -
◆ 학장 : 석도기
(사)한국불교금강선원은 제천 금강사를 창건하여 여성불자 교육도량으로 부설하고 아래와 같이 통학 학인을 모집합니다.
◇교육시간 :
매월 음력 10일 오후 2시~ 음력 11일 정오 12시
매월 음력 20일 오후 2시~ 음력 21일 정오 12시
◇개 강 일 : 음력 7월 20일 (양력 8월 20일)
◇교육내용 : 전통강원에서 교육하는 사미, 사집, 사교, 대교 과목을 종합적으로 공부하며 의식교육을 필요에 따라 지도하고 특강을 통해 부족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기간 : 2년(강의를 녹음한 통신교육도 가능함)
◇강 주 : 활안 한정섭스님
충북 제천시 모산동 257-3번지
전화 겸 팩스 043)646-3800

한국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 대학장 : 호암 ◆ 대학원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나란다삼장불학원
◆ 원장 : 활안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각 6개월 과정)
◇원서교부 : 2008년 8월 1일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개 강 : 2008년 9월 8일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외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불교예술대학
◆ 교수 : 해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모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보존회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불자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의내용 : 사물다루는 법 등 기초교육
◇원서교부 : 2008년 8월 1일 ~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7시
◇개 강 : 2008년 9월 4일 목요일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www.kumgamgnet.net 전화 02)969-2410/969-4881 / 팩스 02)964-2433

“티베트에 자유와 평화를…”

‘세이브티베트 페스티벌’ 8월 8~9일 롤링홀서 개최




제3회 세이브티베트 페스티벌에서 공연한 ‘노브레인(좌)’과 ‘하찌앤TJ’.

“티베트인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중국으로부터 독립이지만 그 이전에 인간이 먼저 독립돼야 합니다. 부처님이 인간 세에 나실 적에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나는 존귀하다(天上天下唯我獨尊)’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 개개인은 존엄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불교이며 종교의 자유를 찾아 히말라야를 넘어 인도로 망명하는 티베트스님들과 난민을 하나로 묶어주는 정신력입니다.”

인도 다람살라에 위치한 티베트 난민촌을 후원하는 자선공연 ‘세이브티베트 페스티벌(Save Tibet Festival)’이 올해로 4회째를 맞았다. 8월 8·9일 양일간 펼쳐질 행사의 총 감독을 맡은 잠양(티베트·Tenging Jamyang·32)은 2004년 한국의 땅끝마을에서 임진각까지 600km 국토종단을 하며 한국과 티베트의 공감대를 발견하고 지금의 축제를 기획했다.

“현재 한국은 독립국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동시에 한국인과 티베트인은 남다른 열정과 따스함이 있습니다. 한국사를 공부하며 티베트와 중국의 관계처럼 한국 또한 일제강점기를 겪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여기서 소리치면 통한다’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세이브티베트 페스티벌은 NGO ‘록빠(Rogpa)’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 중 하나다. 록빠는 ‘돕는 이’, 친구라는 의미를 지닌 티베트어로 한국에서는 티베트 난민을 알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면서 같은 아픔을 겪었던 양국의 건강한 교류를 지향한다.

이번 세이브티베트페스티벌은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롤링홀’에서 열린다. 강산에와 체리필터를 비롯한 인디밴드들이 출연해 티베트의 자유와 평화를 노래할 예정이다. 자유로운 영혼을 지닌 이들이 펼치는 오아시스로 초대한다. 티켓예매=(010)3061-9495

가연숙 기자



“황우석 박사 연구 승인을 촉구합니다”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회의가 7월 24일 황우석 박사의 연구승인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데 이어, 영천 은해사 주지 법타 스님과 황우석지킴이불자모임(대표 이주용) 등은 7월 29일 조계사(주지 세민)에서 ‘황우석 박사의 연구 승인을 촉구하는 불교인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법타 스님은 성명서를 낭독한 후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의 조계종 사찰 1000여 곳에 현수막을 전달하고 게재를 당부했다.

글·사진=박재완 기자

“미얀마에 자비 손길 보내주세요”

아신 냐네이사라 스님 조계사서 법문



“사이클론 피해 입은 미얀마에 한국불자의 관심과 지원을 호소합니다.”

부천 석왕사 초청으로 미얀마에서 온 아신 냐네이사라(71) 스님이 7월 29일 조계사에서 법문했다. 이번 법회는 중앙신도회 ‘미얀마의류지원캠페인’ 진행에 감사를 표하고, 쇠고기 등 시국문제로 잊혀져 가는 미얀마 사이클론 피해복구에 불자들의 동참을 촉구하기위해 마련됐다.

아신 냐네이사라 스님은 양곤 승가대학 졸업 후 에라와디 비비엠대학 학장을 역임하고, 시따구 국제불교대학을 설립했으며, 무료진료소·쌀 기부운동·수돗물 지원 프로그램 등 미얀마 복지향상에 앞장선 미얀마 고승이다.

아신 스님은 “자비는 고통 받는 자를 보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행복의 원천이지만, 자비심만으로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할 수 없다”며 지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스님은 “자비와 지혜가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신 스님은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면 서로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자비심을 갖고 보시하는 것은 세계인이 모두 하나의 가족이라는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는 일”이라 설명했다.

자비와 지혜의 조화를 강조한 법문을 마친 아신 스님은 “미얀마에 한국불자들이 지원해 의류와 식량뿐만 아니라 학교 등 교육과 주거공간 확보에 큰 도움이 됐다”며 한국불자들의 계속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미얀마는 5월 2일 사이클론으로 220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2000개 넘는 사찰과 5000개 넘는 학교, 400만 에이커(160억m2)의 농지가 파괴되는 피해를 입었다. 현재 국제사회의 도움이 잇따르고 있지만 미얀마 군정의 통제와 감시로 많은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이에 미얀마 스님들이 직접 나서서 구호활동을 펴고 있는 것이다.

조계종에서는 미얀마 사이클론이 발생한 직후 전국사찰에 공문을 보내 성금운동을 전개했다. 해인사, 수덕사 등 전국교구본사와 한마음선원, 불교TV 등의 성금으로 현재 4억600만원이 모금됐고 향후 전달방식에 대해 논의 중인 상황이다.

또한 조계종 중앙신도회 산하 미얀마불교대책위도 미얀마 사이클론 피해자들을 위한 의류 모으기 운동을 벌여 7월 16일 20피트 컨테이너 1대 분량의 의류를 보냈다. 8월 말에는 추가로 2차분을 전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광장의 촛불은 선재동자다”

시국법회추진위 시국토론회

촛불의 미래를 얘기하는 열린 토론회가 열렸다. 시국법회추진위원회(공동대표 추진위원장 수경)가 7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1차 대중공사 ‘촛불의 진화를 위한 성찰’을 개최했다. 이번 시국토론회는 시국법회 추진위가 7·4 시국법회와 연계해 진행하는 시국기도회·시국문화제의 일환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지하 시인의 기조발제와 우희종 수의과학대 교수, 빨리문헌연구소장 마성 스님, 방인성 광우병기독교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 서강대 박광서 교수의 내부발제, 참가 대중들의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김지하 시인은 기조발제에서 “촛불은 수많은 보살들이 저마다 각기 다른 각도와 표현으로 진리를 외치는 집단지성, 즉 불교의 화엄사상이다”며 “이러한 촛불화엄사상은 생명이라는 보편진리로 평화적인 개벽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광장의 촛불하나 하나는 <화엄경>의 선재동자”라며 “촛불의 진화는 정권퇴진의 다급한 소리보다 평화와 생활가치를 위한 목소리를 낼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우희종 교수도 “폭력은 폭력으로 극복되지 않는다”며 “부처께서 언제나 평화를 이야기하고 몸소 행하셨듯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폭력이다”고 말했다. 우 교수는 “폭력의 다른 면이 ‘체념’이다. 너와 나의 열린 관계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이 부처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요구하는 삶의 자세이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독도문제 동북아 연계 대응을”

김학린 교수 평화재단 논평



정부의 독도 실효적지배전략을 수정해 동북아 해양분쟁지역 전체와 연계해 대응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김학린 교수는 7월 29일 평화재단 논평에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독도의 ‘국제분쟁지역화’라는 장기 전략의 일환으로 강경대응과 실효적지배 강화를 통한 대응 모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한·일 양자 대립구도에서 다자·다면구도로 전환해야만 국제사회에 일본독도영유권 주장이 과거침략역사의 일환임을 호소할 수 있다”며 “일본의 근본인식을 바꾸기 위해 독도문제와 유사한 중·일 ‘동중국해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문제와 러·일 ‘북해4도’ 문제 등을 한, 중, 러, 대만, 북한이 연계해 6자회담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독도는 일본에게는 하나의 섬이지만 한국에게는 식민지 해방의 역사적 상징”이라며 “이러한 사실을 일본에 주지시키기 위해 한국의 독도만큼 일본이 상징적 의미를 갖는 사안 또한 연계하자”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흥겨운 우리가락 듣고 법문 배우고…”

불광사, 청년법회 활성화 위한 국악문화법회 개최

민족의 전통음악과 부처님의 법문을 한 곳에서 들을 수 있는 이색법회가 열렸다. 서울 불광사(회주 지홍)는 7월 26일 불광사 보광당에서 국악문화법회를 개최했다.

이번 법회는 불광사가 활발히 벌이는 공연 · 출판 · 아동교육 등 대중포교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민족전통음악인 국악에 대한 청년 불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법회 참석율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도법사 본공 스님을 비롯한 불광사청년회 50여명이 참여한 이번 법회는 국립국악관현악단 이상준 단원의 국악기 소개와 김병성 단원의 관악기 연주, 국악공연단체 A-HOPE의 피리3중주 등으로 진행됐다.


불광사 청년법회에서 공연 중인 이승호·이상준·오노을·임정호씨(왼쪽부터).

특히 김병성 단원이 대금으로 연주한 ‘영산회상’과 바라춤곡 중 ‘천수바라’를 소재로 한 A-HOPE 오노을 단원의 태평소 연주는 법회에 참여한 불자들의 심금을 울렸다. 이어 피리3중주는 모노북, 개량단소, 피리, 태평소 합주로 현대감각에 맞는 신나는 음악으로 연주됐다.

시연곡 중 영산회상은 ‘영산회상불보살(靈山會相佛菩薩)’ 가사를 관현악 반주로 노래한 불교음악이다. 본래 불교 성악곡이던 영산회상이 중종(1506~1544) 때 개작돼 점차 기악곡으로 변화한 것이다. ‘천수바라’ 태평소 연주는 원래 스님들이 연주했으나 현재는 국악으로 재가자들이 연주하고 있다.

이번 법회는 2003년 대만에서 열렸던 불광산사·불광사 자매결연 축하공연이 계기가 됐다. 이상준 단원은 “본공 스님이 아들 이름까지 작명해 준 고마움에 보답하고자 청년회에 문화공양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밝히며 현대국악의 발전에 대해 “예전에는 전통악기가 개량이 안돼 한중일 합동공연 등에서 악보의 음역을 소화하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지금은 북한과 교류를 통한 민족악기의 현대화가 진행되고 비보이들과의 합연으로 신세대에 맞는 민족음악도 개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근현대 국악인이 천시받던 풍조는 일제시대 민족문화 말살정책 때문으로 국악인들은 국악을 하려면 기생집에서만 가능했다”며 “민족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우리 문화인 국악에 불자들이 애정을 가져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불광사는 월간 <불광> <공감 플러스>등 출판과 불광유치원, 대학원 등을 통해 불교 교육에 앞장서고 있으며 제1회 불광장학회를 조직해 문화포교와 불교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노덕현 기자

“청소년들에 ‘꿈과 희망’ 을”

백담사 만해마을서 ‘청소년 의지나눔캠프’ 개최

결손빈곤아동, 청소년에게 희망과 꿈을 주는 캠프가 열린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지관)은 8월 15~17일 인제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의지나눔캠프를 개최한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종사자들을 만나 미래의 직업에 구체적 비전을 가지게 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캠프에서는 각 진로별 전문가의 초청강의와 성격유형검사를 통한 청소년 진로탐색 및 멘토링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진로상담프로그램, 다도, 사물치기, 떳목타기, 고기잡이 등 전통놀이마당이 준비되어 사찰예절과 민족전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참가는 초등학교 5학년~중학교 3학년 80명을 대상으로, 이메일(woeks@chol.com)을 통한 신청서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서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홈페이지(www.mahayana.or.kr)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관계자는 “결손빈곤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꿈과 희망을 크게 잡고 잠재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며 “아이들이 넓고 다양한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여러 직업군 봉사자와 불자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02)738-1920

노덕현 기자


동국대 의료봉사단원이 캄보디아 어린이를 치료하고 있다.

“캄보디아에 전한 자비의 인술”

동국대 경주병원 의료봉사

동국대 경주병원(원장 이규춘)은 7월 21~27일 캄보디아에서 해외의료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동국 교수(의료봉사단장)와 무구스님(지도법사) 등 12명으로 구성된 의료봉사단은 씨엠립주 수상마을과 앙코르톰 쫍따뜨라우면 지역민 1500여명에게 인술을 펼쳤다. 동국대 경주병원은 2005년 1월 지진해일(쓰나미) 피해지역인 스리랑카에 해외의료봉사단을 파견한 이래 해마다 자비정신을 실천 중이다.

조동섭 기자

만불사 백중 학술세미나

우란분절(백중)을 맞아 영천 만불사(주지 학성)가 천혼대재와 학술세미나를 봉행한다. 8월 9일 오후 1시 ‘인간의 삶과 죽음의 번뇌’를 주제로 열리는 세미나에서는 정병조 원장(한국불교연구원)이 ‘생사일여의 미학’을, 우제선 교수(동국대)가 ‘윤회와 생존’을, 김상영 교수(중앙승가대)가 ‘우란분절의 의미와 역사’를 발표한다. 오후 5시부터는 ‘제1회 조상영가 천혼대재’를 봉행한다. (053)217-0101

조동섭 기자

“53 선지식과 함께 구법여행을”

리더스클럽 5기 개강

참여불교재가연대 산하 불교아카데미는 8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총 16회) 만해NGO교육센터 대교육관에서 ‘53도반과 함께 하는 구법여행-제5기 리더스클럽’을 개강한다.

8월 21일 입재식을 시작으로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8월 28일-<대념처경>을 중심으로 본 불교수행원리(중앙승가대 교수 미산 스님) ▲9월 2일-초기불교에 대한 실증적 이해(팔리문헌연구소장 마성 스님) ▲9월 7일-수학여행-사찰생태기행(사찰생태연구소 김재일 소장) ▲9월 11일-근본교리의 체계와 한국불교 수행 모델(동방불교대 김재영 법사) ▲9월 18일-세계불교의 흐름과 한국불교의 도전(서강대 박광서 교수) ▲9월 25일, 외전에서 본 불교비판(건국대 성태용 교수) ▲10월 2일-팀별 과제작업과 특강 ‘3박자 불교학습법’(NGO미래경영연구소 이영철 소장) ▲10월 23일-화엄불교를 통해 본 대승불교운동(연세대 신규탁 교수) 등 모두 14강으로 진행된다.

불교아카데미는 ‘비전, 리더십, 응용력을 갖춘 불교인재와 리더 양성’을 목표로 하는 종교계 최초의 교육, 리서치, 컨설팅 종합기관이다. 접수마감은 8월 12일. (02)2278-1087

김성우 기자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4〉효봉 대선사❷

“봉투 속에는 편지만 들어 있는 줄 알았지 돈이 들어 있는 것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라! 편지가 효봉 스님과 취봉 스님 두 분 앞으로 되어 있으니, 확인하지 않고는 나가지 못한다.”

하며, 경찰관은 수화기를 들었다. 화계파출소에 있는 순경 보고 쌍계사에 올라가 확인하고 내려오라 했는데, 자그만치 4시간이나 걸려 밤 9시에야 확인이 되었다.

“지리산 토벌작전으로 검문을 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으니, 이해하고 하동포교당에 가서 자고 가라.”

경찰관의 안내를 받아 들어갔으나 어느 큰 절에서 왔다는 수좌 한 분이 좌복을 깔고 누워있다 새벽녘에 일어나 말했다.

“이 절에는 예불도 하지 않는구나. 이런 곳에 부처님이 계시면 무얼 하나.”

하고는 법당 안에 모셔진 백옥관세음보살상을 바랑에 넣고 나갔다. 그대로 앉아 있다가는 도둑의 누를 쓸 것 같아 나도 뛰어나가 무조건 지리산을 향해 걸었다. 얼마쯤 걷다 보니 첫 버스가 왔다.

화계에서 내렸으나 절까지는 6km나 되었다. 세 네 번 검문을 당하면서 겨우 쌍계사 탑전에 이르니 얼굴에서 밝은 빛이 환히 나는 한 노스님이 안경을 끼고 양발을 깁고 있었다.

“효봉 큰스님 뵈러 왔습니다.”

“음, 조금 전 하동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너였구나.”

하고 자리를 권했다.

편지를 내어 드리니 행자더러 우선 밥을 주라 하셨다. 행자는 부엌에 들어가 김치와 간장 두 가지에 불기밥 한 덩어리를 있는 그대로 주었다. 아침 겸 점심을 먹고 나니 목욕을 가신다며 같이 가자 하셨다. 뒷 개울에 올라가니 맑은 냇물이 그림처럼 흘러내려간다. 노스님은 스스럼 없이 물속에 들어가 한참 앉았다가 등어리를 밀라 하셨다.

등어리를 밀면서 밖으로 드러난 궁둥이를 보니 주먹만큼씩 한 흠이 파여 있었다.

“어찌 이렇게 되었습니까?”

“미련하게 공부하다 살점이 떨어졌지.”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석달 동안 아랫목에 앉아 일어나지 않고 정진하다 보니 궁둥이 살이 썩어 문드러졌다고 한다. 저녁 예불은 탑전에서 죽비로 3배만 하고 한참 앉아 좌선하다가 나오면서 물으셨다.

“너 저 탑 앞에 있는 육조대사의 돌베개를 들 수 있겠느냐?”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하고 가서 들어올리니, 깔깔 웃으시면서

> “육조대사의 돌베개를 들 수 있겠느냐?
> 그만 두어라. 참으로 미련한 놈이구나”

“그만 두어라. 참으로 미련한 놈이구나.”

하셨다. ‘육조대사의 정신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물으신 것인데, 이를 알아듣지 못하고 돌베개를 들었으니 말이다.

이튿날 스님은 시자와 함께 단둘이서 발우공양을 하시고, 나는 작은 상에 따로 밥을 차려주었다.

“취봉 스님은 그제 떠났으니 다시 이 편지는 취봉 스님께 갔다 주고, 너는 절에 가서 추강 스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라. 열심히 하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알고 보니 이번 심부름은 첫째로 송광사 복구를 위해 효봉 스님을 송광사로 모시려 했던 것이고, 둘째로 내가 중노릇 잘 할 수 있을 것인지 속마음을 헤아려 보아 달라 부탁한 것이었다. 후에 서울에 와서야 당시 효봉 스님이 대한불교조계종 종정스님인 것을 알았다.

“해맑은 안경 너머로/ 양발을 깁고 있는 노스님이시여/ 천 땀만 땀이 모두 한 길/ 옛 사람들의 발자취인걸/ 행자는 미련하여/ 돌베개를 들었습니다.”

빙의 퇴마 최면을 전수합니다

빙의 치유
● 영을 직접불러 누구인지? 무슨 원한인지? 소원이 무엇인지? 천도

전생체험
● 원통한 인간의 인과 응보와 원인을 찾아 업장을 소멸하고 사업자 상업자에게 사업성취를, 기도자는 기도성취를, 원인모를 악질증상 등을 좋은 운으로 돌릴수 있습니다.

치유가능한 증상들
● 빙의(귀신병), 퇴마,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공포, 불안공포, 불면증, 만성두통, 게임중독, 약물중독, 급한성격, 집중력, 성적향상 등등
● 빙의,퇴마,최면을 배우실분
● 자기최면,타인최면을 배우실분
● 자녀들의 성적향상을 위한 부모님
● 포교활동에 꼭 필요하신분(성직자 특별우대,종교불문)

● 전수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대체의학, 침술, 최면, 빙의, 퇴마 등을 한곳에서 전수가능하며 전수 후에 각 시도 지사도 가능함.
● 최단기간 실전교육.
● 최면시술 누구나 가능합니다.

▷ 특별보시금 60만원 ▷ 실전교육으로 책임 전수함
▷ 교육시간(매일) 오후 2시 – 3시 30분 / 오후 6시30분 – 8시
▷ 특별교육 : 시간,요일 조절가능 ▷ 매주 (월)요일은 쉽니다.

제 1기 단전호흡 · 명상 · 최면 수강생 모집
▷개강 : 2008년 9월 3일(수) 오전 10시 지장사 법당
매주(수) 오전 10시 – 11시 30분 / 오후 7시 30분 – 9시

한국 빙의 퇴마 최면 연합회 본부 지 장 사 현오 합장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1388-8 (부산 지하철 2호선 화명역 2번출구 전자랜드 후문 앞)
TEL 051)364-5586 / 010-3056-3315 HTTP://WWW.JIJANGSA24.ORG



'박제화' 아픔 딛고 '불교중흥의 싹' 꿈틀

불교의 나라 몽골의 오늘

현장속으로

7월 22일, 인천공항을 출발해 몽골 국경안으로 들어와서도 한참을 고비사막 위를 날아 수도 울란바토르시에 도착하기까지는 3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됐다.
칭기스칸 공항에 내린 순간, 몽골이란 나라는 풍습에서부터 사람들 모습, 거리풍경까지 한국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든다. 울란바토르 시내는 글자를 제외하면 우리나라의 1970년대 모습과 판박이다. 한국의 중고 버스와 현대자동차들이 시내를 달리고 있는데다(70%정도), 날씨도 한국의 초가을 날씨와 비슷해서 외국이라는 느낌이 별로 들지 않는다.
몽골은 한국과 중국, 러시아와 국제선 항공편이 개통되어 있는데, 요즘은 한국과 교류가 깊다. 한국에서는 3만6000여 명이 취업이나 유학을 위해 체류 중이고, 몽골내에서는 KBS가 방영되고 있으며 한국 드라마가 더빙이 되어 케이블TV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다.
'몽고반점'을 가진 한민족의 시원지로서 우리에게는 고향과도 같은 땅 몽골. 물이 참 귀한 열악한 초원과 사막지대에서 한반도까지 살기 좋은 땅을 찾아 남쪽으로 이동해 온 옛 조상들의 지혜와 고난의 역정이 절절하다. 역시 한국은 맑은 물과 울창한 숲을 가진 축복의 땅임을 실감한다.

사회주의 법난시 1만7천여 스님 살해

한반도의 7.4배에 달하는 넓은 땅에 280만 여명이 사는 몽골의 종교분포는 불교가 약 90%, 이슬람교가 5%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1990년 이후 개신교와 가톨릭이 공격적인 선교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여전히 전통적인 불교국가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불과 16년전만 해도 몽골불교는 처절한 법난의 암흑기를 보내야 했다. 1921년부터 1990년까지 사회주의를 거치면서 몽골의 전통불교는 철저히 파괴됐다. 그 사이 7만 여 스님이 살해(1만7000여명)되거나 환속을 당했으며, 몽골 국민들은 남몰래 불교 신행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법난의 상처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곳이 몽골 최대의 불교대학터가 있었던 만취르 사원터다. 7월 25일, 울란바토르에서 한 시간 정도 거리에 위치한 만취르 사원터는 복후드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자연경관 속에서 더욱 애잔한 정취를 풍기고 있었다.

1만 여명이 거주하던 방대한 사원터는 2층짜리 법당과 흉물스런 건물 잔해만을 남긴 채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500명의 식사를 지을 수 있는 무게 5톤의 대형 가마솥이 사원의 옛 규모를 짐작케 한다. 1938년 스탈린 사회주의자들은 사원의 건물을 철거하고 스님들을 강제로 군대에 보내거나 결혼을 시켰다. 이 와중에 이 절에서만 무려 50여 스님이 인민재판을 통해 살해됐다. 1733년 창건된 전통사원은 이제 작은 전각과 자연사박물관을 갖춘 관광지로 변모했지만, 언젠가는 이곳도 복원될 날이 있으리란 희망을 가져본다.

760여 사원 파괴…남은 곳은 박물관화

한때 인구의 20%가 승려였을 만큼 번창했던 몽골불교는 공산혁명 이후 점차 '사회의 공적(公敵)'으로 몰렸다. 특히 스탈린의 입김이 이곳까지 뻗쳐 1937~1938년 사이 1만7000여 스님을 포함해 10만 가까운 지식인이 몰살당했다. 760여개 사찰 대부분이 파괴되거나 박물관, 창고, 군부대 막사 등으로 전용됐고, 경전과 목각 경판은 군인들의 땔감으로 쓰였다. 절에 있던 수많은 성보들이 트럭이나 열차에 실려 옛 소련으로 약탈됐다.

이 당시 법난의 여파로 사원 형태는 그대로 유지됐지만 박물관으로 용도가 바뀐 절이 여럿 있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초이징라마 사원이다. 8대 벅뜨칸(승려 왕)의 동생을 위해 1908년 세워진 이 사원은 몽골에서 가장 아름다운 절로 꼽힌다. 여기에 보관된 손이 여럿 달린 신상과 남녀교합상(男女交合像) 등의 불상들은 티베트불교의 전통이 강하게 느껴진다. 1938년 폐쇄된 이 사원은 1942년부터 박물관으로 운영됐다. 이곳에서는 17~19세기 회화, 금속공예, 조각, 탕카, 초이징 스님과 벅뜨(불교 최고지도자)가 앉아있는 모습의 미라 등 유명한 전시물들이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92년 민주화 이후 사찰 300여곳 복구

신행공간으로서의 기능은 정지됐지만 사회주의 이전 몽골불교의 흥성을 엿볼 수 있는 이 사원처럼, 몽골불교문화의 화려함을 엿볼 수 있는 곳이 벅뜨 계겐(活佛)의 겨울궁전이다. 몽골불교 종정(宗正)이었던 제8대 벅뜨 계겐(자브잔담바, 1870~1924)의 거처로 1893년 세워진 이 궁전은 주거용 2층 건물과 7개의 절로 이뤄져 있다. 벅뜨 계겐은 1911년 독립국 몽골의 칸(왕)으로 추대됐고, 1921년 인민혁명 뒤 군주가 된다. 1924년 그가 숨지자 군주제는 폐지됐고 이후 이곳은 박물관이 돼 황실의 유품과 탱화, 불상, 악기 등을 전시하고 있다. 높이 80㎝쯤 되는 보름달처럼 동그란 얼굴에 잘룩한 허리, 풍만한 젖가슴 등 여성미를 간직한 타라관음(多羅觀音)상 등 탁월한 예술미를 보여주는 성보들은 아름다워서 더욱 슬픔을 불러일으킨다. 박물관에 갖힌 몽골불교의 뼈아픈 과거와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나 할까.

26m 간단사 관음불상 불교중흥 상징

1992년 민주공화제가 된 몽골은 박제화된 몽골불교의 아픔을 치유하며 불교 중흥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개방 16년인 요즘, 부서진 사원 가운데 전국적으로 300여 곳이 복구됐다고 한다. 무참히 짓밟혔던 불교가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는 곳이다. 몽골불교의 총본산인 간단사는 이러한 흐름의 근원지가 되고 있다.

실제로 간단사 관음전에 세워진 높이 26m의 거대한 청동관음보살상은 몽골정부의 지원금과 온 국민의 성금으로 1996년 세워진 것이다. 본래 이곳에는 동양 최대의 금동불이 있었는데 옛 소련군이 실어가버려 수십년간 텅 빈 채로 있었다. 공산정권이 무너진 뒤 오치르바트 초대 대통령이 사회통합을 위해 불사에 나선지 6년만에 다시 세워졌다.

관음전 건물 내벽에 모셔진 7000여 기의 원불 주변의 유리창 틈새에는 여기저기 10투그리크나 20투그리크짜리 몽골 지폐가 끼여져 있다. 경내에서 신도들은 독경을 대신하는 둥근 통(마니차)을 돌리거나 이마를 벽에 댄 채 무엇인가를 발원한다. 아직까지 몽골 불자들은 교리를 잘 몰라 삼보를 존중할 줄도 모르며 기복신앙에 머물러 있다. 1990년 이후 법난을 피해 숨어있던 스님들이 다시, 또는 새로 가사를 입은 스님들 역시 신도들의 애경사 때 경전 독송이나 염불을 주로 해주고, 전생이나 점을 봐주는 방편불교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싹트는 인재 불사와 포교가 새 희망

그러나 몽골불교의 중흥은 이제 시작단계라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전국에 크고 작은 절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무하다시피 했던 불교서적도 많이 번역, 출판되고 있다. 재정 부족으로 잘 진행이 되지는 않지만 각 분야에서 의미있는 불교사업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6월 27일 조계종 지원으로 간단사가 첫 FM라디오 불교방송 '고동의 멜로디'를 개국한 것이 대표적인 포교사업으로 손꼽힌다. 또 무조건 컴백한 불교에 열광하던 90년대 초반이나 중반과는 달리 몽골불교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런 사실들 자체가 발전과 진보로 여겨진다.

간단승가대학 김선정 교수(불교미술)는 "간단승가대학을 비롯한 몽골의 각처에서 많은 숫자의 젊고 어린 스님들이 정진하며 성숙해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몽골불교의 중흥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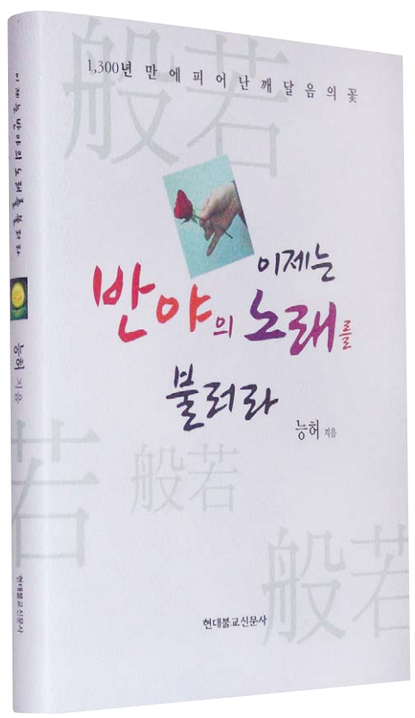
몽골=김성우 기자

▶ 전국 서점 또는 '온라인 여시아문'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02)737-0695

"덕산탁발화(德山托鉢話)와 파자소암(波子燒庵)의 두 공안을 다 통과했으니 내가 인가를 안할 수가 없어 눈 밝은 사람은 어디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당당한 대장부라네. 자네는 재가자로서 1,300년 만에 확철대오의 꽃을 피운 것이네" – 정일대선사

바라밀선원장(능허)의 구도여정 그리고 깨달음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온 까닭은?

1,300년 만 에 피 어 난 깨 달 음 의 꽃
이제는 반야의 노래를 불러라



능허(能虛)거사 지음
현대불교신문사 발행
양장본 / 238쪽 / 값 12,000원
바라밀선원 전화 055)314-0116,8

불교의 진면목은 채움이 아니라 비움에 있으며
배움이 아니라 배울 수 없음에 있으며
가르침이 아니라 가르칠 수 없음에 있으며
언어 문자가 아니라 언어 문자가 끊어짐에 있으며
지식이 아니라 지혜에 있으며 앎이 아니라 깨침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화경에서는, 불법은 생각이나 분별로는 이해할 수 없으며
오직 견성 성불한 부처만이 알 수 있음을 설했던 것입니다.
모든 부처와 조사가 한 법도 사람에게 주심이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종요로이 스스로 믿고
스스로 긍정하며 스스로 보고 스스로 깨닫게 할 뿐입니다.
– 법문 중에서

어디선가 찬바람이 불어오는데, 낙엽 하나가 내 발 앞에 떨어졌다.
바로 그 순간, 우주와 내가 둘이 아니었다.
큰스님께서 "보려고 하면 힘들다"고 하신 뜻이 하나로 통해지면서
눈길에 벌렁 누워버렸다. 밤하늘 밝은 달을 쳐다보니 고향땅에 도착한 것이
분명했다. 온몸에 땀이 흘러도 모르고 있다가, 찬바람에 땀이 식어지자
추위가 닥쳐왔다. 그제서야 번쩍 정신이 들었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혼자 중얼거렸다.
"이제는 천하에 부처님과 조사들도 나를 두 번 다시 속일 수 없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힘차게 소리를 질렀다.
"조주여! 천 년 사림살이 오늘 나에게 들켜 버렸구나!"
– 본문 중에서

일주문



故김재일 이사장 49재서 법문
동산불교대학장 무진장 스님은 8월 5일 9시 동산법당에서 열리는 故김재일 동산반야회 이사장 49재에서 법문한다.



진각종 통리원장배 어린이 축구대회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는 8월 13~14일 위덕대 대운동장에서 '제3회 진각종 통리원장배 자성동이 미니축구대회'를 개최한다.



2008 종교인 대화마당
종교환경회의 공동대표 수경 스님은 8월 21~23일 지리산 실상사 마을에서 '제7회 2008종교인대화마당'을 개최한다. (02)720-1654



칠석 어울림 문화마당
영월 법흥사 주지 도완 스님은 8월 9일 저녁 7시30분 경내 흥녕원 특설무대에서 '칠석 어울림 문화마당'을 연다. (033)375-9173



혜경 스님, 총무원에 미얀마 성금 전달
전등사 주지 혜경 스님(총무원 총무국장)은 7월 25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에게 중국 미얀마 재난구호 성금 600만원을 전달했다.



불레협 연꽃어린이 연합캠프
불교레크레이션협회 회장 송묵 스님은 7월 25~27일 괴산 다보사수련원에서 연꽃어린이 연합캠프를 개최했다.



한국불교대학 템플스테이
한국불교대학(前 영남불교대학) 大관음사 회주 우학 스님은 8월 1~4일 감포도량에서 8월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주제로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불교학연구회 2008하계 워크숍
불교학연구회 회장 본각 스님은 8월 9~10일 화순 유마사에서 2008년 하계워크숍을 개최한다.



한국불교학회 하계 워크숍
한국불교학회 김선근 회장은 7월 31일 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불교의 사회참여'를 주제로 하계워크샵을 개최했다.



대구범륜교수불자회 11대 회장에
영남대 김성규 교수는 7월 19~20일 청도 적천사에서 열린 대구범륜교수불자회 하계수련회 및 총회에서 제11대 신임 회장으로 추대됐다.

역경상 장순용 예술상 김혜옥 특별상 고요한소리 수상

제17회 행원문화상 수상자 발표, 9월 24일 시상식

제17회 행원문화상 수상자로 역경분야에 장순용씨(동국역경원 역경위원)와 예술분야에 탤런트 김혜옥씨, 특별상에 (사)고요한소리가 각각 선정됐다.

행원문화상 심사위원회는 "장순용 역경위원은 역경불사와 불교문헌의 대중선양 공로로, 김혜옥씨는 각종 드라마 등 방송에서 불교교리를 포교한 공로를 인정받아 상을 수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상 (사)고요한소리는 경전번역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20여년 전부터 빨리어경전을 번역 소개한 공로를 높게샀다"고 말했다.

역경상을 수상한 장순용 역경위원은 <선문보장록>, <화엄론절요>, <대장일람집>과 균여의 <십구장원통기> 등 역경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예술상을 수상한 김혜옥씨는 BBS불교방송 '아름다운초대'의 진행을 맡고 있으며 KBS, MBC 드라마에서 대중적 감성으로 불교를 홍보, 포교에 이바지하고 있다.

역경상, 예술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500만원, 특별상 수상자는 300만원이 각각 수여되며 시상식은 9월 24일 역삼동 대려도에서 열린다.

행원문화재단(이사장 주영운)은 불교계 최초의 장학재단으로 주영운 이사장이 1991년 중앙승가대학장 혜성 스님의 권고로 만든 재단이다. 2억원에서 시작한 재단 자본금은 현재 7억원에 달하며 그동안 월운스님 · 무비스님 · 소설가 정찬주 씨 · 탤런트 김용림 씨 · 개그맨 김병조 씨 · 은정희 교수 등 교계 학자들과 문화예술인에게 행원문화상을 시상해 왔다. 지금까지 지원된 행원문화상 시상금액은 4억5000만원이 넘는다.


장순용 역경위원.


탤런트 김혜옥.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종도 화합·교육·재정 위해 노력할 터"

태고종 전북종무원 부원장 송월 스님 선출

"종도 화합을 최우선으로 교육과 재정 안정화 이루겠습니다."

1년여 동안 공석이던 태고종 전북종무원 부원장에 선출된 송월 스님(군산 성흥사)은 "원장스님을 도와 산적한 난제들을 원만히 마무리 짓고 하루속히 전북종무원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7월 29일 태고종 전북 종회 제12회 임시종회에서 전북종무원 부원장에 선출된 스님은 "현대사회 시류에 맞게 종단 특성과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교육으로 전북 종무원스님들의 재교육과 교임자들의 소속감을 높이고 종도간 화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송월 스님은 정보화 사회에 발맞춰 인터넷을 통한 홍보와 포교 활동을 강화하고, 한동안 발행이 중지됐던 전북종무원소식지인 <태고보> 재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원장 선출 및 집행부 구성으로 전북지역 태고종은 새 전기를 맞았다.

태고종 전북종무원(원장 법운)과 전북 종회(의장 도광)가 개최한 제12회 임시 종회에는 종회의원 23명중 17명(1명 위임) 의원이 참석했다. 이날 종회에서는 부원장 사임으로 1년 가까이 공석으로 있던 부원장에 군산 성흥사 송월 스님을 선출한 것을 비롯해 종무국장 법전 스님, 사정국장 진성 스님, 교임국장 영명 스님, 포교국장 청암 스님 등 4개 소임자 임명 동의안을 의결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현대불교' 후원은 포교에 동참하는 길!

이순재 김자옥 중국·미얀마 홍보대사 위촉

7월 30일 긴급운동사무실서 위촉식

탤런트 이순재, 김자옥씨가 중국 · 미얀마 긴급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홍보대사 위촉은 국내 정치 · 사회적 이슈로 국민들의 관심과 지원이 멀어진 미얀마지원을 호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7월 30일 운동본부 사무실에서 열린 위촉식에는 이순재 씨와 긴급구호운동본부 공동대표인 지구촌공생회 송월주 스님, 사랑의열매 이세중 회장, 나눔과기쁨 손봉호 상임대표 등이 참석했다.

운동분부는 탤런트 이순재, 김자옥 씨와 함께 12월 말까지 다양한 행사를 통해 물품과 현금 모금을 할 예정이다. 또한 8월 10일 미얀마 피해지역을 돌아보고 지원을 하기 위해 2차 미얀마 지원단이 출발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제35회 한국방송대상 작품상 수상

BBS 박광열 이민선 PD

BBS 박광열 PD(포교제작팀)와 이민선 PD(교양제작팀)가 한국방송협회가 주최한 '제35회 한국방송대상에서 나란히 작품상을 수상했다.

박광열 PD는 '룸비니 동산'으로 어린이청소년 라디오 부문에서, 이민선 PD는 '새로 태어나는 역사 – 도굴과 발굴'로 다큐 라디오 부문에서 각각 작품상을 수상했다.


박광열PD.


이민선PD.

한편 시상식은 9월 3일 방송의 날 열리며, 35회 한국방송대상 작품상 대상은 KBS가 제작한 '차마고도'가 선정됐다.

조동섭 기자

진각사회복지재단 KT&G 차량 기증식



KT&G복지재단(이사장 김재홍)은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대표이사 회정)에 차량을 기증하고 7월 28일 차량기증식을 개최했다. 차량기증은 진각복지재단 산하 진각미혼모자가정 달빛둥지의 지원신청으로 선정됐다. 기증한 차량은 2세미만 영유아와 미혼양육모들을 위한 사회복지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이·취임식 봉행



한국불교조계종은 7월 28일 총본산 대구 백운암에서 제5대 종정추대 및 총무원장 이 · 취임식을 스님 30여명과 불자 3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했다. 종정으로는 무애 법안 대종사가 추대됐고, 신임 총무원장에는 현각 스님(제천 백안사)이 취임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한국불교대학, '홀로어르신 돕기 하루찻집'



영남불교대학복지재단(회주 우학)은 7월 24일 '홀로어르신 돕기 기금마련 하루찻집'을 열었다. 하늘법당 연꽃축제와 수화공연, 국악 관현악, 스포츠댄스, 사물놀이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 하루찻집 수익금은 모두 지역복지사업 기금으로 사용된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신흥사 중고등학생 여름불교학교



조계종 제3교구 본사 설악산 신흥사(주지 무산)는 7월 26~27일 1박 2일간 청소년 불교학교수련회를 백담사 무설전에서 봉행했다. 속초, 양양, 고성지역 중고등학생 60여명이 참가한 이번 수련회는 사찰예절, 발우공양, 자비명상, 다도, 108배, 행복소원 양초만들기 등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청소년들은 잠시나마 부처님 품속에서 심신의 피로를 회복하고,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며 남을 위한 자비심을 가꾸는 기회가 됐다.

김성우 기자

모 연 문

불교가 이 땅에 전래된지 약 1,700년에 이르러 국토 곳곳에 사찰이 건립되고 중생제도의 전당으로써 그 역할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인연이 박한 중생은 사찰이 있어도 불법을 외면하거나 사찰에 열심히 다니면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의 진수에 근접하지 못하는 우매함에 머물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희 금룡사는 경기도 포천시에 소재한 영산 금주산 중턱에 자리 잡은 기도도량으로써 경기북부지역에서 웅장한 면모를 자랑하는 유수한 대사찰입니다. 금룡사는 최근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부처님이 방광하는 기적이 일어나 포천시내에서 사찰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여 소방서에 신고, 소방차가 출동하는 등, 기도 동참하는 불자들에게 소원성취의 영험한 도량임이 입증되었습니다.

금룡사는 창건 이후 아무런 문제없이 지역사회 불교 포교의 중심 도량으로 맡은 바 역할과 사명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찰의 일부 사유지(대웅전 건물이 지어진 일부 토지)가 경계획정의 착오로 오랬동안 소송을 겪으면서 간난신고의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이곳 금룡사의 일부 토지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대웅전 건물을 부수고 성당 기도원을 세우겠다며 철거반을 보내는 등, 소송기간 중에 수 없는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소송 기간은 무려 28년 동안 이었습니다. 결국 부처님의 가피로 최근 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웅전 일부 토지분에 대한 일부 금액은 지불하라는 판결도 더불어 받았습니다.

28년동안 소송을 하면서 막대한 비용이 들었습니다. 일부 지불할 토지 금액은 약 1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리하여 이를 충당하기 위하여 부득이 불자 여러분의 동참과 지원을 요청키 위해 지면을 통하여 자세한 상황을 말씀드려 모연에 총력을 경주하게 되었습니다.

영험한 도량 금룡사가 불자님들의 귀의 처가 되고 중생의 대원을 성취해 주는 성지로서 유구한 미래가 이어지도록 불자여러분들의 크신 뜻이 모두어져 불사가 원만성취 되도록 수희 동참 해 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대작불사에 동참하신 인연공덕으로 불자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충만하시고, 세세 생생 불연의 공덕 원만 성취되시기를 부천님 전에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 후원 계좌 : 국민은행 219401-04-146222(예금주 : 금룡사) ◆ 동참 문의 : 031)533-4405 / 011-261-4405
(모연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금룡사 대작불사추진위원회 회주 무 심 행



현존 대부분의 사찰은 전통적인 목조건물로 축조되어 있고, 초 · 향 · 장작등에 노출되어 있어 항상 화재 위험이 상존합니다. 또 대부분 산지에 위치하는 관계로 화재발생 시 초기진화가 어려워 막대한 재산손실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불의의 사고에 대한 대비책은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비단 화재뿐만 아니라 사찰을 운영하며 교화표교활동을 벌이다 보면 온갖 사고와 자연재해, 신도들의 인적 물적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찰도 합리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 사찰 종합 보험 상품 안내 ◈

담보내용

구분	화 재	화 재	상 해
기본 담보	화재손해	시설소유 배상책임	24시간 상해
선택 담보	구내폭발손해 풍수재해손해 지진손해 악의적인 파괴행위 손해 협정보험가액	물질손해확장담보 구내치료비 주차장배상책임 생산물(음식물) 배상책임	교통상해 간병비 질병사망 수술비용

유의사항
보험회사의 현장위험 실사(실측)후 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시 필요자료
◆각 건축물의 건축(증개축)년도 및 면적
◆각 보험목적물의 종류 및 수용장소
◆각 보험목적물의 구입년도 및 단가

가입 및 상담 문의 011-648-1203 / 010-9996-7700 동부화재 서일석(無着) 합장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206호

엘살바도르에서 날아온 반가운 편지

해외불교칼럼

얼마 전 멀리서 반가운 이메일을 받았다. 지난 겨울 몹시 춥던 어느 날 길에서 잠시 마주친 두 젊은이 가운데 한 사람이 보내왔다. 그들은 동남아 어디에서 우연히 만나 서울까지 함께 왔다는 스위스와 엘살바도르의 배낭족 총각들이었다. 그런데 갈 곳을 못 찾아 꽤나 헤매고 있었다.

그저 스치는 사람들끼리 나누는 가벼운 인사 끝에 엘살바도르 총각이 말하길, 자기는 한국 불교에 관심이 많아 귀국하면 직접 수행을 할 생각이라고 했다. 그래서 인터넷과 스터디그룹을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될 거라고 말해줬다. 우리는 합장도 하고 악수도 하고 헤어졌다.

그리고 여덟 달 남짓 지난 장마철에 뜻밖에도 그에게서 소식이 왔다. 그의 허락을 받고 공개한다.

"저를 기억하시는지요? 서울에서 스위스 친구랑 함께 만났던 엘살바도르의 루벤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연락처도 받고 스페인어로 얘기도 나눌 수 있어 참 즐거웠어요. 저는 그 후 한국에 좀 더 있다가 일본을 거쳐서 귀국했어요. 먼저 한 가지 희소식을 나누고 싶군요. 저는 금년 초부터 엘살바도르 외무부에 인턴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막 불문에 들어섰답니다. 그리고 바른 불자가 되기 위해 제 나름대로 열심히 수행하고



한국불교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점차 깊어지고 있다. 사진은 연등축제에 참여한 외국인의 모습.

있어요. 엘살바도르에는 사찰이 없습니다. 그리고 불교모임도 아주 작은 규모입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들과 함께 불경스터디그룹을 만들어 공부합니다. 또 저는 제 방에 작은 불단을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부처님 앞에서 홀로 예불을 올리고 불경도 독송하고 참선도 합니다. 저는 대승불교에 대해 좀 더 넓고 깊게 배우고 싶습니다. 제가 성급한 건지 모르지만 제 공부가 어서어서 어느 경지에 이르러 참된 불제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갈망합니다. 그리고 저를 이끌어 주실 스승님도 모시고 싶습니다. 금년 연말에 휴가를 얻어 다시 아시아 여행을 하려는데 서울에 가면 좋은 기회가 있겠지요?"

엘살바도르는 오랜 독재와 내란으로 사회 전반이 아직도 피폐하고 근면 순박한 사람들은 집단정신외상에 가까운 후유증에 시달린다. 광적인 독재와 인간사냥에 맞서 민중을 감싸 안던 오스카 로메로 신부님이 1992년 5월 미사 집전 중 살해를 당하여 세계인을 격분시킨 가톨릭의 나라다.

그리고 그 배경은 영화 '로메로'와 '살바도르'의 소재가 된다. 그곳 사람들은 병주고 약 주듯 독재의 근원이자 또 치유라는 양면성을 지닌 종교에 환멸을 느낀다. 이는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여러 나라들의 공통적인 현상이다. 마침내 그들은 불교를 통해 신앙적 대안을 모색한다. 착하고 멋지게 생긴 그를 떠올리며 답신을 보냈다.

"먼저 외무부에 취직된 걸 축하드립니다. 루벤 도반님의 맑고 고운 불심이 여기까지 전해져 옵니다. 불서를 비롯해 수행정진에 필요하신 건 알려주세요. 우선 제가 스페인어로 녹음한 <반야심경>을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루벤 도반님께 한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군요. 불교는 학문보다는 깨우침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서두르지 마세요. 어서어서 보다는 천천히 꾸준히 정진하세요. 불가에는 지름길이 없답니다."

그러자 그에게서 곧장 답신이 왔다. "와, 이렇게 빨리 연락을 주시다니요! 게다가 수행하는데 도움까지 주시겠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서울에 가면 외국인을 위한 불교프로그램에 꼭 참여하고 싶어요. 스님, 서두르지 말라는 충고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지난 29년 동안 불법의 지혜를 모르고 진흙탕 같은 현실과 미망 속을 헤매왔어요. 그런 제가 어떻게 천천히 할 수 있겠어요?" 하긴 그 또한 옳은 말이다.

도전은 청춘의 특권이자 의무다. 루벤 도반의 싱그러운 불심이 마치 진흙탕 속에 갓 피어난 연꽃송이와도 같다. 그 고운 향기 널리널리 펼쳐지길 바란다.

성휴 스님

생활영어로 읽는 불교

"Haha, maybe, to save it is my nature"

"하하, 글쎄요, 남을 구해주는 건 소승의 본성인가 보오"



Two monks were washing their bowls by the brook when they saw a scorpion drowning. One monk immediately scooped it up and set it upon the bank. while doing so, he was stung. He went back to washing his bowl and again the scorpion fell in. The monk saved the scorpion and was again stung. Much worried, the other monk him, "Why do you save the scorpion over again when you know it's nature is to sting?" "Haha, maybe," the monk smiled, "to save it is my nature."

두 스님이 개울가에서 바리때를 헹구는데 전갈 한 마리가 물속에서 허우적댔다. 그러자 한 스님이 얼른 건져내서 물가로 옮겨주다가 전갈에 쏘이고 말았다. 다시 바리때를 헹구는데 그 전갈이 또 물에 빠져 허우적댔다. 그걸 또 구해주던 스님은 또다시 전갈에 쏘이자 곁에 있던 스님이 걱정스레 물었다. "왜 그 녀석을 거푸 구해 주시오? 남을 쏘는 게 전갈의 본성인데 말이오." "하하, 글쎄요, 남을 구해주는 건 소승의 본성인가 보오."

번안:성휴 스님, 그림:이태수

"전통·현대교육 모두 필요"

달라이 라마 뉴욕서 법문

달라이 라마는 모든 이들이 각자 고유의 전통과 문화를 유지하되 항상 외부 개방적이라야 한다고 말했다. "21세기의 불자는 전통가치관과 현대교육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금년 73세인 그는 7월 18일 6000여 명이 모인 뉴욕의 라디오시티 뮤직홀에서 사성제를 주제로 한 법문을 통해 이와 같이 말했다.

"중생은 육체적 쇠락은 피할 수 없으나 심성을 다스려 성불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심성은 종교지도자의 축복이 아니라 나 자신의 의지에 따라 추슬러지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히말라야 산악지역 불자들의 순수한 불심을 치하하고 특히 돌포, 셰르파, 무스탕 등 여러 부족들의 불자연합인 '히말라야 불자협회'의 종교 문화적 연대와 상호협력을 기원했다. 출처: PY, BCT

심적 고통이 창작의 결실로

월드스타 불심도 스타 | 앨리스 워커 ❸

앨리스 워커는 1944년 미국 조지아 주의 이턴튼에서 소작농의 8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대개 그렇듯 그녀 역시 아프리카 흑인, 체로키 인디언,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백인의 피가 뒤섞인 다중혼혈이다.

본디 활달한 천성의 그녀는 어릴 때 오빠와 카우보이·인디언 놀이를 하다 장난감 총에 맞아 오른쪽 눈을 거의 실명하면서 폐쇄적으로 바뀐다. 그러나 다른 한편, 홀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진 그녀는 일상사에 직접 끼어들기보다는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객관의 시각을 지니게 된다. 게다가 시와 단편을 쓰게 되면서부터는 자신도 모르게 작가 수업에 들어간다. 그렇듯 거의 은둔생활을 하면서도 그녀는 고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애틀랜타에 있는 스펠만대학에 진학한다. 그녀가 고향을 떠날 때 흑인 이웃들은 차비로 75달러를 모아주고 어머니는 세 가지 선물을 마련해 준다. 그 가운데 가방은 어느 곳이든 훌쩍 떠나는 자유의지를 뜻하고, 타자기는 무슨 생각과 뜻이든 맘껏 펼쳐가는 창의력, 그리고 재봉틀은 언제 어디서든 자립심을 지니라는 어머니의 간절한 기대와 염원이 담겨 있었다. 시대가 사람을 만드는가? 아니면 사람이 시대를 만드는가?

사라 로렌스대학 첫 흑인 여대생
인공유산 고통 겪고 첫 작품 출간

하나마나한 이 아둔한 질문의 틈새에 한 가지 분명한 게 있다. 즉, 사람마다 주어진 조건과 환경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점이다. 이를 팔자소관이라 하든 카르마라 부르든 사람은 당면한 시대의 산물일 수밖에 없다. 앨리스 워커의 인생 여로 또한 조건과 환경에 따라 크게 또는 작게 방향이 바뀐다. 그녀는 전액 장학생으로 대학을 다닌다. 그리고 당시 은사인 하워드 진 교수의 영향으로 민권운동가로서 첫발을 내딛는다. 이론보다 행동이 앞선 그녀는 1962년 마틴 루터 킹의 자택에 초대가 될 만치 열성적이다. 또 그녀의 활동영역은 흑인유권자 등록캠페인, 사회복지 및 아동 프로그램 등 다방면이다. 그녀는 같은 해 핀란드에서 개최된 세계청소년평화축제에 초청을 받아 어머니가 주신 가방을 들고 유럽으로 떠난다. 어머니의 염원대로 그녀는 자유의지를 지니고 세계인들과 만남에 처음 나선 것이다. 이듬해 8월 전국 각지에서 민권운동 지지자 20여만 명이 모여든 워싱턴의 대군중집회에 참석한 그녀는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라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명연설에 전율적인 감동을 받는다.

하지만 스펠만대학의 은사들은 그녀의 문학적 천재성이 자칫 정치사회 운동에 낭비될 바를 우려하며, 그녀 역시 그들의 조언을 따르기로 한다. 이윽고 그녀는 사라 로렌스대학으로 전학하여 장학금으로 공부를 계속한다. 진보성향임에도 고작 몇 명의 흑인 남학생밖에 없던 그 대학이 흑인 여학생을 받아들인 건 매우 예외적이었다. 재학 중 시인 뮤리엘 루키서와 작가 제인 쿠퍼 등에 심취하며 필재를 다듬던 그녀는 다시 유럽과 아프리카로 여행을 떠난다. 그러나 귀국 후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그녀는 사흘 밤 동안 면도날을 베개 밑에 넣고 자는 등 극심한 자살충동에 시달린다. 그리고 그 괴로움에서 헤어나고자 미친 듯 창작에 매달린다. 훗날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글쓰기를 통해 모든 삿되고 그릇된 업을 떨쳐내고 싶었다."

그 후 몇 주 동안은 그녀의 일생에 큰 전환점이 된다. 그녀는 친구의 도움을 받아 인공유산을 한다. 그리고 그 심적 갈등과 고통은 고스란히 창작의 결실로 맺어진다. 고귀한 한 생명의 희생에 뒤이어 새 생명으로 피어난 그녀의 첫 작품은 이듬해 출간된다. <죽음과 더불어 지옥으로>라는 제목 자체가 당시 그녀의 심정을 고스란히 드러내 보인다. 예순을 훌쩍 넘긴 지금껏 그 괴로움을 안고 사는 그녀의 독백이다.

"그래요, 난 엄마가 문제투성이란 걸 잘 알아요. 게다가 감추려 하지도 않으세요. 바로 그게 엄마가 제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죠." 이게 앨리스 워커가 자기 어머니를 두고 하는 말일까? 아니면 잠시 그녀의 몸 안에 머물었던 태아가 그녀에게 하는 말일까?

성휴 스님

覺性 스님「註心賦」 강설대법회
– 마음을 노래하다 –
대한불교 조계종 제14교구 본사 梵魚寺에서는 해제철 정진기간을 맞이하여 원조 각성(圓照 覺性)스님을 법사로 모시고『註心賦』강설법회를 갖습니다.
『註心賦』는 중국 宋나라 영명 연수선사의 저술로 禪家에서 널리 알려진 마음을 노래한 글로서『宗鏡錄』100권을 압축 요약한 명문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강설을 하실 각성 스님은 탄허 대종사의 전법제자로 유·불·선 삼교에 통달하신 이 시대 최고의 대법사이십니다.
이번『註心賦』강설법회는 여태껏 접하지 못한 회유의 법석으로 사부대중의 안목을 드높일 기회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두루 동참하시어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불기 2552(2008)년 8월 17일(음력 7월 17일)부터 일주일 간 매일 오후 2시 ~ 5시(3시간)
• 장 소 : 범어사 침계루 • 대 상 : 사부대중(선착순 100명)
• 수강료 : 5만원(교재비 포함)
• 문의처 : 범어사 종무소 (051)508-3122~7
범어사 원주실 (051)508-3636
대한불교 조계종 第14教區 本寺 禪刹大本山 梵魚寺 주지 正如 합장

스님! 빙의로 고통 받는 중생을 구해 주세요
전생, 빙의, 자기 최면, 치료최면
(최면 시술사 과정)
• 교육일 : 8월 12일 화요일반 • 교육시간 : 오후 1시
▶ 교육 기간 : 6주(24시간) ▶ 모집 인원 : 선착순 10명 ▶ 교육 비용 : 60만원 ▶ 대상 : 스님, 포교사, 불자
특기사항
1. 10명의 소수 정예 엘리트 교육
2. 6주 24시간의 최단기 집중 현장 교육
3. 상상할 수 없는 최소의 교육 훈련비
4. 개인 교습식의 일대일 교육, 책임 교육
5. 현장에서 바로 활용 할 수 있는 실전 교육
6. 새로 개발된 테크닉 수시로 전수하는 평생 교육
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유일한 곳
수행과 포교 또 중생 구제에 바쁜 스님들께 귀의 합니다.
소승은 스님들께서 시간에 쫓기시고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스님들의 사정을 너무 잘 알기에 모든 거품을 빼고 최단기, 최소 교육비로 보시 하고자 합니다.
소승은 자리이타의 정신과 회향하는 마음으로 본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마하 반야 바라밀 – 무초 정락 합장 –
(사) 유마 정신 건강 최면 연구소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1번출구 애경백화점 맞은편 세일빌딩 401호 ☎ 02) 763-0661~2
★ 최면을 배우시고도 시술을 못하시는 분, 자기최면이 안되는 분 개인지도 ★

보물 31·시도유형 57 등 100건 지정

올 상반기 문화재 지정 얼마나?

국보 1호 숭례문 소실 이후 문화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겁다. 문화재 보호와 활용은 문화재청 등 관련기관의 문화재 지정에서 시작된다.

2008년 상반기 동안 지정된 문화재는 보물 31건, 시도유형문화재 57건, 문화재자료 11건, 사적 1건 등이다.

보물은 건조물 · 전적 · 서적 · 고문서 · 회화 등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상반기 동안 순천선암사33조사도(보물 제1544호), 구례화엄사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보물 제1548호) 등 31건의 보물이 지정됐다.

시도유형문화재는 시 · 도지사가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시 · 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다. 시도유형문화재 57건 중 경국사팔상도(제262호) 등 서울시지정유형문화재가 33건으로 가장 많다. 표충사아미타삼존탱(제466호) 등 경남도 유형문화재가 12건, 부산은 장안사대웅전석가영산회상도(제87호) 등 6건, 전남도가 장성백양사극락전아미타회상도(제291호) 등 4건, 강원도가 원주고판화박물관소장안심사판제진언집(제151호) 등 4건을 지정했다.

서울시 지정 유형문화재 33건 중 지역구별 지정건수는 종로구가 지장암목비로자나불좌상복장전적류(제269호) 등 10건, 중구가 감지은니범망경보살계및보살계의(제268호) 등 4건, 성북구가 경국사팔상도(제262호) 등 5건, 강북구가 도선사출토동종및일괄유물(제259호) 등 7건, 서초구가 묘법연화경권2(제253호) 등 7건이다.

문화재자료는 호국사목조아미타여래좌상(전남 제267호), 원주고판화박물관소장만연사중간진언집(강원 제146호) 등 11건이 지정됐다.

사적 지정은 법광사지(사적 제493호) 1건이 있다.

불교문화재 지정 뒤에는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범하) 역할이 컸다. 3월 11일 지정된 '나주 심향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보물 제1544호) 등 15건은 불교문화재연구소가 문화재청과 함께 2005년 전남 · 충북지역 사찰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결과 새롭게 발견된 유물과 재평가된 유물이었다. '불교문화재 일제조사'는 전국 사찰에 있는 불교문화재를 2002년부터 10년간 실사하는 계획이다.


문화재청이 3월 11일 보물지정한 구례 천운사 금동불감(보물 제1546호).

불교문화재연구소 박상준 팀장은 "불교문화재 일제조사에서 발견되는 중요문화재에 대해 문화재청과 협의해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계종은 문화재 관련 행정업무는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가, 전시 및 관리, 홍보는 불교중앙박물관이, 문화재 발굴조사와 연구, 보존은 불교문화재연구소가 담당하는 불교문화재 관리 클러스터를 갖추고 성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종 목	명 칭	소 재 지
보물제1147-2호	묘법연화경권제1~2	충남예산군
보물제1219-2호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권상2-2,권하3-1·권하3-2	경기성남시
보물 제1542호	요계관방지도	서울관악구 규장각
보물 제1543호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권제9~10	충남예산군
보물 제1544호	나주심향사건칠아미타여래좌상	전남나주시
보물 제1545호	나주불회사건칠비로자나불좌상	전남나주시
보물 제1546호	구례천은사금동불감	전남구례군
보물 제1547호	해남대흥사금동관음보살좌상	전남해남군
보물 제1548호	구례화엄사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전남구례군
보물 제1549호	순천송광사목조석가여래삼존상및소조16나한상일괄	전남순천시
보물 제1550호	여수흥국사목조석가여래삼존상	전남여수시
보물 제1551호	진천영수사영산회괘불탱	충북진천군
보물 제1552호	해남대흥사영산회괘불탱	전남해남군
보물 제1553호	순천선암사서부도암감로왕도	전남순천시
보물 제1554호	순천선암사33조사도	전남순천시
보물 제1555호	담양용흥사순치원년명 동종	전남담양군
보물 제1556호	여수흥국사강희4년명동종	전남여수시
보물 제1557호	고흥능가사강희37년명동종	전남고흥군
보물 제1558호	순천선암사강희39년명동종	전남순천시
보물 제1559호	감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	경기성남시
보물 제1560호	도성도	서울관악구 규장각
보물 제1561호	순천선암사순치14년명동종	전남순천시
보물 제1562호	영주부석사오불회괘불탱	경북영주시
보물 제1563호	대구동화사대웅전	대구동구
보물 제1564호	이순신선무공신교서	충남아산시
보물 제1565호	부여무량사소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충남부여군
보물 제1566호	여수흥국사목조지장보살삼존상·시왕상일괄및복장유물	전남여수시
보물 제1567호	지장보살본원경	경기성남시
보물 제1568호	상주양진당	경북상주시
보물 제1569호	돈암서원응도당	충남논산시
보물 제1570호	청송대전사보광전	경북청송군

2008 문광부 우수학술도서 발표

혜원 스님 <북종선> 등 교계 10여종 포함

학술출판 활동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광부)가 실시한 '2008 우수학술도서'에 불교학술도서 5종과 동국대 전 · 현직 교수 저서 7종이 선정됐다.

문광부는 7월 17일 ▲총류(8종) ▲철학(21종) ▲종교(11종) ▲사회과학(144종) 등 10개 분야 405종을 '2008년 우수학술도서로 선정 · 발표했다.

불교학술도서는 혜원 스님(동국대)의 <북종선>(운주사 刊), 故 장충식 교수(동국대)의 <한국사경연구>(동국대 출판부 刊), 김광식 교수(부천대)의 <민족불교의 이상과 현실>(도피안사 刊), 제선 스님의 <뇌허의 불교사상 연구>(민족사 刊), 서영애 연구원(동아대 석당전통문화연구원)의 <신라 원효의 금강삼매경론연구>(민족사 刊), 김재경 교수(경일대)의 <신라 토착신앙과 불교의 융합사상사 연구>(민족사 刊) 등 6종이 선정됐다.

동국대 출판부 혹은 동국대 교수들이 외부에서 출간한 도서는 김태준 명예교수(국어국문과)가 공저한 <'고향'의 창조와 재발견>, 한명희 명예교수(교육학과) 공저 <종교성, 미래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남근우 교수(교양교육원)의 <조선민속학과 식민주의> 등 7종이 선정됐다.

동국대 출판부 관계자는 "대학출판부로는 두 번째로 많은 3종의 발행도서가 선정되고, 교수 4명의 출간도서가 우수도서로 지정돼 종립대학 학술출판 활성화 대책의 가시적 효과를 거두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출판사업 활성을 위한 다양한 기획들을 탄력적으로 추진할 것"이라 말했다.

우수학술도서 선정사업은 열악한 학술출판 환경 개선과 학술출판 활성화를 위해 1996년부터 문광부가 추진 중인 사업이다.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된 책은 문광부가 일정량 구입해 전국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조동섭기자

익산 미륵사지서 석인상 발견

해체보수공사 중 석축내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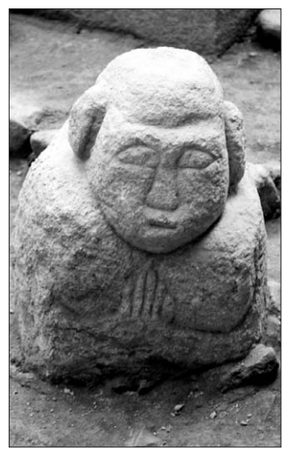
보수 공사가 한창인 익산 미륵사지석탑(국보 제11호)에서 석인상 1기가 발견됐다.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봉건, 이하 연구소)는 7월 29일 "석탑 1층부를 해체하던 중 석축에 가려졌던 석탑 남 · 서 측면 및 기단부가 노출됐고, 석축 내부에서 석인상 1기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노출된 1층 남 · 서측면은 옥개석을 비롯한 탑신부 대부분이 보존돼 있고 기단은 기존 동측면과 동일한 상 · 하 이중기단이 유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일부 부재는 파손 및 변위된 모습이며 부재간 이격이 심해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고 말했다.

발견된 석인상 1기는 두상과 몸체가 거의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크기는 폭 595mm, 높이 920mm 규모다.

관계자는 "석인상의 형태 및 위치로 볼 때 석탑 건립 이후 사방에서 석탑을 수호하는 수호신상으로 조성된 것"으로 추정했다. 미륵사지석탑 석인상은 1층 기단 주위에 3기가 노출돼 있었지만 풍화 및 훼손이 심해 정확한 제작시기 및 양식을 밝히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익산 미륵사지 석축 내부에서 출토된 석인상.

이외에도 석축 내부에서 1층 기둥과 같은 주요 구조부위에 긴 석재를 사용해 보강한 사실이 확인됐고 팔각당간석, 동탑 부재, 건물지 초석 등이 다수 발견됐다.

조동섭기자

녹유전편 3D로 살아나

국립경주문화재硏, 사천왕사지 출토편 복원

통일신라 사찰 가람을 처음 이뤘던 사천왕사지에서 출토돼 섬세한 조각과 생동감 넘치는 표현으로 주목 끌던 녹유전편이 3D 기술로 복원됐다.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지병목, 이하 연구소)는 "통일신라 호국사찰인 경주 사천왕사지(四天王寺址)에서 출토된 녹유전(綠釉塼)에 대해 최첨단 3D 스캔 장비를 이용한 정밀 실측조사를 통해 관련정보를 획득했다"고 7월 28일 발표했다.

사천왕사는 통일신라 초기인 문무왕 19년(679년) 창건된 쌍탑식 가람으로 2기의 목탑을 배치한 통일신라 초기 사찰이다.

연구소는 1930년대 사천왕사지에서 수습해 현재 국립경주박물관에 소장된 관련 편들과 서목탑지에서 확인한 A상과 C상(강우방 교수 분류에 의함)을 3차원 영상촬영을 시도해 도상으로 복원했다.

지금까지 연구된 사천왕사지 출토 녹유전은 3종류 도상이라는 것만 밝혀졌을 뿐, 대부분 파편형태로 도상의 형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

녹유전 A상은 주상(主像)이 둥근 천정을 이룬 감실(龕室)에 무릎 꿇은 좌우 악귀(惡鬼)를 올라타고 왼손에는 긴 칼을 들고 우측면을 비스듬히 응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연구소 관계자는 "사천왕사지 출토 녹유전의 3차원 스캐닝작업을 통해, 접합가능한 잔편의 가상 접합 및 도상복원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녹유전의 틀(范)을 추정해 틀과 조상의 차이 등 고고미술사적 관점에서의 연구를 진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녹유전 복원 결과물을 이용한 복제품 제작이 가능해져 문화재 전시와 학습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주사천왕사지 출토 녹유전에 대한 3D 스캐닝 작업과정 등은 <경연고고> 제17호에 소개됐다.

조동섭 기자


3D로 복원한 녹유전 A상.

혜공스님의 영산의식 시리즈 비디오, DVD출시

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학장이신 혜공 스님께서 불교의식을 비디오와 컴퓨터 등에서 볼 수 있는 DVD를 따라하기 쉽게 학습용으로 촬영, 아래와 같이 제작출시 하였기에 필요한 제품이 있으면 주문바랍니다.

▷ 아 래 ◁

1	대령/관욕	17	지장불공	33	아침저녁종성
2	상주권공 지장불교의식	18	삼대화상중명불공	34	향수해례예불
3	상용영반	19	종사관욕	35	혼자서 하는 민관욕(간단한 관욕)
4	회심곡(화청)1	20	종사영반	36	생일불공
5	회심곡(화청)2	21	가사불사의식	37	상주권공48제의식 1
6	구병시식	22	신중작법39위	38	상주권공48제의식 2
7	관음시식	23	간단한 신중작업	39	상주권공48제의식 3
8	점안의식	24	전통조석예불	40	상주권공48제의식 4
9	방생의식	25	천수경/장엄염불	41	제사불공
10	사물 다루는 법	26	상주권공/각배/영산염불	42	삼신이운
11	안택	27	사시상단불공	43	혼자서 하는 간단한 49제의식 1
12	시다림	28	작법무(복청게천수)	44	혼자서 하는 간단한 49제의식 2
13	산신불공	29	작법무(시방찬소리도량게)	45	화엄시식
14	미타불공	30	작법무(욕건만다라선송다게작법)	46	약사여래불공
15	신중불공	31	작법무(향수나열사다라니)	47	교재2권 100,000원
16	관음불공	32	삼보통청		

제11기 의식대학 교육생을 모집하며, 범패 하계특별교육을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3박 4일간 실시합니다. 많은 동참바랍니다.

◆ 비디오 각 25,000원 / DVD 각 30,000원 ◆ 계좌 : 농협 641010-56-000296 (노연숙) ◆ **제품 구입처 : 종무소 ☎ 062)362-8604 / 혜공스님 011-624-8604**

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학장 **혜공** 스님

진정한 은사님처럼 기소와 범패신동의식 교육을 잘 섞어 주는 교육 장소

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수강생 및 통신생 모집

◆지원자격 : 스님, 포교사 ,교임법사, 각 종단을 초월하여 절을 이어갈 후계자 (유발자도 가능)
◆과 목 : 범패 상주권공의식, 각배의식, 교양과목
- 안채비 : 각종불공의식, 49재의식, 천도재, 신중작법의식,각종소, 낭독하는법
- 겉채비 : 바라춤,도량게작법, 다게작법(나비춤), 사물다루는법, 화청(회심곡)

◆과 정 : 2년(4학기)
◆입 제 식 : 2008년 8월 19일 화요일 오후 3시
◆통신생 출석교육 :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3시부터 ~ 다음 일요일 12시까지
◆상좌 각배교육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1학년
매주 월요일 오후3시 ~ 5시30분까지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2동 759-14(우 502-242)
◆학 장 : 혜공스님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계좌번호 : 농 협 641010-56-000296 (예금주:노연숙)

한국불교의식대학 범패교육기간

〔2008년 8월 19일 ~ 8월 22일 3박 4일〕

• 교육시간 : **오전 9시부터 ~ 오후 6시까지(오전시간 : 강의, 오후시간 : 실기교육위주)**
- 8월 19일 오후 2시 : 입회식 후 시련절차 실기, 대령관욕 보소청진언, 화청(회심곡), 원아계교육
저녁시간 : 사물 다루는 법 - 북, 태령, 목탁, 요령
- 8월 20일 8시 30분 : 점안의식, 가사이운식(짓소리녹음), 화청(회심곡), 낙성식하는 법, 법종불사 의식하는 법
- 8월 21일 8시 30분 : 상주권공, 지장불공, 관음시식, 상용영반, 상축하는법, 창흥의식하는 법, 부도 제막식하는 법, 삼재기도하는 법
- 8월 22일 8시 30분 : 용왕불공 및 방생의식법, 소창불, 39위 신중작법, 종사영반 종사관욕, 큰불사시 관음에 법하는법

• 준 비 물 : **가사장삼, 필기도구 일반불자 - 평상시 복장, 필기도구, 소형녹음기**



김태룡(삼화한양식품 대표이사)

"부처님 가르침대로만 하면 성공하죠"





녹차를 비롯해 한방차, 유자차, 생강차 등 여러 가지 전통차와 생수(生水)를 생산하는 삼화한양식품 김태룡 대표이사. 사업을 시작한지 40여년이 흘렀고, 2005년에는 수출 300만불 탑을, 2007년 500만불 수출탑을 수상한 바 있는 탄탄한 중소기업으로 우뚝 서기까지의 이야기는 한 편의 대하소설이다.

"매출에 대한 욕심을 내다보면 탈이 생기게 마련이라 생각하기에 크게 욕심을 부려본 일이 없습니다. 그냥 내 형편에 맞게 사업을 꾸려온 것이지요. 큰 욕심을 내지 않았기 때문인지 시련이나 좌절은 없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직한 경영'입니다."

삼화한양식품은 1970년 설립돼 오직 우리 전통차를 생산하고 개발하는 것에 전심전력하여 40여년 외길을 걸어왔다. 이제는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20여국에 수출하는 세계적인 기업이 됐다. 논산에 제1공장과 최첨단 시설을 갖춘 제2공장이 있다. 김태룡 대표는 "분에 넘치게 사업을 확장하지 않는 것이 순탄한 길을 걸어온 비결"이라고 말했다.

"사업이라는 것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남을 속인다는 것은 큰 죄악이지요. 사업이 어렵다고 해서 한 번 남을 속이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사업에 있어서는 정직한 것이 생명이라고 믿어요."

김 대표의 집무실 벽 한 면을 차지하고 있는 각종 상패와 감사패가 눈에 들어온다. 일일이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그중에서도 2006년 국세청장 표창, 2003년 국세청장 표창, 2001년 모범 납세자 표창 등을 받은 것만 보아도 그의 '정직한 경영' 철학을 짐작할 수 있다.

삼화한양식품의 자매회사인 산수(山水)음료는 88올림픽 때 생수 공급업체로 지정됐는가 하면, 2000년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때 유일하게 물 공급업체로 지정됐다. 이러한 밑바탕에는 최고의 물을 만들고자 하는 김 대표의 경영이념과 함께 자신이 생산한 물을 마시는 모든 이들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그의 발원이 담겨 있기 때문이리라.

매일 예불로 일과 시작, '법화경' 사경도 꾸준
사찰 지하수 개발 봉사 … 전통차 생산 독보적

수해(水害)가 난 곳에 제일 먼저 달려가 생수를 전달하는 것 또한 김 대표의 일이다. 수해나 태풍 등 재난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면 밤새 생수라인을 가동해 수해지역으로 달려가는 것 또한 김 대표가 하는 일 중 한가지이다.

동국대 불교대학원 CEO과정 총동창회의 봉사모임 보현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 대표는 2006년부터 지하수 관정개발 봉사를 주도하고 있다. 남양주 불암사와 양양 낙산사를 비롯해 곡성 태안사, 아산 옥련암, 김천 청암사, 서울 봉덕사, 곡성 관음사 등 사찰 12곳에 지하수 관정(管井)을 기증해 세인의 눈길을 모았던 그 일도 김 대표의 노력으로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김 대표가 사찰들의 식수사정이 여의치 않음을 알고 발의한 것이다. "사찰에서 식수개발을 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을 알게 됐어요. 우물개발업자의 무리한 시공과 불량 자재를 사용하는 등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안타까워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하수 개발공사비는 적게는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소용되는 큰 불사다. 그러다 보니 재정이 어려운 사찰에서는 식수난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이다.

김 대표는 "산수음료 지하수개발팀의 축적된 노하우가 있기에 사찰에 무료로 지하수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식수와 생활용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찰들이 많이 신청해주면 좋겠다고 한다.

"부처님께 깨끗한 물을 올리는 것이 불자의 도리가 아닐까요? 그리고 수행하시는 스님들도 좋은 물을 마시고 건강해야 수행에 더욱 매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 절을 다니긴 했지만, 10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불교에 입문하여 공부하고 있다. 김 대표는 출근해서 제일 먼저 아침예불부터 올린다. <천수경>을 시작으로 '화엄경약찬게' '사대주' '광명진언' <반야심경> 등을 독송하는 것으로 아침예불을 올린다. 물론 아침예불 때 108배 또한 빠뜨리지 않는다. 김 대표는 출장을 가서도 예불을 거르지 않는다.

108배를 할 때는 "진정한 불자로서 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는 발원을 한다. 부처님 정신으로 사업을 하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생활하고 있는 김 대표는 이렇게 날마다 자신을 점검하고 다스려나가는 것이다.

6년 전부터 지인의 권유로 <법화경>과 <금강경> 등을 사경했다. <법화경>을 사경하면 전생의 업장이 소멸되고 식이 맑아진다는 말을 듣고 시작했는데, 지금은 <법화경> 사경이 수행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처음에는 한문으로 사경하다 보니 8개월이 걸렸다. 이렇게 시작한 <법화경> 사경만도 12번을 넘게 해 사경한 노트 분량도 40권이 훨씬 넘는다. 그는 <법화경>이 너무 좋아 여러 사람이 읽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사무실에 수십 권의 법화경을 사다놓고서는 인연 닿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준다.

매출액이 500만 불이 넘는 큰 회사를 꾸려가기도 바쁠 텐데 사경하는 것이 힘들지 않느냐고 물었다.

"사경하는 것이 숨 쉬고 밥 먹는 것처럼 거의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더이상 할 정도입니다. 경전을 앞에 두고 한자 한자 써내려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안정되면서 경전에 몰입하게 됩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수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 대표는 앞으로 경전공부에 매진하는 일과 수행의 한 방편으로 사회봉사를 하고 싶단다. 환경이 열악한 사찰에 지하수개발을 해주는 것 또한 김 대표가 앞으로 해야 할 사회봉사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다.

김 대표는 회사 경영과 생활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구현함으로서 사람들에게 법문 아닌 법문을 하고 있다. 온화한 열정으로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려는 그의 의지가 느껴진다.

글·사진=문윤정(수필가·본지 논설위원)



구덕청소년수련관 내원정사서 위탁운영

8월 1일 개관식, 청소년 인재불사의 요람으로

부산불교 포교와 복지, 교육 불사에 앞장서온 내원정사(주지 정련)의 11번째 산하 복지 및 교육시설 구덕청소년수련관(관장 신해기)이 8월 1일 개관식을 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구덕청소년수련관은 부산광역시 서구청에서 운영해오다가 7월 1일 청소년전문법인인 재단법인 내원청소년단이 위탁운영자로 선정됐다.

오후 2시부터 구덕 청소년수련관 3층 다목적 홀에서 열린 개관식의 1부 식전 행사에서는 '방과 후 아카데미' 5학년 교육생들의 모둠북 공연과 '태권도 동아리'의 태권도 시범공연이 펼쳐졌다. 이어 2부 개관식은 지역 국회의원과 박극제 서구청장 및 여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식이 끝난 후 새로워진 구덕청소년수련관을 함께 둘러보며 향후 운영방안을 듣는 시간도 마련됐다.

2005년 6월 준공된 수련관은 총 부지 약 1만5390㎡(4675.47평), 연면적 약 3300㎡(1014.47평)으로 본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별관은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다. 대·소규모 강당을 비롯해 세미나실, 강의실 야영장, 식당 등 다목적 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수련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7월 8일 취임한 신해기 신임 관장은 "우리 구덕청소년수련관은 미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의 심신을 단련시키고 꿈과 희망을 키워주는 새로운 장이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재단법인 내원청소년단은 숲길, 저수지, 수목원, 야생화 단지에 인접한 구덕청소년수련관의 환경을 최대한 활용해 템플스테이 등 질 높은 불교문화 및 생태 체험 등 청소년 인재불사의 요람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내원정사의 11번째 산하 복지시설이 된 구덕청소년수련관 전경.

내원정사는 1996년 11월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을 시작으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반야원, 마하재활병원, 부산서구시니어클럽, 사하자활후견기관, 내원어린이집 등 10곳의 사회복지시설을 맡고 있다. 특히 1999년 수탁한 함지골청소년수련관과 중구청소년문화의 집 등으로 약 10여 년째 청소년 복지, 교육 불사 분야에서 신망 있는 사회복지법인 (사)내원을 운영 중이다.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미륵종 '시방세계' 창간호 발행

불교계 소식·법문 매월 게재



사단법인 한국불교미륵종은 종단의 숙원사업인 종단소식지 <시방세계> 창간호를 8월 1일 발행했다.

매월 1일 발행될 <시방세계>는 종단소속 승려들의 소속감을 고취하고자 제작되는 소식지로 각 말사 불사소식 및 총무원소식도 게재할 계획이다.

또한 불교계소식과 더불어 불자들이 불교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종단 원로스님들의 법문을 담은 글이 매월 게재된다.

창간호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총화종 총무원장 남정 스님의 창간 축하 글도 함께 실렸다.

<시방세계> 발행인 송정 스님(총무원장)은 "3년 전부터 종단소식지를 만들자는 원로스님들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있었지만 군소종단으로써 제작비와 편집을 전담할 스님 선정에 어려움이 많아 창간을 미루어 왔다"며 "올해 중앙종회의장으로 취임한 운제 스님의 주도로 창간호를 발행해 종단발전에 큰 획을 긋게 돼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시방세계>는 표지포함 40페이지(컬러12페이지 포함)로 매월 1만부를 제작해 각 말사 및 신도들에게 배포된다.

영민 경남서부지사장

'주경야선' …벽송사의 여름은 정진 또 정진

〈晝耕夜禪〉

선교겸수 전통 되살린 '벽송선회' 마련

간화선과 교학이 어우러진 선교겸수의 장이 될 '벽송선회'가 9월 6일부터 27일까지 함양 지리산 벽송사(주지 월암)에서 열린다.

11일에 걸쳐 열리는 이번 선회는 아침과 저녁 4시간씩 선실참이, 오후에는 교학 강의가 이어진다. 선주 월암 스님을 비롯해 고우 스님, 설정 스님, 종진 스님, 무비 스님, 법산 스님, 혜국 스님, 지환 스님, 설우 스님, 영진 스님, 수불 스님, 월암 스님 등이 선교사로 나서 <대승경전> <선사상> <선어록> <선종사> <선교론>을 강의하게 된다.

월암 스님은 "벽송사는 조선시대 벽송지엄 선사가 창건한 이후 부용영관, 청허휴정, 송운사명 등 한국불교 선맥의 정통조사들이 행화한 선교겸수의 근본도량"이라며 "선교겸수의 전통을 계승하고자 마련한 실참과 선학을 겸수하는 선회를 여니 많은 신심납자들이 함께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선회를 계기로 부처님의 마음과 부처님의 말씀을 접합해 미래 한국 선불교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게 될 전망이다.

방부 신청은 8월 3일에서 4일까지 양일간 전화를 통해 접수하면 되고 방부 통보는 8월 5일 개별 통보된다.

이때 입방자는 8월 17일 오후 1시 벽송사에서 입방원서를 작성하면 된다. 단 비구, 비구니스님만 가능하다. (055)965-5661

박지원 기자

홍법 스님 열반 30주기 '추모문집' 발간

밀양 석산사서 추모제 열고 헌정

운조당 홍법 스님 열반 30주기를 맞아 추모 문집이 발간됐다.

7월 29일 오전 10시 양산 통도사(주지 정우) 설법전에서 홍법 스님의 열반 30주기 추모제를 열고 추모집을 헌정했다.

홍법 스님은 1958년 통도사 교무를 거쳐 종회의원, 강원 강주, 주지 등을 역임하고 1978년 음력 6월 27일 입적했다.

홍법문도회(대표 정우)가 발간한 이번 <홍법선사 추모문집>에는 자비보살로 자애롭고 후학에 귀감이 되는 삶을 살다간 선승의 주옥같은 가르침이 가득하다.

총 390페이지 4부로 구성된 문집에는 1부 스님의 생전 사진 80여 점, 2부 화엄법회 법문, 3부 월하 스님과 일타 스님과 주고받은 편지글, 4부 추모글 모음이 수록돼 있다.

문도회 대표 정우 스님은 추모문집 발간에 부쳐 "나의 은사스님이시기도 한 홍법 스님은 많은 스님들과 사부대중에게 존경받던 스승님이셨지만 남아있는 자료가 많이 부족했다"며 "여러 스님들께 들은 증언을 바탕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교계 언론사들을 통해 자료를 공모했다"고 밝혔다.

박지원 기자

현대불교 부산지사 광고·구독
문의 (051)632-0064

불국토를 찾아서
(사)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

"여름방학 신나는 봉사활동 함께해요"

"참회와 나눔의 아름다움을 몸소 실천하며 가치 있는 삶을 배우겠습니다!"

부산지역 중·고교생 1500명의 힘찬 합성과 함께 '2008 여름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문이 활짝 열렸다.

부산광역시교육청 봉사활동 유관기관인 사단법인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이 주최하는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 올해로 10년째를 맞았다. 7월 28일 오후 2시 부산광역시청 1층 대강당에서 가진 출범식을 시작으로 31일까지 3일에 걸쳐 진행됐다.

199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이번 행사는 체험학습을 통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왔다. 이런 봉사활동을 통해 정규 교과학습에서 얻은 지식과 기술을 적용해보고, 타인과 더불어 사는 나눔의 소중함도 함께 배우게 된다.

28일 출범식에는 맑고 향기롭게 부산모임 박수관 회장과 부산시 안준태 행정부시장, 부산시교육청 설동근 교육감, 1500여 명의 청소년이 참석했다.

안준태 부산시행정부시장은 "태안반도 기름유출사고 때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절망의 바다를 희망의 바다로 만들었다"며 참가 학생 모두에게 뜻 깊은 봉사활동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학생 대표 우웅기(구덕고2)군과 박진달래(하남중2)양은 단상에 올라 어려운 이웃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갈 것을 굳게 다짐했다. 이어 지난해 여름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했던 박용진(연산중3)군은 해운대 해수욕장 정화활동의 느낀 점을 담은 체험수기를 발표했다.

29일부터 31일까지 부산시 전역에서 봉사활동이 이뤄졌다. 자연 정화 활동 팀들은 범어사 숲, 금강공원, 민주공원, 대천천, 해운대 해수욕장, 광안리 해수욕장, 온천천, 황령산 레포츠공원, 증산공원, 자성대, 동구 산지 등지에서 정화 활동뿐 아니라 자연체험 및 문화재 탐방, 생태환경 교육을 받았다.



더불어 사는 나눔의 소중함 알게 해

복지시설 방문 팀들은 평화노인요양원, 황전양로원, 정화노인요양원, 아름요양원, 청십자병원, 홀로 어르신댁, 부산점자도서관에서 청소와 식사보조, 어르신 수발과 말벗 되어드리기 등의 봉사활동을 했다.

31일 종료식은 모범자원봉사자 선정 시상과 프로그램 평가회로 진행됐다.

맑고 향기롭게 박수관 회장은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참가한 청소년들에게는 인성교육과 봉사, 협력 정신을 함양시켜주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많은 이웃에게는 따뜻한 용기와 부처님의 자비가 전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학 인 모 집

영남 범패불음원에서는 영남범패의 계승과 보존을 위하여 뜻을 같이 할 **제7기 신입생 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안 내

◆ 입교일시 : 2008년 8월 21일(목요일) 오후 3시
◆ 교육기관 : 6개월 과정
◆ 교육내용 : 일반불공의식 및 재의식
1. 각종 불공 및 재의식 2. 사물 다루는 법 3. 바라 및 승무작법
◆ 수강자격 : 삭발염의 한 출가 승려에 한 함
◆ 수 강 료 : 월 10만원(교재비 별도)
◆ 수 강 일 : 매주 월,목요일 오후 3시 ~ 6시까지
◆ 준 비 물 : 필기도구 및 녹음기
◆ 교육장소 : 경남 진주시 이현동 이현상가 406호 (서진주 I.C에서 5분거리)
◆ 카페안내 : Daum에서 영남범패불음원을 쳐보세요.
◆ 문의전화 : 055)747-8419 / 011-867-8419(원장 원명스님)

영 남 범 패 불 음 원

풍기 정품 홍삼

풍기 정품 홍삼액 골드.액기스.
레드파워(산삼배양근추출액 50ml×16병) 판매

풍기인삼은 이래서 좋습니다
· 약탕기에 끓여 재탕, 삼탕을 해도 물렁하게 풀어지지 않습니다.
· 같은 분량을 달여도 다른 인삼보다 농도가 훨씬 진합니다.
· 인삼을 넣어둔 방문만 열어도 향기가 짙게 납니다.
· 육질이 탄탄하여 중량이 무겁고 약효가 뛰어납니다.

유효사포닌(32종)의 성분들이 살아있는 최상의 건강식품 입니다

홍삼액골드 100ml×60포 (한달분)

농축액 (진액) 500g

• 판매처 054)634-3429
• 휴대폰 011-9373-3778
입금계좌 : 우체국 703884-02-048103(예금주 : 박영애)

삼을 직접재배, 가공하여 만들어진 양질의 홍삼만을 선별!!
스님,불자님께는 특혜드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드립니다

지역 독거노인 위한 삼계탕 공양

광주 무각사 신도회서 120여명 초청

육식을 금하는 사찰에서 복날 삼계탕을 끓여 화제다.

광주 무각사는 중복인 7월 29일 독거노인 120여명을 초청해 삼계탕을 대접했다. 무각사 신도회가 주최한 행사는 삼복 더위에도 살펴줄 자식이 없는 광주 상무동과 치평동 거주 독거노인들을 위해 실시됐다.

무료공양에 참석한 이난영 할머니(72)는 "사찰에서 삼계탕을 준다고 해서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며, "삼복더위에 노인들 건강까지 챙겨준 무각사 신도회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무각사 보현회 송하임 회장은 "사찰에서는 육식을 금하지만, 더위에 지친 어른들을 돕는 것이 대승의 큰 뜻이 아닐까 싶어 마련한 행사"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무료공양은 무각사 신도회가 매달 농수산물 나눔장터를 열어 얻은 수익금으로 준비하고, 반찬과 다과는 회원들이 직접 만들어 의미를 더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호남범음회, 전통 '호남재' 강습

익산 석불사서 열린 제6차 하계 수련회 통해



익산 석불사에서 열린 하계 수련회에서 호남 범음회 스님들이 범패 수련중이다.

전북지역 스님들이 영산재의 정통맥을 잇기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호남범음회(회장 휴암, 익산 석불사 주지)는 7월 22~31일 익산 석불사에서 제6회 하계 수련회를 개최했다.

호남범음회 스님 22명이 참가한 수련회에는 회장 휴암 스님을 비롯해 지산 스님(교육원장), 운산 스님이 직접 천수바라, 사다라니 등 전통의식을 시연했다.

호남범음회는 영산재 시조인 진감국사 혜소 스님의 맥을 잇는 작법인 범패의 '호남재'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창립됐다. 현재까지 총 82회의 연수를 마쳤고 매월 (음)25일마다 회원 사찰을 방문해 정기적으로 연수회를 개최하고 있다.

휴암 스님은 "진감국사 영산재의 맥을 잇고 '호남재'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여러 스님들이 열심히 노력해왔다. 매 수련회를 통해 사다라니, 천수바라, 안차부 등 한가지 과목을 집중 수련함으로써 동작과 소리의 통일성 유지와 1과목을 확실히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자평하고 관심 있는 스님들과 일반인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한편 호남범음회는 7월 31일 석불사 대웅전에서 열린 회향식에서 사물, 작법, 천수바라 등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는 의식을 재연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바로잡습니다 690호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종걸 스님'은 군산 동국사 총무 소임을 맡고 있습니다.

어린이 문화 행사 풍성

전북-인형극, 전남-어린이 숲속학교 등 개최

여름방학 시작으로 어린이들의 자유시간 활용이 부모들의 화두로 떠오른 요즘이다. 이런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는 무료로 인형극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전남지역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템플스테이가 열려 눈길을 끈다.

고창 선운사가 위탁 운영하는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관장 무공)은 7월 24일 인형극단 까치동(대표 전춘근)과 함께 '2008 전주 인형극 축제'를 열었다. 축제에는 고창지역 어린이 31명이 참여해 국립전주박물관 공연장에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인형극을 관람했다.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는 "지역아동들이 접하기 어려웠던 공연, 전시회 등 각종 문화체험 행사 참여를 통해 어린이들의 숨겨진 재능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광주 증심사(주지 지장)에서는 7월 28~30일 100여명 어린이들이 참가한 가운데 '어린이 숲속학교'가 열렸다.

증심사와 무등산 일원에서 실시된 이번 행사는 28일 입제식을 시작으로 발우공양, 명상프로그램, 부채만들기, 사경, 찬불가 배우기, 화채만들기, 물총놀이, 장기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지장 스님은 입제식 인사말에서 "부모님과 친구가 부처님"이라며, 마음을 잘 닦는 친구가 될 것을 당부했다.





광주 증심사 '어린이 숲속학교'에서 다도를 배우는 어린이들(위)과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인형극 관람으로 신이 난 고창군 어린이들.

이번에 처음 참가했다는 이서연(효동초 2)양은 "절에서 하루 종일 있기는 처음이에요. 하지만 친구들과 함께 있어 너무 즐거웠어요"라며 다음에도 다시 참가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한편 7월 29일에는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무공 스님과 지역 어르신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저소득 거동 불편한 어르신 9명에게 사랑의 실버카를 전달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bud1080@naver.com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mybuda@naver.com

호남 군불교 선지식 초청법문 활기

일면 · 도영 스님 군법당서 법문

호남지역 군법당에 일면 스님(군종교구장)과 도영 스님(완주 송광사 회주, 前 포교원장)이 초청법문해 지역불교계와 군장병 불심을 북돋았다.

공군 38전투비행대대 호국 군성사(주지 원경)는 7월 27일 군산 기지내 관음전에서 '초대 주지 취임축하 군종교구장 일면 큰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했다.

군산사암연합회장 재곤 스님을 비롯한 군산지역 스님들과 안근 군산신도회장, 하성룡 전대장 및 부대 내 지휘관 참모, 지역불자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동참한 이날 법회에서 재곤 스님은 축사에서 "1982년 개원 이래 군성사 법당에 법사가 없어 불자 장병들이 어려움을 겪었으나 주지스님 부임으로 법당이 안정을 찾았다"며 초대 주지로 취임한 원경 스님을 환영했다.

원경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친형, 친구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장병들에게 다가가겠다"고 다짐했다.

하성룡 전대장은 "종교활동을 통해 장병들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즐거운 병영생활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공군불자의 상담과 접견, 정서순화 공간 확보를 위한 요사채 건립을 약속했다.

군종교구장 일면 스님은 법어에서 "육바라밀을 적극 실천해 항상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남에게 베풀고 덕을 쌓아 지혜로운 사람, 부처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영 스님은 임실 탄약창(창장 방향혁 대령) 호국 장영사에서 법문했다.

도영 스님은 '우리도 부처님같이' '청산은 나를 보고~' 등 찬불가를 부르며 노래가사 뜻을 풀이한 대기설법으로 장병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정의행 집행위원장

어려운이들 자비로 감싸고파



지난 3개월간 한국사회 화두는 '쇠고기'와 '촛불'이다. 미국산 수입 쇠고기 협상에 따른 국민들의 분노는 100여일이 지난 오늘도 가라앉을 기미가 안 보인다.

'촛불집회'는 서울은 물론 지방에서도 활발하다. 민주화에 큰 격변을 겪었던 빛고을 광주도 예외는 아니다. 광주 촛불집회를 이끄는 불교활동가가 있다. '미국산쇠고기수입 및 대운하 반대 광주불교대책위원회(이하 '광주대책위')' 집행위원장 정의행씨다.

정의행씨는 광주지역에서는 오랜 기간 불교운동과 후학들을 지도해 유명한 재가법사다.

정 법사는 "청와대와 경찰청장 등 일부 공직자와 국토해양부의 노골적인 종교편향 문제에 대해 정부가 근본적 대책 없이 변명과 무마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석달 가까이 진행된 촛불집회에도 정 법사는 전혀 지쳐 보이지 않았다. 아마 정 법사가 지내온 수행과 포교의 길에서 단련된 모습일 것이다.

1977년 당시 봉선사 조실이던 운경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던 정 법사는 1979년부터 불교운동에 헌신했다. 1980년 5 · 18광주민중항쟁에 참여해 옥살이도 했다. 1987년 광주 불교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무등민족문화회와 근본불교연구소에 참여했고, 그 무렵부터 한국불교사 관련 저술과 경전 번역, 불교출판 활동을 펼쳤다. 1990년부터는 불교교육운동에 관심을 집중해 광주지역 불교운동가들과 더불어 '광주불교교육원' 설립을 주도했다.

광주불교운동의 증인인 그에게 포교가 무엇인지 물었다.

"포교는 불자의 사명"이라는 정의행 법사는 <법화경>을 인용해 설명했다. 정 법사는 "불자라면 여래사(如來使) 즉 여래의 사자로서 뭇 사람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야 한다. 깨달음을 얻지 못했을지라도, 아는 것이 별로 없을지라도 불자라면 먼저 배운 귀중한 가르침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법구경>을 인용한 그는 실천도 강조했다. "<법구경> 말씀대로 천편만권 경전을 외워도 실천 않으면 의미가 없다. 단 한 마디 가르침이라도 실천하는 이가 참다운 불자"라고 말했다.

"단 한마디 가르침도 실천해야 진정한 불자"

정 법사는 오랫동안 위빠사나 수행을 해왔다. 하지만 그런 그가 요즘은 관음기도를 한다. 큰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마음을 관음보살 자비로 감싸겠다는 원력 때문이라고 한다.

정의행 법사의 원력처럼 광주대책위는 광주불교사암연합회와 신행단체 등 사부대중과 상설기구화 돼 지속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정 법사와 같은 촛불보살이 이 땅에 있는 한 '예토에서 정토로 가는 길'은 멀지 않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당신의 쉬고 있는 손!
10억짜리란 사실을 아십니까?

제4기 카이로 프락터 양성

교과목 • 골격학, 근육학, 척추 및 골반 선추 교정, 성장 클리닉
• 31쌍의 중추신경계 압박으로 인한 근본적 질환 퇴치, 척추질환, 알레르기, 빈혈, 천식, 기관지, 변비, 어지러움증, 정서불안, 허약체질, 두통, 소화불량, 불면증, 갑상선 부작용 등등

대 상 • 종교인, 의료기관 근무자, 스포츠 맛사지사, 피부 미용사, 물리치료사, 체육관련 종사자, 봉사 활동자,

자 격 • 초보자 및 실직 · 정년 퇴직자

기 간 • 2급과정 (1개월)
미국 팔머대학 교재직강, 2년 전문대 교육 과정을 54 시간 집약완성

장 소 • 지하철 1호선 구일역에서 도보로 5분, SK주유소 뒤, 기숙사 이용 무료

입학일시 2008년 8월 16일 오후 1시 (공개강의)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중생교육을 위한 맞춤 교육
최면으로 전생,현생,미래생 탐색 · 나를 찾는다
전생·빙의·자기 최면·치료 최면

전생 · 빙의

• 최면의 본질적이고 체계적인 최면 지도자를 양성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본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개강일 2008년 8월 16일 토요일 오후 1시(공개강의)
교육기간 주2회(총8회) 1개월 고급속성 과정
모집인원 선착순 10명
교육비용 50만원
교육대상 스님, 성직자, 의사, 한의사, 대체 의학인 체육지도자, 최면 관심자, 일반인
교육내용 자기최면/타인최면/기억력, 집중력 증강/우울증 해소/대인공포/성격개선/스트레스/수면장애/빙의/전생/금연/금주

◆특기 사항
1. 상상할 수 없는 최소의 교육 경비
2. 개인별 심층교육, 이론을 토대로 실기 위주의 교육
3. 현장에서 바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책임교육, 평생교육
4. 지방 교육생을 위한 기숙사 무료이용


원장 우혜안 스님

사단법인 해동체육지도자 교육연수원
서울 · 구로구 구로1동 685-201 천인빌딩 5F
본원 교학과 Tel : 02-853-6010~1

“불법홍포 우리 손에 맡겨주세요”

‘제13회 포교사고시 1차 합격자 연수회’ 공주 마곡사서 개최

충청지역의 포교를 이끌어갈 ‘예비 포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조계종 포교사단 대전충청지역단 주최로 7월 26~27일 공주 마곡사에서 열린 ‘제13회 포교사 고시 1차 합격자 연수회’에는 법용 스님(마곡사 주지), 상초 스님(마곡사 포교국장), 전채근 대전 · 충청지역 지단장을 비롯해 포교사고시 1차 합격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연수회 입재식 법어에서 법용 스님은 “천년고찰 마곡사에서 예비 포교사들과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어려운 시기에 불법과의 만남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노력만이 포교사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일임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전채근 지단장은 인사말에서 “대전 · 충청지역에서 불법홍포에 앞장서서 보살도를 닦는 지역단에 정식 등록되어 각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포교사가 200여 명이나 된다”며 “대부분은 사찰운영 지원을 비롯해 군포교, 경찰포교, 어린이포교와 사회복지 분야 등 각계에서 스님을 보좌하며 활동하거나 지역 팀 소속으로 여법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으니 모두 최종 합격해 불법 홍포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7월 26~27일 마곡사에서 열린 포교사고시 1차 합격자 연수회 동참자들.

이번 연수회는 법회 의식의 이론 강의와 불교의식 집전 실습 등 포교사로써 갖춰야 할 기본 소양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졌다. 특히 불교의식 집전의 경우 충북 3개조, 대전 1개조, 천안 1개조 등 조별로 나뉘어 진행됐다.

조별 활동의 경우 각 조에서 한 명씩 다른 조에 가서 실제 사찰을 안내하듯 인사를 하고 자기소개를 간단히 한 후 친절히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이다. 이때 설명 시간은 7~8분이 돼야 하고, 설명을 듣는 사람은 각자가 채점자가 되어 ‘무엇을, 왜, 어떻게’ 등의 방법으로 순위를 정해야 한다.

더욱이 이번 연수회가 진행된 마곡사에는 대웅보전(보물 제801호) · 대광보전(보물 제802호) · 영산전(보물 제800호) · 5층 석탑(보물 제799호)등의 보물을 보유하고 있어 ‘예비 포교사’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교육의 현장이었다.

이런 방법은 자신이 해설가와 관광객 모두의 입장이 됨으로써 자신의 장 · 단점을 파악해 낼 수 있고, 포교 대상에 따라 해설방법에 차별을 두는 방법을 익힐 수 있기 때문에 마련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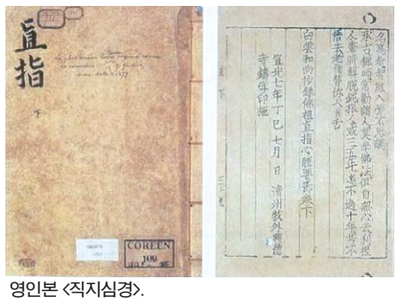
연수회를 회향하면서 전채근 단장은 “각 사찰과 포교사들의 힘으로 모아 포교회관을 마련해 여법한 포교사단 지역단이 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교구본사에서 지역단과 신도회의 바자회 운영 등을 통해 작지만 아름다운 정성이 담긴 포교회관 건립을 위해 동참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수회 중에는 포교사고시 1차 합격자 면접과 포교사 대학원 전문포교사 면접이 함께 병행됐다. 포교사 1차 합격자의 팔재계 및 품수식은 8월 30일 송광사에서 개최됐다.

손효선 기자

‘직지’ UN사무총장 공관으로

영인본·금속활자판 등 2016년까지 내부에 상설 전시



영인본 <직지심경>.

유네스코(UNESCO)로부터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에 등재됨으로써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으로 인정된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和尙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 · 이하 직지>이 미국 뉴욕에 있는 반기문 UN사무총장 공관에 상설 전시된다.

이와 관련, 청주고인쇄박물 남봉익 관장 등 3명은 7월 31일부터 8월 5일까지 미국 UN사무총장 공관을 방문해 공관 내부 5㎡ 규모의 공간에 직지를 전시했다. 이곳에 전시된 직지는 영인본(가로×세로 35×25㎝), 금속활자판(마지막 장 · 49×30㎝),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인증서(46×34㎝) 등과 영문 · 한글로 된 설명문이다.

이렇게 UN사무총장 공관에 전시된 직지는 반기문(64)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2011년 12월 말에 이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총장을 연임하는 관례에 따라 2016년 12월 말까지 전시될 예정이다.

청주시 직지 관계자는 “UN 사무총장 공관에 직지가 상설 전시되면, 이곳을 찾는 전 세계 주요 인사들에게 직지의 가치와 중요성을 홍보함은 물론 직지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직지는 청주 흥덕사에서 1377년에 금속활자로 간행한 책으로 <불조직지심체요절> <직지심체요절> <직지심체> <직지>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직지는 상 · 하 2권으로 구성돼 있으나 현재 상권은 전하지 않고, 하권은 프랑스 국립도서관 동양문헌실에 전하고 있다.

손효선 기자

경은사 보살좌상 충북도문화재로

‘강희오십년명 석감’도 지정

충북 제천시 백운면 경은사(주지 정암)의 ‘목조문수보살좌상(木造文殊菩薩坐像) 및 복장 유물’과 ‘강희오십년명 석감(康熙 五十年銘 石龕)’ 등이 각각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94호 · 제295호로 지정됐다.

충청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목조문수보살좌상은 두건을 쓰고 있는 모습에 단정한 조각솜씨가 돋보인다. 이 불상은 1636년(인조 14)에 만들어진 조선시대 후기의 불상으로 높이 20㎝에 불과한 작은 불상이지만, 조선시대 후기 불상양식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았다.

목조문수보살좌상과 함께 충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강희오십년명 석감’은 석감의 뒷면과 측면에 명문에 의해 조성한 주인공과 연대를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석감 자체가 희귀한 유물로 평가되고 있다.

충북도 문화재 관계자는 “특히 경은사의 강희오십년명 석감은 조선후기 석감으로는 유례가 드문 불교유물”이라고 평가했다.

손효선 기자

법주사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 재선거키로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심경)가 법주사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에 대해 재선거(60일 이내) 결정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7월 28일 중앙종회 분과회의실에서 제194차 회의를 열고, 소유사찰인 향지사의 미등록 사설사암 소유문제로 후보자격 상실판정을 받은 현조 스님에 대해 사찰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짓고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지난 제192차 회의에서 내린 현조 스님의 후보자격 없다는 판정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번복한 뒤 “6월 26일 치러진 법주사 보궐선거는 무효”라고 덧붙였다.

김성우 기자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 불화작가 일연 이희영 보살

“화폭 가득 불심 담아요”

“기와에 그려진 부처님을 본 적 있습니까?”

보통 그림이라 하면 종이에 선과 색이 조화를 이뤄 그려지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이희영(49) 보살은 깨진 기와에 그림을 그린다. 그렇다면 왜 기와에 그림을 그렸을까.

그는 “서양화를 그리며 소재에 갈등을 느껴 붓을 놓고 고민했던 시절이 있었다”며 “우연히 불화를 그리게 됐는데, 소재의 풍부함과 마음의 넉넉함을 느낄 수 있게 돼 그 이후부터 쭉 불화에 푹 년 청주 무심갤러리에서 ‘보살상(관세음보살 · 지장보살)’으로 첫 개인전을 열게 됐다. 그는 “부처님과 스님을 찬탄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화폭에 담아 불화를 조성한다”며 “작품을 귀하게 봐주시는 많은 스님들과 대중에게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고 말했다.

이희영 보살의 이런 마음이 통한 것일까. 5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청주 관음사(주지 현진)에서 전시회를 연 것을 비롯해 서울 경인미술관에서 열린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주최 전시회에서



우연히 그린 ‘불화’의 넉넉함에 빠져…
11월 29일 열릴 전시회 준비에 비지땀

빠져 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모든 사찰에서 흔히 버려지는 깨진 기와들은 ‘부처님의 숨결이 깃들어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부서진 기와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며 “불화를 그리는 덕분에 부처님을 항상 모시고 있다는 여유로움으로 살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희영 보살은 故 만봉 스님(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문하에서 가르침을 받고, 단청장 후보인 연암 박정자 선생을 사사하며 불화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10여 년이 지난 지금 자신만의 독특한 그림 세계를 찾았다고 한다. 그는 자신의 작품이 “그림속 부처님과 합장 공경하는 중생의 마음이 함께하도록 해 대자대비의 마음을 발현시키는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어느새 그림이 대중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자 그는 지난 2002 불교를 대표해 지장보살상을 전시하기도 했다. 이 모두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은 것은 오랜 노력의 산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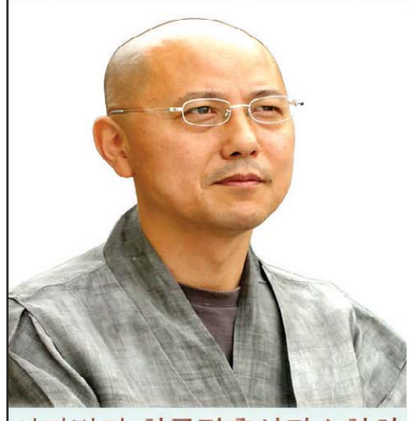
현재 그는 삼복 더위에도 불구하고 11월 29일~12월 5일 여는 전시회 준비를 위해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그가 불화를 그리는 마음자세는 늘 한결같다.

“내면의 평화로움을 통해 부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붓으로 그려내는 긴장의 연속이니,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과 마음을 표현해야 하는 기도 정진의 시간을 갖듯이 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북불교미술인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희영 보살은 “단체 회장으로써 불교미술을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는 한편, 작가로서 더 좋은 작품으로 사부대중 앞에 서도록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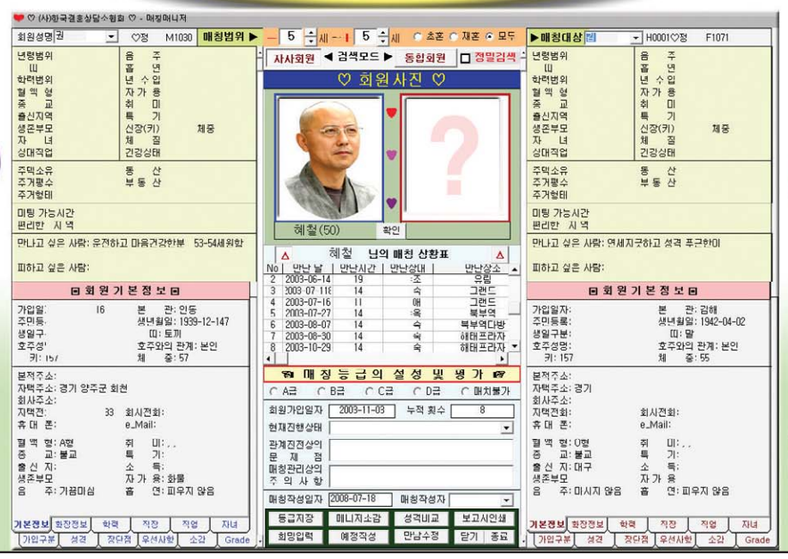
손효선 기자

(사) 한국결혼상담소협회에서 최첨단 맞선 프로그램 출시 !


사단법인 한국결혼상담소협회
고문 혜철 대성사 주지스님

스님출연 ◆ TV프로그램
KBS 아침마당 / VJ특공대 / 무한지대Q
MBC 화제집중 /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 6mm 세상탐험 / 손석희의 시선집중
SBS 그것이 알고싶다. / 생방송 투데이
YTN 전국 네트워크
불교TV 아름다운 사람들
불교방송 BBS 초대석
충북방송 충북, 충청인

국내, 국제 결혼정보업체를 위한
네트워크 프로그램
WedManager 2008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프로그램의 기능
계약관리
회원관리
희망정보관리
회원매칭관리
성혼자관리
불량회원관리
주소록관리
매니저관리
홈페이지정보관리
전국결혼상담소
연결기능 등 !

News !!!
매일 100개 이상의 공유 프로필이 전국에서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단 한개만 입력해두셔도 맞선 요청 전화가 걸려 옵니다!!!

주문 및 전화문의
043-732-5560
010-9422-8453
뉴페이스결혼소프트웨어

불교의 역사적 이해①

'역사'와 '신화'가 혼재된 다양한 붓다의 모습을 해체한다. 불교로서 인간과 사회의 본질적 문제를 고민하고 이 시대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미래를 논의하고자 하는 취지다. 그런 의미에서 조성택(고려대) 교수의 인문강좌 주제 '불교의 역사적 이해(A Buddha or Many Buddhas?)'는 불교를 역사적 전개를 따라 고찰하기보다 객관적인 거리를 두고 바라본다. 불교 내에서 다양하게 거론되는 진리를 인문학 바깥 분야와 소통하는 인문교양 측면의 불교로 주제를 삼는다. 이번 강의는 총 4회에 걸쳐 전개되는 강좌의 도입부다.



강 사 : 조성택 (고려대학교 철학과 · 불교철학)
주 최 : 한국학술진흥재단
일 시 : 2008년 7월 26일
장 소 : 서울역사박물관 강당
후 원 : 교육과학기술부

붓다, 세상에 더렵혀지지 않는 존재


조성택 교수.

우리는 현재 불교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유형별로 나누자면 신비적 관점과 이성적 측면의 두 사이를 경계 없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신비적 이해란 붓다를 신과 같이 숭배하는 것으로 기복의 대상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수험생 입시기도가 있습니다. 불행이 닥치지 않기 위해 혹은 내가 생각한 일이 잘 되기 위해 기도하는 것과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상대적인 기준에 의해 한정된 인원만 합격하고 누군가 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수험생 입시기도는 종교인이 모여서 무의미한 경쟁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이 벗어날 수 있는 발원 기도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신비적인 불교 이해는 기복적이고 무속적이며 출가자의 오만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종교는 비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생활에 맞닿아 있습니다. 육체를 단련하듯 마음을 닦아가는 것이 불교의 강점입니다. 수행의 결여로 인해 범부우치(凡夫愚癡)를 대량생산하면서 종교는 현재 기업화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종교 혹은 사회의 다른 부분과 소통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구체적인 판단이 어렵습니다. 불교를 해석하는 합리적 이해 방식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번 강연에서 지적하는 것이 바로 현대의 이성적 이해가 지닌 문제점입니다.

붓다를 철학가 혹은 사상가로 이해하는 합리적 사유방식이 있습니다. 신화적 요소를 배제한 합리성이나 이성의 지나친 강조로 불교의 본질을 놓쳤다고 볼 수 있죠. 철학으로 이해한 불교는 종교의 초월성을 간과할 우려가 있습니다. 현실에서 이성적 불교의 폐해가 신비적 불교에 비해 적다해도 말입니다.

불교를 이성으로 이해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말 20세기 초로, 발원지는 근대 유럽입니다. 중세 권위적 종교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성과 지적 활동을 펼친 때입니다. 사회 · 인간 · 우주에 대한 이성적 사유가 힘으로 통했죠. 당시 서구의 갈등은 기독교였습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불교를 발견하면서 근대의 이성으로 이해하려는 방식이 시도됐습니다.

현대는 수행을 통해 의식의 변화를 추구하는 '재가지식인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종교 권위자가 지닌 지위는 유지하기 어렵게 됐고 사회인들이 전문 지식인으로 등장하면서 스스로 경전을 읽고 자가 수행을 합니다. 이것이 이성적 불교의 이해를 위한 역사적 배경입니다.

#사상으로서 불교의 특징

근대들어 문제된 것은 불교는 철학인가, 종교인가입니다. 둘 다이기도 하죠. 이를 통해 사람들이 불교를 바라보는 방식을 알 수 있습니다. 근대 서양에서는 철학과 신학이 나눠지고 철학과 종교가 구분됩니다. 그 기준은 이성적 사유입니다. 불교도 역시 철학인가 종교인가를 구분해야했습니다. 종교는 기독교가 유일한 기준이었고 유일신이 있고 없다는 관점으로 불교를 바라보다보니 종교가 아닌 것으로 여겼습니다. 절대자에 의한 믿음 구현 측면에서 본다면 불교는 종교가 아닌 철학입니다. 철학은 신학과 구분되면서 이성으로 입증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불교는 철학이 아닙니다. 이러한 논의는 1920~1930년대 일본 통치하에 한국에 뿌리 내리기 시작한 기독교와 불교가 충돌했던 실제상황입니다.

불교는 왜 서양 철학 입장에서 소통이 어려운가. 불교는 일상적 견해라든지 이성적 사고에 있어 명상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논리적인 사회 활동에서 불교는 삼매 체험에 기반을 둔 사상적 측면을 특징으로 합니다. 체험이 일상의 경험보다 인식론적으로 더 타당하고 유용하다는 결론입니다. 인식의 순간에 오늘 내가 생각한 진리는 내일의 수행에 의해 오늘의 내가 부정당하는 실제를 경험한다는 것이죠. 나의 진리가 나보다 경지 높은 이에 의해 부정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불교가 여기서 출발한다고 봅니다. 붓다의 입장에서 본 승의제(勝義諦)인 궁극의 진리가 있고 일상의 속제(俗諦)라는 두 가지 진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궁극의 진리와 일상의 진리 사이에는 나의 수행정도와 경지에 의한 무한하고 다양한 스펙트럼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붓다는 누구인가?

현대 불교학의 입장에서 초기 붓다는 인간 혹은 스승이었습니다. 대승불교에 들어 신으로 다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비판적 입장입니다. 19세기 유럽에서 붓다는 관심의 인물로 등장했죠. 붓다는 당시 영국의 입장에서 종교 개혁가인 '마틴 루터(Martin Luther)'에 견주어졌습니다. 영국 산업혁명 이후 사회 문제가 일어나고 마르크스(karl heinrich marx · 1818~1883)주의 운동이 벌어졌는데 붓다의 삶이 인류 최초의 막시스트로 비춰졌습니다. 차가운 가슴을 지닌 냉철한 지성인 즉 번뇌의 정열을 식힌 붓다야말로 완벽한 빅토리안 신사였습니다. 그야말로 붓다의 재구성이죠. 붓다는 인간 · 사상가 · 철학가로 영국에 의해 탄생됐고 20세기 초에 일본이 영국에서 해석된 붓다를 재수용하게 된 것입니다.

붓다는 '세상에 태어나고 세상에 살았지만 세상을 극복한 뒤에 세상에 더럽혀지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붓다는 뭐냐? 결국은 깨달음의 경험에 의해 의식이 변화한 존재입니다. 신과 인간의 대립적인 존재 구조가 아닙니다. 불교의 왜곡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일상적 경험이 아닌 선정 경험의 체험이 불교이듯 의식의 변화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붓다는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불교 경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경전은 깨달음을 언어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현실적 언어와의 긴장관계를 지닙니다. 표현은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과 체험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체험이 지닌 속성을 글로 옮겼을 때 그 방식은 묘사와 설명이 있습니다. 설명이 극화되면 이론이 되죠. 경전은 묘사와 이론으로 구성돼있습니다. 불교 경전을 보면 꽃비가 내리다가 무상과 고(苦)의 교리를 서술합니다.

불교 경전은 해석하는데 4가지 의지처가 있습니다.

'법이 의지처지 사람은 의지처가 아니다.'

여기서 법은 진리입니다. 부처님은 옆구리에서 탄생했는가. 사실을 믿느냐의 문제가 아닌 '환기식 독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 안의 메시지와 의미를 이해하며 변화를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과 의미가 의지처지 문자는 의지처가 아니다.'

2500년 전 철기문화 시기에 인도인의 바탕인 바라문의 길흉화복은 하늘에 달려있었습니다. 붓다의 '천상천하유아독존'은 이른바 '인간중심주의 선언'입니다. 나의 운명은 내가 결정한다는 선언입니다.

'완전한 의미를 담은 경전이 의지처다. 임시적인 의미를 담은 경전은 의지처가 아니다.' 해석학적으로 중요한 규칙입니다.

'직접적인 지식(현량)이 의지처지 사변적인 의식활동은 의지처가 아니다.'

앞의 세 가지 규칙을 요약하는 해석으로 직접적인 지식이란 직접 체험입니다. 이것이 경전을 해석하는 틀이지 사변적인 이성적 해석 활동은 바른 해석학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은 고통'일까요? 불교 경전의 핵심인 사성제중 고성제는 붓다 당시의 사회와 종교적인 분위기를 반영합니다. 오음(五陰)은 인간 존재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찰라 생멸하는 존재를 연속적인 존재로 이해하는 고통입니다. 이 언명은 이성적인 사유가 아닌 명상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회고적 진리'입니다. 깨달음을 얻은 후 이전 삶을 되돌아 볼 때 비로소 알게 되는 진리입니다. 이는 고성제가 아직 깨닫지 못한 자에게 있어 이성적 사유로 판단해야 할 논리적 명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는 진리임을 의미합니다.

불교경전은 '방법론적 불가지론'의 방식으로 읽혀야 합니다. 현존하는 불교경전들의 역사적 기록이 믿을 수 없는 것임을 감안한다면 교리를 통해 초기불교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깨달음의 세계를 표현하는 이기를 내가 지닌 이성과 관련 맺을 때 우리는 담론을 형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연숙 기자 omflower@buddhapia.com

불교대학 및 기초참선 수강생 모집안내

◆ 제 27기 선하불교대학

초심자는 물론 불교를 신행생활로 하고 있는 일반불자들 까지도 불교교리는 방대하고 심오하여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강좌를 통하여 불교신자라면 꼭 알아야 할 불교용어, 교리, 사찰예절, 기도 및 참선수행 등 불교 신앙생활에 관한 것을 총체적으로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가 진행됩니다.

- 법사 : 혜거 큰스님
- 대상 : 불교에 처음 입문한 초심자 및 일반불자
- 기간 : 8월 25일부터 14주
- 시간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 2시
- 회비 : 14주에 6만원 (점심공양 제공)
- 신청 : 수강신청서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 제 13기 기초참선 과정

참선을 처음 접하거나 참선을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한 기초반입니다. 앉는 법부터 단계적인 지도로, 강의 · 좌선실수 · 묵언 · 지관겸수 · 생활선 · 간화선 연습을 통하여 누구나 선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 법사 : 혜거 큰스님, 지도법사
- 기간 : 8월 25일부터 14주
- 시간 : 매주 월요일 저녁 08시 – 10시
- 회비 : 20만원 (14주)
- 신청 : 수강신청서 1부, 반명함판 사진1매

◆ 문의 및 안내 :
서울 강남구 개포동 5단지 186-3 삼우빌딩 405호 ☎ 02)445-8484 / 팩스 02)445-8043

금강선원 선하불교대학

사찰 법당 음향설비

DX-707 스텐드 마이크는
音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개발해
특허청의 특허 제0176713호를 획득한
국내에 단 하나뿐인 마이크로



-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흡음력, 음질 보장
-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DX-707 스텐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목걸이형 특수마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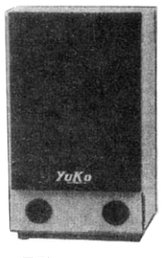
TM-108
목걸이 마이크, 각종 행사, 강의용
주문제작(한정수량 60개)
▷가격 : 120,000원 (택배비 포함)

고성능 탁상마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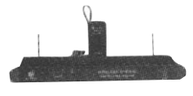
▷가격 : 135,000원 (택배비 포함)

법당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가격 : 500,000원 (설치비 포함)

고음질 무선마이크



▷가격
1인용 보급형 : 220,000원
1인용 고급형 : 580,000원
2인용 보급형 : 480,000원
2인용 고급형 : 680,000원

일반 마이크



V-606LC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일절
- 앰프 성능 보완, 클리닉
- 각종 마이크 주문제작, 판매
- 특수 스피커 주문제작,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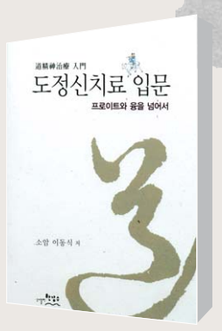
법당의 마이크 소리가 마음에 안드십니까?
간단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한 권의 불서 성불의 씨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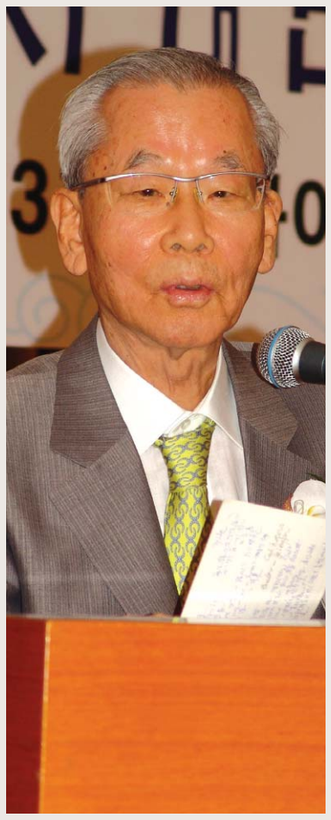
불서읽기 캠페인

주체성 회복하는 치유서



도정신치료 입문 - 프로이트와 융을 넘어서

이동식 지음 | 한강수 펴냄 | 3만8000원



"치료자의 인격으로 얻은 땅에서 떨고 있는 환자에게 봄을 가져다 주리라."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감정처리 여하에 달려있다'고 전하는 <도정신치료(道精神治療) 입문>은 열등감을 극복하고 주체성을 회복하는 해결안으로 수도와 정신치료를 융합한 치유서이다. 66년의 세월 동안 정신치료 전문 의사로서 남다른 열정을 펼쳐온 소암 이동식(사진) 선생의 미수(米壽)를 기념해 출간됐다.

저자는 "도정신치료는 사람이 불쌍해 보이고 남을 이해하려하고 나쁜 이를 봐도 저렇게 될 나쁜 경험이 있어서일 것이라고 생각해 남을 미워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저술 동기를 밝힌다. 사람이란 만족함에도 불구하고 더 큰 허욕으로 부족하다 생각할 수도 있고, 부족함에도 족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항상 만족하고 행복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동양인이 지닌 풍요로운 내적 세계야말로 서양의 외적 세계 정복만을 향한 자기이해가 초래한 인간상실의 치료제'로서 도(道)의 지대한 의의를 강조한다.

프로이트와 융을 넘어서라는 부제처럼 정신분석을 창시한 지그문트 프로이트(1856~1939)와 동양 사상에 흥미를 가지고 문명화된 자아세계를 탐구한 칼 구스타프 융(1875~1961)의 근본 이론을 넘어 문화와 사회의 연결 고리라는 특유의 시각으로 접근한다. 저자는 '정신치료가 이론이 아니라 감정을 대하고 있음이며 존재방식의 뿌리는 문화적 전통의 깊이 있음을 잘 아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에릭 크레그(Erik Craig · Pacifica Graduate Institute) 박사는 저자 일생의 업적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도정신치료입문> 출간을 축하하며 "도정신치료는 프로이트가 말한 인격 치료(Soul Treatment)이며 근본적으로 서양의 정신치료분석과 구별되는 차이가 있다. 자기라는데 국한되지 않고 인간의 자비로운 불성의 실현으로 부처가 되는데 목표를 둔다. 그저 자신을 받아들이는 방식의 생각이 아닌 감정에 초점을 맞춘다"고 말했다.

저자가 말하는 정신치료란 환자가 치유의 과정을 통해 자유와 견성으로 가는 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그것은 자비의 환유다. 상대를 위한 느낌에서 함께하는 느낌으로 공감하는 감응의 방식으로 불교의 자비와 일치한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이다.

지홍 스님(불광사 회주)은 "현대인의 건강정신을 위해 저자가 한국정신치료학회 제자들과 함께 8년여의 준비 끝에 선보인 책의 발간을 축하한다. 서양문명에 경도되어온 우리들에게 서양 정신치료의 한계를 밝히고 동양의 도와 불교적 사상으로 그 대안을 명쾌히 제시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정신치료 지침서이다. 마음의 건강이 절실한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 책을 통해 정신의 건강을 이루길 바란다"고 전했다.

가연숙 기자 omflower@buddhapia.com

도심에서 찾는 자아



점심시간엔 산사에 간다

여태동 글 · 사진

크리에디트 펴냄 | 1만3500원

점심시간에 성형시술도 하는 세상이다.

하루의 쉼표를 찍는 점심시간동안 지하철 패스 하나로 서울 도심에 자리한 산사에서 마음을 달랠 수 있다면? <점심시간엔 산사에 간다>는 우이동 도선사에서 시작해 화계사 · 옥천암에 이르는 도심 산사 20곳의 매력을 갈무리했다. 절로 향하는 교통편은 물론 간단한 가람 안내지도와 주석 중인 스님의 사회 활동 그리고 영험한 기도에 얽힌 설화에 이르기까지 망라한 도심 사찰 기행의 마스터플랜이다.

불교신문 기자로 15년 넘게 몸담으며 산사를 취재해 온 저자는 불교의 넉넉하고 깊은 구도의 세계로 독자를 안내한다. 비 온 다음 날에 진관외동에 자리한 삼천사에 오르다 보면 "맑은 계곡물이 숲을 호령하며 흐르는 듯하다. 가파른 길을 따라 물소리를 법문 삼으면 걱정도 근심도 모두 사라진다. 심지어 누군가 사랑하고 싶어진다"고 전한다. 저자는 산 깊고 물 맑은 구중심처(九重深處)에서 참 자아를 발견하는 기쁨을 맛보라 한다.

가연숙 기자

입과 마음 하나의 공덕으로



염불, 모든 것을 이루는 힘

원영 굉오 지음 · 정원규 편역

불광출판사 펴냄 | 1만원

부처님의 지견(知見)을 깨닫는 길이 염불이다.

<염불, 모든 것을 이루는 힘>은 청나라 말 격변기의 중국에서 불교를 영도했던 원영 굉오(1878~1953) 대사의 <권수염불문>을 저본으로 삼아 염불수행법을 정리한 것이다. 탄탄한 불교학적 토대를 제공하면서 염불 수행 시 지녀야 할 기본자세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한다. 적절한 인연담과 시구가 더해져 읽는 즐거움을 더했다.

염불 수행의 요체는 일심(一心)에 있다. 입으로 염하며 마음으로 염하면 하나의 공덕으로 완성된다. 생각이 서로 이어져 끊어짐이 없도록 해야 한다. 원영 대사는 "염불할 때 늘 마음을 안으로 거두고 생각을 깨끗이 하여 자성을 알아야 한다"는 마지막 법어를 남겼다. 중국 불자들에게 염불 수행의 지침으로 각광받아 온 한 권의 법문집이 한국의 염불 수행자에게 생생한 감동으로 전해지길 기대해 본다.

가연숙 기자

삶 속에서 부처님 발견하기



붓다를 기억하는 사람들

김광하 지음

운주사 펴냄 | 9800원

'수행하다 마음이 흔들리면 언제나 부처님을 생각하라.'

성철(1911~1993) 스님 말씀이다. 역사적인 부처님을 이해하기 위해 부처님과 주위 사람들 사이에 일어난 특별한 만남과 사건을 탐구했다. 당시의 혼란과 갈등을 생생하게 드러내면서 오늘의 삶에 견주어본다.

<붓다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카필라국의 왕자 싯다르타의 출가와 깨달음의 과정을 시대의 현실적 관점에 입각해 이해하고자 한다. 부처님을 만난 사람들이 왜 부처님을 기억하게 됐는지 그들이 나눈 대화에 밀착한다. 혼란과 갈등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신비와 권위를 넘어 참다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발견하려는 의도다.

이 책은 저자가 불교봉사단체 '작은손길'의 봉사자로 활동하면서 니르바나필하모닉오케스트라 후원자들과 함께 부처님의 일생을 공부하며 만든 강의 안을 정리한 것이다.

가연숙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2	신심	혜인	클리어마인드
3	아발로키테슈와라, 당신은 나의 연인	월호	운주사
4	구름을 헤치고 나온 달처럼	정명	불교정신문화원
5	원력	혜인	클리어마인드
6	아름다운 인생은 얼굴에 남는다	원철	뜰
7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이야기	과경	불광출판사
8	진언 다라니 수행 입문	불학연구소	조계종출판사
9	살아 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법정	조화로운 삶
10	붓다를 기억하는 사람들	김광하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고무신코 만 행 화

2008년 9월 5일 ~8일까지 한국불교박람회 출품예정

특 무 명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진회색

사부대중 선 물

지압슬리퍼
• 가격 : 50,000원
• 규격 : 230-280mm (10mm단위)
• 색상 : 진회색,검정

지압 · 동 깔창
조극게사
실 리 콘
동 99%
가격 15,000원
• 사이즈 : 230-280

조각무명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자연색

건강샌들
• 가격 : 90,000원
• 규격 : 230-280mm (10mm단위)
• 색상 : 진회색,검정

지압동 깔창

사계절단화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검정

3-1 밴드
• 가격 : 90,000원
• 규격 : 215-255mm
• 색상 : 검정,회색

망사단화
• 가격 : 7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검정

3-1 끈
• 가격 : 90,000원
• 규격 : 215-255mm
• 색상 : 검정,회색

■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합장

NAVER 통합검색 만행화 검색
인터넷쇼핑몰 만행화 를 검색해 보세요

◆ 본사, 전시장 : 서울 종로구 공평동 143번지 402호 (종각역 2번 출구 100m거리)

모 불교문화원 범음·범패, 불화, 단청 신입생 집

제방의 사암에서 수행정진과 전법도생에 여념이 없으신 출가 수행승과 재가 불자여러분들의 법체청안하옵기를 축수기원 합니다.
금번 본 불교문화원에서는 국가중요무형문화재 50호인 영산재 의식과 48호인 불화, 단청 부문의 강좌를 개설하여 뜻있는 스님들과 재가 불자여러분들을 모실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랍니다.

≪범음범패과≫ 1년과정 (4학기제)
● 초급반 : 사물, 도량석, 조석예불및 종성, 각종불공
● 중급반 : 시련, 대령, 관욕, 신중작법, 상단권공, 중단권공, 관음시식
※ 공 통

소 리 : 종성, 거불, 복청게, 천수태징타법, 도량게, 헌좌게, 가영, 향수나열
바 라 : 요잡, 천수바라, 사다라니, 화의재바라
나비춤 : 도량게, 다게

● 개강일시 : 2008년 9월 1일 월요일 오후 2시 (매주월요일 오후 2시 ~ 6시까지 수업)
● 수 업 료 : 입학금 10만원, 매학기(3개월) 30만원
● 특 전 : 매년 1~2차례 봉원사 영산재 보유자 초청특강, 장학생 수업료 면제, 수료후 각종 행사 지원알선
● 강 사 : 준범스님(봉원사 옥천범음대 출신)

≪불화,단청과≫
● 초 급 반 : 불교기초이론, 시왕초 등선긋기, 뎃생실기, 문양그리기, 채색법
● 중 급 반 : 시왕, 여래, 보살, 사천왕 그리기 완성
● 고 급 반 : 각종 소품 및 탱화제작
● 연 구 반 : 단청문양, 불상개금, 달마도연구
● 개강일시 : 연중 수시모집
● 수 업 료 : 입학금 5만원, 매월 5만원
● 특 전 : 신심돈독한 성적우수자는 전문가로 양성.
● 강 사 : 영범스님(30년 경력의 불화작가)
● 다음카페 : '불화교실' 운영

한국불교태고종대구교구 종무원 부설 불교문화원
문의처 053)622-3702 / H · P 011-814-0648

양 지 국 악 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 승무북, 모듬북 · 장고 · 징 · 꽹과리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011-264-3906 www.yangjikukak.com

■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우리는 지금 어느 시막에서 있는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3D로 복원한 혜초 스님의 인도여행 모습.

혜초1, 2
김탁환 지음 | 민음사 펴냄 | 각권 1만원

혜초와 고선지 만남, 삶과 죽음 너머의 행복찾기
치밀한 구도와 애달픈 문장 독자 몰입시키는 힘

'저는 대유사와 파밀, 나아가 이 세상 전부의 평화를 원합니다. 파밀고원 너머 회회의 삶이 이 잡글에 소상하게 담겼습니다. 우리네 삶이 아름다우면 그네들 삶도 아름답고, 우리네 삶이 비루하면 그네들 삶도 비루하고, 우리네 삶이 슬프면 그네들 삶도 슬프고, 우리네 삶이 영악하면 그네들 삶도 영악하고, 우리네 삶이 힘겨우면 그네들 삶도 힘겹습니다. 부디 이 글을 두루 살피고 파밀고원 동편과 서편에 사는 이들이 상생하는 방도를 찾으셨으면 합니다.'

<왕오천축국전>을 쓴 맨발의 구도자 혜초(704~787), 고구려 유민으로 당나라의 장수가 되어 실크로드의 영웅이 된 고선지(?~755). 두 사람이 거친 모래바람을 헤치며 대유사(타클라마칸 사막)에서 '길 없는 길'을 찾아 무한한 역경과 마주 한다.

황량한 모래바람 같은 역사 속, 그 아득한 길에서 혜초와 고선지가 만났다. 신라의 구도승과 신라에 의해 멸망된 고구려의 유민이라는 현격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삶과 죽음의 길을 함께 한다. '부디 이 글을 두루 살피고 파밀고원 동편과 서편에 사는 이들이 상생하는 방도를 찾으셨으면 합니다'라는 혜초의 간청이 있기까지.

김탁환의 소설 <혜초>는 '동편과 서편의 상생'을 염원함으로써 역사속의 혜초를 21세기의 정신적 지도자로 환생시키고 있다. 교통수단이 발달한 21세기에 혜초의 여정을 뒤따르기는 쉽겠지만, 혜초의 시대 사막과 고원지대의 상황은 한 순간도 죽음을 벗어나지 못하는 고난의 길이었다. 그 길에서 펼쳐지는 풍경은 아름다움이 아니고 고난이 고난이 아니고 삶이 삶이 아니고 죽음도 죽음이 아닌, 다만 존재하기에 존재에 최선을 다할 뿐인 절체절명이기도 했던 것이다. 소설 <혜초>는 바로 그 긴박함 속에 얽히고 설킨 인간의 욕망과 구도를 향한 염원,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등이 뒤섞이고 풀어지는 과정이다.

혜초와 고선지의 다른 길이 같은 길로 회향되고 서역의 무희(舞姬) 오름과 신라의 장사꾼 김란수의 같을 수 없는 계산이 같은 계산으로 통섭되고 경교(예수교)의 제자 야곱과 오름의 쌍둥이 동생 내림의 다른 죽음이 같은 공덕으로 정리되는 동안 독자는 막막한 사막에 버려지기도 하고 인간의 숲에 부대끼기도 한다. 그래서 소설이 진행되는 동안 한 순간도 사막을 벗어나지 못한다. 작가의 치밀한 소설적 구도와 애달프고 아련하게 들려주는 이야기에 걸려드는 것이다. 김탁환의 소설로 되살아온 혜초를 통해 우리는 우리들 삶의 한 가운데 있는 사막을 만나게 되고 그 사막에서 사는 법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이 소설이 눈을 떼지 못하게 하는 것은 <혜초>의 길은 지금에도 그대로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혜초는 맨발로 사막을 걸었고 고선지는 장검 하나로 사막을 누볐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모래 없는 사막과 날은 없어도 저마다의 허리에 단단히 채워진 칼을 하루도 버린 적이 있던가? 종교는? 세속을 이끌어야 할 본연의 목적은 저 멀리 팽개쳐 둔 채 세속을 벗어나지 못하고 세속에 뒤엉켜 교세확장에 목매고, 배척하고, 편파를 조장하고, 구제의 대상조차 망각하는 자화상을 뜨겁게 인식한 적이 있는가? 혜초는 여전히 우리네 삶의 현장을 맨발로 걸으며 사람이 사람답고 질서가 질서답고 생명이 생명다운 길을 뚫고 있다. 그 길에서 혜초가 만나는 오늘의 고선지, 오늘의 김란수, 오늘의 오름과 내림이 무수하기에 독자는 책을 놓는 순간 긴 시간 눈을 감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혜초의 시 한 구절을 가슴에 묻을 것이다.

> 그대는 서쪽 이역이 멀다고 원망하고
> 나는 동쪽 길이 멀다고 탄식하노라.

<왕오천축국전>이라는 명문장이 오늘날까지 돈황의 굴에 갇혀 있었더라면 혜초는 지금 어디 있을까? 혜초를 생각하는 공간이 넓어질수록 혜초의 길이 그리워진다. 그의 혼이 담긴 <왕오천축국전>은 지금 프랑스 파리의 국립도서관에 있다.

민음사는 소설 <혜초>의 홈페이지(hyecho.minumsa.com)를 통해 소설에 나오는 인물들의 캐릭터는 물론 그들의 여정 등을 역사에 근거해 제공하고 있다. 홈페이지에는 작가와 소통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고 <왕오천축국전> 반환 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한 권의 불서 성불의 씨앗 불서읽기 캠페인

내 인생의 불서 한 권

틈
오쇼 라즈니쉬 지음 | 나혜목 옮김 | 큰나무 펴냄

삶을 바라보는 지혜 길러준 가르침

<도덕경>에 '도라고 할 수 있는 도는 이미 도가 아니다'라는 구절이 나온다.

'도'란 언어의 매개체로 의사소통을 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우리로서는 범접할 수도 없는 별천지의 것이기만 할까. 아무리 시답잖은 언어라도 그것의 세계를 말하기란 그토록 만무하단 말인가. 청개구리 심보에 호기심이 왕성한 나와 같은 중생들은 그럴수록 더욱 알고 싶을 뿐이다. 그래서 한때는 도인이라고 소문난 지리산의 한 스님을 찾아간 적도 있었다. 스님 또한 일언지하로 하신 말씀이 "도는 말로 표현될 수 없다"였다.

오쇼 라즈니쉬는 부지런히 말한다. 삶을 말하고 죽음을 말하고, 그 안에 포함된 시시콜콜한 문제들, 이를테면 사랑, 근심, 욕망, 성격, 인간의 부처됨과 동물됨의 내면, 심지어 섹시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말한다. 기성의 종교와 성직자, 철학가, 기존의 지식을 부정하는 이야기들도 열심히 말한다. 물론 그가 도인일수도 아닐 수도 있지만, 출중한 외모까지 겸비한 미남의 명상가가, 경계의 따짐도 없이 그토록 다양하고 새로운 견해들을 펼친다는 것은 사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있고 감사한 일이다. 그가 전하고자하는 궁극의 메시지를 나는 확장, 열림, 새로움으로 이해한다. 우리는 분명 너무나 좁은 의식의 세계에 갇혀있기 때문이다. 그 세계가 너무나 견고하고 높아 그 밖을 보기란 무척 어려운 일일테다. 그렇다면 담장 너머의 세계를 아는 자들이 우물 안 개구리들에게 베풀어줄 측은지심의 자비가 있다면 무얼까. 다양한 방법이 있을 테지만, 나라면 적어도 "애들은 가" 라고만 이야기하지만은 않을 테다. 무리가 따르더라도 개구리들의 언어에 맞춰 열심히 울어주지 않을까싶다. 간혹은 개굴개굴 소리 너머의 메시지를 낚아채는 이도 있을 테니까.

그의 저서들 중에 나는 <틈>이라는 책을 유독 좋아한다. 짬짬이 읽기에도 좋지만, 결코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소홀히 넘길 수 없는 책이다. 내용 중에 각별히 와 닿는 구절이 있어 자주 들여다보게 되는 대목이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결론을 내리기를 주저한다. 그러니 단정하지 말고 들어라. 가만히 들어라. 주의 깊게, 조용히, 활짝 열린 자세로, 수용하라. 그대를 에워싸고 있는 소리를 전체적으로 들어라.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소리가 있고, 그 소리를 듣는 그대가 있고, 그 가운데 침묵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구절을 접한 후로 나는 의식적이지만 주변의 소리에 귀 기울이려는 노력을 하게 되었다. 새들의 소리, 바람의 소리, 빗소리, 이웃집 개가 사납게 짖는 소리, 야채장수아저씨가 배추가 아주 싸다면서 확성기로 고래고래 지르는 소리도 듣는다. 나를 죽이는 연습이 한참은 멀어 오쇼의 말처럼 놀라운 일들을 체득하지는 못했지만, 여러 소리에 집중하다보면 편하다. 나를 알아달라고, 나를 보아달라고, 내 소리를 들어달라고 열심히 소리소리를 낼 때보다는 적어도 '좋다'라는 느낌을 알게 된다. 내게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는 것보다는 좀 더 해볼 만한 구체적인 실천이고 배움이다.

'소중한 느낌'으로 희망 돋워주는 경전 같은 책
"지혜로운 사람은 결론 내리기를 주저한다"

그래서 <틈>은 내게 경전과도 같은 책이 되었다. 사실 만화책이나 연애소설도 경우에 따라서는 경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무엇을 알았느냐'가 아닌 '무엇을 느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함영(전문작가)

강릉 인월사 담마선원
위빠사나 집중수행 안내

지혜와 자비를 개발하는 불교명상법인
위빠사나 집중수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불자뿐 아니라 종교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푸른 솔숲 향기와 목조 황토방 선원에서 깨달음의 휴식을 가져 보십시오"

일 정	지 도	인 원	대 상
2008년 8월23일-8월29일 [6박 7일]	우 소다나 사야도	20명 (선착순)	일반인

■ 수행장소 : 강원도 강릉시 경포 저동 6-2번지 인월사 담마선원 (황토방에 욕실과 화장실 완비)
■ 수행내용 : 좌선, 행선, 일상생활수행 매일 수행 점검을 위한 사야도(큰스님)의 면담과 법문이 있음
■ 입제 및 회향 :
• 시 작 날 - 8월 23일 오후 5시
• 끝나는 날 - 8월 29일 오전 12시
■ 참 가 비 : 15만원 (우체국 201780-01-001463 예금주 : 담마선원)
■ 준 비 물 : 수행에 편한 복장, 세면도구, 필기도구
■ 문의 및 접수 : ☎ 담마선원 033)644-1686
email:dhamma53@hanmail.net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27,5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0,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미국현지영어연수안내

미국 현지에서 영어연수를 희망하시는 불제자께서는 미국 전문 영어연수 학원인 "Spider smart"(미국전역 9개학원개설)의 Sugar Land, Texas 소재 "Learning Center" 학원장으로 있는 불자 김영주(미국 MIT,MBA석사)에게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현지 영어연수에 유익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락 처
◆ TEL : 1-281-491-8896, 1-281-253-2798
H.P : 1-832-264-1045
E-mail : Spidersmartyk@yahoo.com

참고사항
위 학원에서 배포한 Teaching Success Cat, Spidersmart year round program, How to teach at Spidersmart, 등 자료를 원하시는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 연락처 : 019-367-4307, 019-322-4308

국제 육조정맥선원
여름수련회



국제 육조정맥선원이 대웅전 건립 후 두 번째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국내 초유로 이루어지는 법융선사 심명 법문을 전강대선사님의 인가를 받은 명안종사,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생생한 육성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정법의 향취에 취해 생사해탈하여 영원한 복락을 누릴 인연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육조정맥선원의 수련회는 종파와 종교를 초월합니다.
어떤 종교, 종파에 속해 있더라도 상관없이 다만 깨달음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누구라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수련회로 인해 8월의 서울, 포천, 광주, 부산 법문 쉽니다.

일 시 : 2008년 8월 13일(수) ~ 8월 17일(일)
회 비 : 80,000원 (농협 100039-51-043731 예금주 : 최주희)
입금하시고 010-8670-1445로 성명/입금자명/연락처 알려주세요.
문의처 : 010-8670-1445 / 02-3494-0122 / 011-785-0122
홈페이지 : www.zenparadise.com
약도 등 관련정보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수련회 당일 광릉내 707번 종점에 오셔서 031-531-8805로 전화주세요

말 하는 그 순간 이미 틀렸다

오늘의 禪語 ㉚

차나 한 잔 마시게

"대나무 숲 뒤뜰에서 서로 만나 아무 일 없이, 온 대중이 모두 모여 조주차를 마신다(竹院相逢無一事 大家同喫趙州茶)."

어느 시의 한 구절입니다. 조주의 '끽다거'가 유명하다 보니 차에 관한 수많은 선시가 생겨났습니다.

'차나 한 잔 마시게.' 이것이 무슨 뜻일까?

우선 젊은 수좌들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당대의 선장(禪匠) 조주 선사를 찾아왔을 때에는 무언가 분명히 묻고 싶은 말이 있었을 것입니다. "선사, 무엇이 선(禪)의 진리입니까? 교시를 바랍니다." 이 말이 아니었을까?

하지만 선의 세계는 언설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개구즉착(開口卽錯, 말을 하는 그 순간 이미 틀렸다)이라는 말도 있듯이 표현하는 그 순간 이미 무의미한 말(死句)이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해서 조주 선사는 말로 표현하는 대신 차를 내민 것입니다.

"무슨 얼어 죽을 선의 진리. 그런 허튼 소리 하지 말고 차나 한 잔 마시고 가!"

이런 뜻이었을까? 물론 충분히 가능한 해석입니다. 중국의 선승들에게 차는 일상이고, 깨달음의 세계 또한 일상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상은 무심의 세계이기도 합니다.

유와 무 구분은 차별심·분별심이며 이분법적 사고
차는 상대방의 분별심을 강하게 질타하는 몽둥이

이 화두를 푸는 열쇠는 "여기에 와 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습니다. 물론 있다고 해도 없다고 해도 얻어맞아야 하고(차 한 잔 마셔야 하고), 없다고 해도 얻어맞아야 합니다. 있다고 하면 '유(有)'에 구속되는 것이고 없다고 하면 '무(無)'에 구속됩니다. 유(有)와 무(無)를 구분하는 것은 차별심이고 분별심이며 이분법적 사고입니다. 이분법은 어쩔 수 없이 또 집착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따지는 원주도 당연히 얻어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차 한 잔 마셔야 합니다.

여기서 조주 선사의 '차 한 잔'은 단순한 녹차 한 잔이 아닙니다. 그의 차는 상대방의 분별심을 강하게 질타하는 몽둥이입니다. '있다(有)' '없다(無)'에 대한 상대적 인식과 분별심을 버리라는 뜻을 담고 있는 차입니다. 그런데 만일 조주 선사의 말씀에 대하여 젊은 수좌들이 침묵했다면 조주 선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침묵해도 역시 '차나 한 잔 들라'고 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숙제이자 화두입니다.

다선일미(茶禪一味).

각설하고, 조주 선사가 내미는 연두색 차 한 잔을 그야말로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무심히 마실 수 있다면 그는 이미 좌선의 일은 마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아차리는 자는 깨닫는 것, 모르는 자는 더 참구해야 할 것입니다. 거(去)는 명령형의 어조사입니다.

■ **윤창화** 민족사 대표

니다.

"차 한 잔 마시게(喫茶去)."

이 선어는 그 어떤 선어보다도 많이 알려진 선어이자 화두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유명한 선승 조주 선사(778~897)는 신참이든 구참이든 수행승들이 찾아오면 언제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 혹 이곳에 와 본 적이 있는가?"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차나 한 잔 마시게(喫茶去)."

다음 날 또 한 명의 신참승이 찾아왔습니다.

"자네, 전에 이곳에 와 본 적이 있는가?"

"네,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차나 한 잔 마시게(喫茶去)."

절 살림을 맡고 있는 원주스님이 옆에서 묵묵히 그 광경을 보고 있자니 가관이었습니다. 와 본 적이 있다고 해도 '차 한 잔', 없다고 해도 '차 한 잔'이었습니다. 원주는 입이 몹시 근질거려 조주 선사에게 따졌습니다.

"노사, 노사께서는 처음 왔다는 사람에게도 '차나 한 잔', 이미 와 본 적이 있다는 사람에게도 '차나 한 잔 마시라'고 하시니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조주 선사는 "원주" 하고 불렀습니다.

원주가 대답하자 조주 선사는 그 원주에게도 역시 "자네도 차나 한 잔 마시게"라고 했습니다. 와 본 적이 있어도 '차 한 잔', 없어도 '차 한 잔', 그리고 그것이 못마땅해서 참견하는 원주에게도 '차 한 잔'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몇 년 계속되자 조주의 '끽다거'는 일약 중국 천하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깨달은 여인들의 수행법

"염불 잘해 극락세계 연화대서 만납시다"

㉚ 십육랑

남편과 사별후 정토수행 접하고 안심 얻어
'아미타경' 독경 · 염불 3년만에 가피 입어

중국 원나라 때 서호 지방에 살았던 도씨 집안의 십육랑(十六娘)은 26세의 젊은 나이로 남편과 사별했다. 아이마저 없었던 그녀는 한동안 실의에 빠져 살다가 인근 사찰에 계신 스님의 권고로 <아미타경>을 독경하기 시작했다. 고독한 삶이 가져다주는 외로움과 슬픔 등을 아미타부처님께 모두 바치고 의지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녀는 아침, 저녁으로 <아미타경>을 한 번씩 읽었다. 그리고 틈나는 대로 '나무아미타불'을 염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하기를 1년가량 된 어느 날, 흰 옷을 입은 노인이 흰 연꽃 한 송이를 들고 꿈에 나타나 말했다.

"너에게 주기 위해 이 꽃을 가지고 왔으니, 어서 먹어 보거라."

십육랑은 공손히 꽃을 받아먹고 꿈에서 깨어났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몸이 가뿐하고 마음이 무척 즐거워졌다. 홀로 된 이후 언제나 자기를 짓누르고 있던 우울증도 말끔히 사라졌다.

이렇게 아미타불의 가피를 입은 십육랑은 방에 아미타불상을 모신 다음 더욱 열심히 <아미타경>을 읽고 '나무아미타불'을 염했다.

그런데 만 3년이 되는 날, 방안에 모셔놓은 아미타불상이 방광(放光)을 하더니 경상 위의 <아미타경>에 불덩어리 같은 것이 보였다. 그녀는 경전이 타는 줄 알고 황급히 불을 끄려 했지만 꺼지지 않았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눈부신 사리(舍利)였던 것이다.

그날 이후부터 십육랑에게는 세상이 그렇게 평화롭고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었다. 마냥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평안했다. 그녀는 항상 부드러운 미소와 따스한 말로 사람들에게 아미타불을 염할 것을 권하며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았다.

그리고 죽을 때가 되었을 때 주위 사람들을 불러 말했다.

"저는 이제 극락세계의 아미타부처님께로 갑니다. 부디 염불을 잘 하여 극락세계의 연화대에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그리고는 단정히 앉은 채 숨을 거두었다.

<미타영험록(彌陀靈驗錄)>에 기록된 십육랑의 경우처럼 한평생 아미타불의 자비광명 속에서 수행하며 평안하게 살다가 목숨을 다한 다음 극락왕생했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많다. 하지만 염불 수행은 궁극적으로 무량한 빛, 무량한 수명 그 자체인 아미타불과 하나 되는 수행이기에 극락왕생이 궁극의 목적은 아니다. 무한한 과거로부터 우리와 함께 한 영원한 빛, 불생불멸의 생명력을 수행자 스스로 회복하는 빠르고 수승한 수행법인 것이다. 그래서 '한마음으로 흐트러지지 않게(一心不亂)' 염불하면 고통의 사바세계 그대로가 극락정토로 바뀌기 시작하기에, 굳이 내세를 기약할 것도 없이 아미타불의 무한한 자비광명이나 공(空)을 체험하기도 한다.

염불 이외의 행법을 닦는 수행자들은 <아미타경>의 서방 정토가 마음 밖에 따로 있다고 보고, '삼계가 오직 마음이고, 만법이 오직 의식이다(三界唯心 萬法唯識)'고 하는 불교 교리와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극락이 서방에 있든, 내세에 있든, 지금 여기에 있든, 그 역시 마음 안의 것일 뿐이다. 부처님께서 '꿈을 깨라고 설한 37가지 수행방편(37助道法)' 역시 유심(唯心)의 도리에서 벗어남이 없다. 분별심을 여의고 참선, 염불, 간경, 위빠사나라고 하는 방편들을 보면 모든 행법이 꿈을 깨는 '자명종'과 같은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일체의 법은 모두 꿈과 환상과 같다. 사바세계는 물론이요 극락세계 또한 꿈이다. 그렇다면 염불 수행을 해서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이런 의문이 들 것이다. 이에 대해 철오(1741~1810) 선사는 <철오선사어록>에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

"제7지 이하 보살은 꿈속에서 도를 닦으며, 무명(無明)이라는 큰 꿈은 비록 등각(等覺)보살 조차도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오직 부처님만이 비로소 크게 깨어있다(大覺)고 하는 것이다 … 극락세계의 꿈은 꿈에서 깨어남(깨달음)으로 나아가면서, 깨어나고 또 깨어날수록 점점 부처님의 큰 깨어남에 이르는 것이다. 꿈꾸는 것은 둘 다 같지만, 꿈꾸는 까닭(목적)은 일찍부터 서로 같지 않거늘, 어떻게 함께 나란히 논할 수 있겠는가?"

김성우 기자

신행게시판

●**2008 세계일화 정진대회 폴란드 바르샤바** =서울 화계사가 숭산 스님으로부터 이어진 세계일화대회를 9월 유럽지부에서 개최한다. '세계는 한송이 꽃 대회(세계일화)'는 9월 19~26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다. 20~21일 세계일화대회가 열린 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제1호인 비엘리치카 소금광산 및 폴란드 구 수도 크라코프 시내관광, 오스트리아 비엔나 쉔부른 궁전 등 시티투어. 천문시계 등 체코 프라하 관광이 마련된다. 동참금은 300만원 예정이다. (02)902-2663, www.singleflower2008.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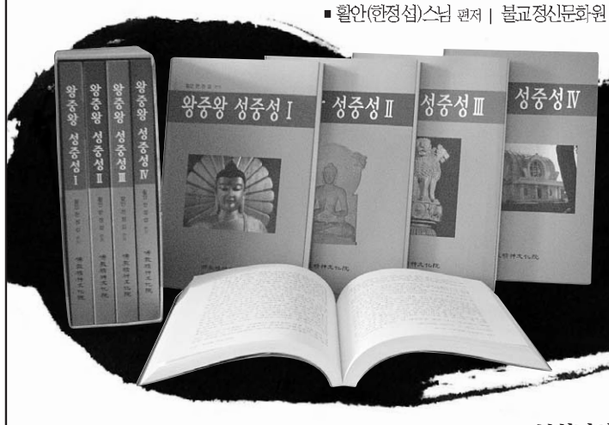
●**팔리문헌연구소장 아함경 강좌**=팔리문헌연구소는 9월 5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아함경〉 강좌를 개강한다. 창원 해불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아함경〉 강좌는 팔리문헌연구소장 마성 스님이 강사로 나선다. 수강료는 월 5만원이다. 접수마감은 8월 31일까지, 선착순 50명 모집이다. (055)285-9383

● **혜원정사 수능 100일 기도**=부산 혜원정사는 2009년도 대학입시 수학능력시험을 맞아 100일기도를 봉행한다. 8월 6일 오전 10시 대웅전에서 기도에 입재한다. 동참금은 10만원이며 앞서 5일부터 칠석삼일기도가 시작돼 7일 끝난다. 동참금은 2만원 (051)866-7771

●**용주사 불교교양대학, 경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화성 용주사가 불교교양대학과 경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에 나섰다. 9월 3일 개강하는 불교교양대학은 매주 수요일 낮 12시 수업이 진행된다. 수강료는 5만원. 같은 날 오후 2시 개강하는 경기불교대학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효행교육원에서 강의한다. 수강료는 12만원 (031)234-0040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 ☎ 02)512-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부처님은 왕 가운데 왕이시고, 성현 가운데 성현이며, 하늘 가운데 하늘이라

■ 활안 스님
'왕중왕 성중성'
王中王 聖中聖
'세계는 한 꽃이요, 만민은 동체(同體)라는 일념(一念)'으로 부처님의 언행이 고스란히 담긴 대장경을 50년간 탐독해온 활안스님 정진의 결실로, 부처님의 일생을 經과 律로써 모든 것을 풀어낸 역작....
■ 활안(한정섭)스님 편저 | 불교정신문화원 | 전 4권 4만 8천원

왕중왕 성중성 I 왕중왕 성중성 II 왕중왕 성중성 III 왕중왕 성중성 IV
불교 교리발전의 근거가 된 부처님의 말씀과 일대기를 체계 있게 총 정리하였습니다. 누구나 이 책을 읽으면 불교의 이치를 밝게 볼 수 있습니다. 바른길을 걸으신 부처님의 행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불교정신문화원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1동 51-14 (사)한국불교금강선원
구입문의 : 02)969-2410
부처님의 일생에 관련된 사진 자료, 여러 경전의 말씀, 승단의 계율 등 부처님의 모든 것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한국불교의 찬란한 역사가 될 것입니다.

도서출판 수선재 WWW.SOOSUNJAE.ORG
잘 죽는 법과 사후세계의 구조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주는 책
【 죽음을 준비하는 법 】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모든 인간이 하나도 예외 없이 언젠가는 죽을 것인데도,
자기가 죽으리라는 걸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수선재 엮음 / 문화영 원저 / 328쪽 / 값 12,000원
【 그 외 명상학교 교과서 시리즈 】 건강하게 사는 법 • 사랑의 상처를 달래는 법 • 행복하게 일하는 법(근간)
인간의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에 대한 명쾌한 해답!
【 목적있게 사는 법 】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태어났으며, 왜 생로병사를 겪을까?
이러한 의문은 살아있는 동안 누구나 풀어야 할 숙제이다.
그 해답은 명상수행에서 찾을 수 있다.
명상수행을 통해 '진리를 보는 눈'이 열려 참된 본성과 하나가 되면,
누구나 직관적으로 인생의 목적을 깨달을 수 있다.
수선재 엮음 / 356쪽 / 값 12,000원
서울시 종로구 적선동 19 번지 2층 Tel.(02)737-9454 Fax.(02) 737-9456

“진정한 기도는 나 아닌 남을 위해 하는 것”

혜경 스님 (서귀포 혜관정사 조실)



제주도에서 <법화경> 해설서 집필에 여념 없는 혜경 스님의 서울방문소식에 얼른 약속을 잡았다. 7월 25일 양주 화담정사서 뵌 스님은 불교이야기를 알기 쉽게 들려주신다.

“일반인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불교가 돼야합니다. 스님들이 참선수행해서 깨달았으면 그 결과를 알기 쉽게 불자들에게 말해주고 이끌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하고 제사불교로만 살고 있으니 저변확대가 되지 않는 겁니다.”

혜경 스님은 다짜고짜 제사불교라며 현 불교계의 양태를 꼬집는다. 천도재를 지내고 49재를 지내고 제사불교의 모습을 보이는 것도 방편이라 변명하지만 방편은 진리를 설명하는 것이지 제사나 지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제사를 지내는 이유도 고인의 이름을 빌려 주변에 베풀려는 의미이지, 귀신 밥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불자들이 알아야 한다는 게 스님의 생각이다.

“스님들이 불자들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제대로 깨닫고 업장소멸할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천도재를 지내거나 백일기도를 하라고 강요하는 꼴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스님은 “기도하라고만 하지 말고, 제대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야 하는데 스님들이 인색해서 불자들에게 안 알려준다”며 “중생심을 이끌어 보살심을 끌어내야할 스님들은 중생 몸에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쉬운 법문을 해주고, 불자들은 업 짓는 기도하지 말고 제대로 1년만 기도하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알게 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기도는 ‘남 위해 하는 것’이라 정의한다. 최소한 나보다 힘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아상(我相)이 빠져나가 제대로 기도하는 효과가 드러난다는 것이다.

“남 위하는 건 선이고 나 위하는 것 악입니다. 스님들은 기도하라고만 하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니 자기 위한 기도만 하고 있는 겁니다, 불자들이. 기도한답시고 나를 위하는 악업만 지어대는 거지요.”



‘나’ 자성(自性)이 없는 것을 알고 불도를 실천해야 업이 사라진다는 스님의 설명이 이어진다.

“업은 과거행 전생에서 쌓아온 것이라고 말하지만 육도윤회는 전생 내생의 문제가 아니라 매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개인도 영혼도 없고 ‘식’만 있다고 <금강경>에서는 말합니다. 육체는 부모에게 받아서 부모가 가진 습성이 전이된 것이에요. 그게 바로 업입니다.”

스님은 육도를 하루하루 우리의 삶속에서 찾아낸다. 스님이 제시하는 해탈의 길은 바로 부처님 가르침으로 새 길을 가라는 것. 제사 지낸다고 조상 천도한다고 내 업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이 스님의 지론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업을 소멸할 수 있을까. “나를 없애 남에게 베풀어야 업을 소멸할 수 있다”고 강조한 스님은 “베풀려는데 돈이 없다 고민하지 말고 무재칠시(無財七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두 번째 보시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말씀한다.

재물이 없이도 베풀 수 있는 일곱 가지 보시를 뜻하는 무재칠시는 부드럽고 온화한 얼굴을 지니는 화안시(和顔施), 사랑 칭찬 격려 등 부드러운 말로 이야기하는 언사시(言辭施), 다른 존재에 자비심을 갖는 심시(心施), 온화한 눈길로 보는 안시(眼施), 공손한 태도로 남을 돕는 신시(身施), 자기 자리를 양보하는 상좌시(牀座施), 나의 집을 타인에게 숙소로 제공하는 방사시(房舍施)를 말한다.

남 위하는 건 善·나를 위하는 건 惡
생활속에서 웃고 칭찬하면 업 소멸
법화경 핵심사상 ‘헌신’ 실천해야

“문수보살 게송에 ‘성 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화안시요, 언사시입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화안시는 웃는 얼굴을 하라는 것이고, 언사시는 칭찬의 말을 하라는 뜻입니다.”

화안시와 언사시를 실천하면 세상이 아름다워진다는 스님의 생각은 스마일교육을 받고 화술을 배우는 현대인들과도 일맥상통해있다.

“부처님께서 연기법을 깨달았는데 이것이 바로 의타기성(依他起性)입니다. 의타기성은 자성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 ‘공’이 연관되지 않은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꽃이 피는 것도 공기와 물과 영양분이 뿌리와 줄기와 잎에 영향을 미쳐 생기는 일입니다. 중중무진 온 세상이 연결된 것이지요. 범부는 ‘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상(我相) 인상(人相) 중생상(衆生相) 수자상(壽者相)이라고 <금강경>에서는 말하지만 이것은 중국식 표현이고 개체가 아니고 개인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공사상입니다. 남을 의지해 존재하는 것, 바로 의타기성인데 우주 만물 그 어디에도 혼자 존재하는 것은 없어요. 공은 제로이자, 근원적인 절대 하나를 의미합니다. <법화경>은 그 공을 설하는 것이에요. 공도 모르고 <법화경> 자구에만 매달려 해석만 하면 그게 제대로 된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일까요?”

<법화경>의 핵심사상은 ‘헌신’이라고 스님은 단언한다. 남을 위해 법을 설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화경>에서는 수지, 독, 송, 해설, 서사 이 다섯 가지 방법으로 법보시를 하도록 하고 있죠. 부처님의 말씀을 받아 기억하고(수지), 읽어주고(독), 시로 읊어주고(송), 알기 쉽도록 설명해주고(해설), 써서 남에게 주고(사경) 이것이 법보시요, <법화경>이 말하는 헌신입니다. 전부 남을 위한 것이에요.”

스님은 또한 사성제 법문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경전의 비유를 들려준다.

“<상적유경>에 코끼리 발자국의 비유가 나옵니다. 모든 짐승의 발자국이 코끼리 발자국에 들어가듯 팔만사천법문이 사대 법문 속에 들어간다고요. ‘고집멸도’를 배우기 위해 불교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에서 벗어나면 불교가 아니에요. 유위법인 고에서 출발해, 분별지에서 무분별지로 가는 것입니다. 팔만사천법문은 해탈법문이에요. ‘공’이라 설한 것은 고에서 해탈하기 위한 것이지요. 율은 승가 화합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혜경 스님은 은사스님의 말씀을 빌려 경전 읽는 법을 조언한다. 부처님 말씀을 내 이야기처럼 받아들이라고. “경전을 읽더라도 상대논법으로 읽지 말고, 일단논법으로 읽으라고 은사스님은 누누이 강조하셨어요. 사리불존자에게 말씀을 하셨건 다섯 제자에게 말씀하셨건 바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요, 바로 내가 그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누가 그랬다더라로 읽으면 경전 백날 읽은들 내 것이 되지 않아요. 바로 내 이야기로 듣고 이해하고 부처님이 말씀해주신 불법을 깨달아야지요.”

스님은 부처님 탄생설화를 예로 든다. 부처님이 도솔천서 하계를 보고 있다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난 것을 탄생설화로만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 우리 모두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난 것이므로 부모를 원망하지 말아야 하듯 경전 속 부처님 말씀을 자기 얘기로 받아들일 것을 주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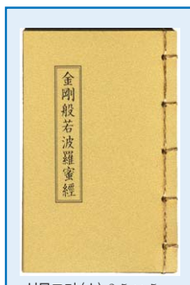
혜경 스님은 입적하신 월하 스님(前 조계종 종정)과의 짧은 인연이야기 한 토막을 들려준다. 20여 년 전 의성 대곡사서 수륙재를 지낼 때의 일이다.

“20년 전만해도 제가 목에 기브스를 한 듯 거만했어요.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지. 수륙재가 끝나고 신도들이 사진 찍자고 하길래 스님인 내가 이런 걸 왜 해야 하나 싶어 큰스님 핑계를 대고 안 찍었어요. 신도들이 월하 스님께 부탁드리니 월하 스님께서 혜경 스님도 옷 갖춰 입고 오라 해서 포즈 잡고 사진 찍었지요. 월하 스님이 ‘우리(스님)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하고 물으시는데 아차 싶었어요. 스님이 존재하는 이유는 중생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중생이 원하는 것도 못해주면서 왜 중노릇하느냐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때부터 목에 힘을 빼고 중다운 중이 됐지요.”

혜경 스님이 불자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단 세 가지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세 가지만을 실천할 것을 강조한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려면 헌신하라. 남을 위한 기도를 하라. 실생활에서 웃고 칭찬하라. 이것이 오늘 제가 한 이야기의 요점입니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실천하세요.”

글=강지연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복장의식 상량식 불사 장엄 소가사용 영천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소 병 풍 (관세음보살 보문품) (지장보살본원경) 크기 : 가로, 세로 74Cm
달마액자 (중)35 × 50cm (대)42 × 65cm
옴마니반 메훔족자 60 × 20cm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26×16×16cm ~~15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 1143-12-049474 송명화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온열뜸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정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불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수바시 사원 서사대탑.

목포대학교 최연식 교수의
실크로드 답사기

고대불교 역사의 숨결을 느끼다

7월초 중국 신강성 쿠챠와 투르판 지역의 불교 유적지를 답사했다. 이번 답사는 서울대 동국대 등 국내 불교학자 30여명이 실크로드 불교 유적지 답사를 통한 연구교류 확대를 위해 마련했다. 실크로드의 천산남로와 천산북로가 만나는 지역에 자리 잡은 투르판과 천산남로 중심에 위치한 쿠챠와 고대 실크로드의 주요 거점 도시면서 동시에 불교 신앙이 크게 융성했던 지역들로, 인도에서 중국으로 불교가 전해지는 이른바 불교동전(佛敎東傳)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이다. 역사에 걸맞게 이들 지역에는 주요 불교 유적이 많이 남아 있었다. 이들 지역의 불적답사는 고대 불교의 역사와 문화, 특히 동아시아 불교문화의 원천을 이해하는 데 귀중한 경험이 됐다.


최연식 교수.

수바시 사원서 구마라집 흔적을 쫓다

새벽 1시 우루무치 공항에 도착해 다시 몇 시간을 보낸 후 8시 30분에 출발하는 국내선을 타고 첫 번째 답사지 쿠챠에 도착했다. 쿠챠 공항은 공항이라기보다는 작은 버스터미널에 가까운 규모였고, 대합실 분위기도 시골 역을 연상시켰다. 한때 실크로드의 요충지로 번성했으나, 18세기 실크로드를 대신한 해양 개척후 사막의 작은 오아시스 도시로 위축된 쿠챠의 현황을 공항이 잘 말해주는 것 같았다.

쿠챠에서 제일 먼저 찾은 곳은 쿠챠 시내에서 북쪽으로 20km 떨어진 쿠챠강 상류의 수바시(Subashi) 사원터였다. 수바시 사원은 쿠챠 왕실이 후원하던 가장 큰 사찰이었다. 강을 경계로 서쪽과 동쪽에 각기 비구와 비구니들을 위한 사원이 있었고, 쿠챠 출신의 역경승 구마라집(鳩摩羅什)과 그의 어머니가 주석했던 사찰로 알려져 있다.

쿠챠 왕국의 공주였던 구마라집의 어머니는 쿠챠에 찾아온 인도 출신의 학승 구마염(鳩摩炎)을 흠모해 왕실의 권위로 구마염을 환속시키고 결혼했다. 구마라집을 낳은 후 문득 출가를 결심한 공주는 아들과 함께 이곳 수바시 사원에서 수행에 전념했다.

수바시 사원은 <고승전>의 구마라집 전기에는 작리대사로, 현장법사의 <대당서역기>에는 조호리사로 일컬어졌다. 쿠챠 왕국 대표 사찰로 기록됐던 수바시 사원은 이슬람화된 10세기를 전후해 쇠퇴하기 시작했다. 13세기 이후에는 완전히 폐기됐고 지금은 황폐화된 흔적만 남아있다. 일반에게는 비교적 보존 상태가 양호한 서쪽 사원만 개방 중이다.

석가모니불·미륵보살 그려진 키질 석굴

오후에는 쿠챠 시내에서 서북쪽으로 70km 정도 떨어진 키질(Kizil) 석굴을 찾았다. 키질 석굴은 무자라트(Muzarat) 강 북쪽 깎아지른 듯한 바위산 따라 약 2km에 걸쳐 조성돼있다. 현재까지 236개 석굴이 확인됐고 그 중 135개 정도는 비교적 온전하게 남아 있다. 석굴의 개창시기는 3세기경부터 9세기까지 지속된 것으로 알려진다. 초기에는 승려의 수행을 위한 승방굴이 만들어졌고, 점차 예배를 위한 석굴이 많이 만들어졌다. 소박한 승방굴과 달리 예배굴은 불상과 다양한 벽화로 화려하게 장식됐다.

초기 석굴들은 중심기둥 앞면에 감실을 만들어 석가모니 불상을 모시고, 석굴 가장 안쪽 벽과 입구 내벽 윗면에는 각기 석가모니 열반상과 미륵보살 설법도를 그렸다. 열반상과 미륵보살 설법도를 같은 공간에 배치한 것은 인도에 없는 이 지역 고유양식이다. 입멸한 석가를 추모하는 동시에 도솔천에 있는 미륵보살 강림을 기원하는 신앙표현으로 생각된다.

석굴 벽화는 석가모니와 미륵보살만 묘사되고 다른 부처나 보살들은 등장하지 않았다. 다양한 불보살을 신앙한 대승불교와 달리 석가모니와 미륵보살만을 신앙의 대상으로 받아들였던 쿠챠의 불교신앙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석굴 안내원이 조심스럽게 열어준 제10호 승방굴 벽에는 키질 석굴을 조사하고 많은 벽화 모사도를 그린 한국 출신 한락연(韓樂然) 선생을 추모하는 글이 쓰여져 있다. 한락연 선생은 1946~1947년 동안 수많은 석굴들을 발견하고 거기에 그려진 벽화를 모사해 키질 석굴 연구 기반을 마련한 인물이다. 한 선생은 애석하게도 조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비행기 사고로 사망했다.

여인이 사는 곳—키질가하

키질 석굴에서 쿠챠 시내로 돌아오는 길에는 키질가하(Kizil Gaha) 석굴을 둘러봤다. 쿠챠 시내에서 서북쪽으로 12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키질가하 석굴은 4~8세기 사이 만들어졌다. 현재까지 61개 석굴이 확인됐고 11개 벽화가 남아 있다.

석굴로 걸어가는 길 중간에 높이 15m의 한나라 군대가 만들었다는 커다란 봉수탑이 서 있다. 위그르어로 '여인이 사는 곳'이라는 뜻의 키질가하라는 석굴 명칭은 봉수탑에서 유래했다. 점장이에게 "새로 태어난 딸이 성인이 되기 전 거미에게 물려죽을 것"이라는 예언을 들은 쿠챠 국왕은 공주를 봉수탑 꼭대기에 격리했다. 안타깝게도 봉수탑에 갇혀 살던 공주는 성인이 되는 날 선물로 전해진 과일을 먹다가 그 안에 들어 있던 거미에게 물려 죽었다.

하지만 쿠챠 공주가 한나라 군대가 만든 봉수탑에 격리됐다는 이야기는 뭔가 자연스럽지 못하다. 쿠챠 왕족이 한나라 군대에 의해 봉수탑에 유폐된 것을 전설로 표현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다섯 개 석굴이 하나로…쿰투라 석굴

쿠챠 답사 둘째 날 오전에는 쿠챠시에서 서남쪽으로 약 3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쿰투라(Kumtura) 석굴을 찾았다. 쿰투라 석굴은 쿠챠에서 키질 석굴 다음으로 많은 석굴이 밀집해 있다. 현재까지 112개 석굴이 확인됐고 이중 60여 개가 비교적 온전하게 남아 있다. 키질 석굴과 마찬가지로 무자라트 강에 면해 있고 두 석굴 사이의 거리는 약 15km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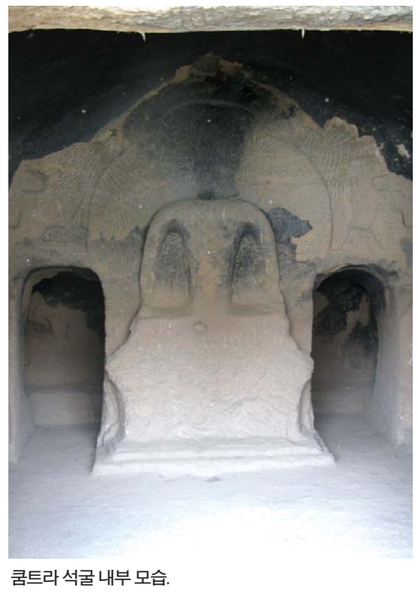
석굴 입구에서 조금 들어간 곳에 자리한 쿰투라 수력발전소까지는 버스가 갈 수 있는 포장도로지만, 거기에서부터 석굴 밀집부까지 약 2km 강변 비포장길은 당나귀 수레를 타고 갔다. 망아지 크기 밖에 안되는 당나귀는 5~6명의 사람을 태우고도 힘차게 달려 불과 몇 분만에 석굴 밀집부에 데려다 주었다.

쿰트라 석굴은 키질 석굴이나 키질가하 석굴보다 늦은 5~10세기 사이에 조영됐다. 초기에는 키질 석굴 등 영향을 받은 벽화가 그려졌지만 7세기 이후 당나라의 직접 지배를 받은 후로는 당나라 불교 미술의 주요 주제인 변상도와 아미타삼존, 약사삼존 등의 벽화가 등장했다. 8세기말 위그르인의 쿠챠 진출 후 위그르 복장의 공양인 등 위그르 양식이 벽화에 나타난다. 쿠챠, 한족, 위그르 미술 양식이 한 곳에 보이는 것은 이곳만의 특징이다.

쿰투라 석굴 안쪽에 위치한 제68~72호까지의 다섯 석굴은 하나의 출입구를 공유하면서 서로 복도로 연결된 동굴이다. 네 개 석굴은 각기 본존을 모시는 예배굴이고 제69호굴은 승려들이 모여 법회를 보는 법당굴이다. 쿰투라에는 다섯 개 석굴이 하나로 연결된 '오련동(五聯洞)'이 여러 개 분포한다. 이는 쿰투라 석굴만의 특징이다.

제68~72호굴 벽화도 이슬람교도들에 의해 불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상태다. 그런데 간혹 불탄 천정 벽화 사이로 이전 시기 벽화의 모습들이 보였다. 앞 시기 벽화를 덮고 있던 후대 벽화가 이슬람교도에 의해 떨어져 나가면서 보인 것이다. 파괴가 파괴로 그치지 않고 사라졌던 처음의 모습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쿰투라 석굴을 나오는 길에 샤하르트 사원터를 들렀다. 폐허만 남은 샤하르트 사원은 현장 법사 방문 당시 쿠챠 불교를 대표하던 목차국다가 머물던 사찰이다. <대당자은사삼장법사전>에는 현장


쿰트라 석굴 내부 모습.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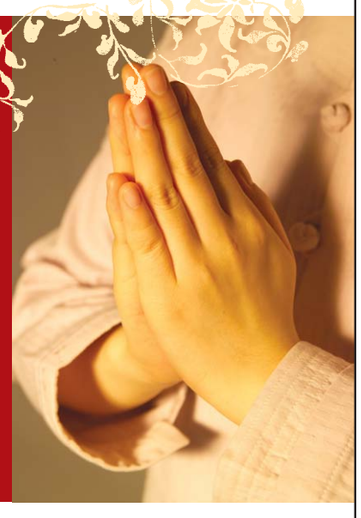
법률사무소 서안은 스님, 불자님들의 권익을 보호해 드리기 위하여 평촌에 사무실을 개설하였습니다.

부처님 법이 곧 마음법이어서 생활하시는데 걸림이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세속의 생활은 마음먹은데로 흘러 가지 않아 각종 송사에 휘말릴 가능성이 많이 있고 또한 현실이 그러합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서안은 부처님 법을 받들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마음편히 스님, 불자님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서안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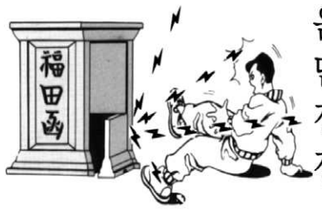
변호사 강영화 · 김기현 합장



瑞安 법률사무소 서안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7 한양월드빌 206호
강영화 변호사 | 031)436-3114 | 010-7504-4521
김기현 변호사 | 031)436-3054 | 017-535-0685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움직이거나
덮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향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베제클릭 석굴 외부 모습.


고창고성 사원 강당.


베제클릭 가는 길의 화염산.

찬란한 불교문화의 흔적 고스란히

법사가 사하르트 사원에서 소승 교학을 최상으로 여기는 목차국다와 논쟁을 벌여 그를 압도했다고 전한다.

푹 꺼진 땅, 투루판

쿠챠 시내 박물관 등을 둘러본 후 투루판으로 향했다. 중간에 있는 쿠얼러(庫爾勒)에서 1박 후 철문관(鐵門關)과 보스텅(博斯騰) 호수를 둘러보고 투루판에 도착했다. 투루판에 도착해 버스에서 내리자 숨 막히는 더위가 느껴졌다. 투루판은 해발 100m도 안될 뿐 아니라– '투루판'은 '푹 꺼진 땅'이라는 의미라 한다– 주변이 큰 산맥들로 둘러싸인 분지다. 여름 최고 기온이 50℃ 가까이 올라가는 중국의 대표적 불가마 지역이고, 1년 강우량 10mm에 증발량이 2500mm인 초(超)건조지역이었다. 이런 상황이니 <서유기>에 나오는 화염산이 이 지역에 있는 것이 당연히 여겨졌다.

투루판시 서쪽에 위치한 교하장원(交河莊園) 호텔에서 1박 후 투루판 시내에서 동쪽으로 40km 떨어진 고창고성(高昌古城)으로 향했다. 북쪽으로 화염산이 바라보이는 지역에 자리한 고창고성은 5세기 중엽 고창국이 성립된 이후 왕성으로서 크게 발전했다. 고창국은 처음 흉노족 출신 저거씨(沮渠氏)가 건국했으나 5세기말 국씨(麴氏)가 왕위를 차지했다. 고창국은 불교 후원에도 적극적이었다. 열정만으로 시작했던 현장 법사의 인도구법 여행 최대 후원자도 고창국왕 국문태(麴文泰)였다.

고창고성 주변에는 국씨 왕조 시대의 중심 사원으로 현장 법사가 한 달간 머물며 <인왕경>등을 강의한 사원이 남아있다. 안쪽 깊은 곳에 불전(佛殿)이 있고, 중앙 마당 좌우에 강당과 승방이 자리한다. 강당의 벽과 천정이 만나는 네 귀퉁이는 둥글게 처리했다. 안내인은 "소리가 잘 퍼질 수 있도록 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선굴이 많았던 토욕구 석굴

고창고성을 나와 동쪽으로 10여km 떨어진 토욕구 석굴로 향했다. 토욕구는 화염산 중 한 협곡의 명칭으로, 협곡 입구에는 오래된 위그르 전통마을인 마자촌이 위치했다. 마자촌은 마을입구 이슬람교 성인의 무덤(=마자, Mazar)에서 비롯된 명칭이다. 무덤의 주인공은 7세기 이 지역에서 이슬람교를 전파한 사람이었다. 마자촌의 위그르인 전통 가옥들을 보면서 협곡 안으로 20분쯤 걸어 들어가니 협곡 안쪽에 석굴이 나타났다.

석굴은 협곡 깊숙한 조용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과거 좋은 자연환경으로 많은 수행자들이 모여들면서 선인(仙人)이 거처하는 이상적 수행처로 이름이 높았다는 이야기가 실감됐다. 석굴은 협곡의 양쪽에 모두 94개가 확인됐고 그중 46개가 비교적 온전하게 남아있다. 고창국 성립 직후부터 조영되기 시작한 석굴은 불교가 널리 신봉되던 10세기까지 계속해서 만들어졌다. 특히 당나라 때 많은 선굴(禪窟)이 만들어졌다.

토욕구 석굴에는 원래 많은 벽화가 장식돼 있었지만 서구의 탐험대, 특히 독일인들에 의한 약탈로 대부분이 엷어져 현재는 단지 8개 석굴에서만 벽화를 볼 수 있다. 대부분 석굴은 천정과 벽을 천불(千佛) 그림으로 메우고 있었다. 화려한 색채로 석굴을 가득 채운 천불도는 대단히 아름다웠으나, 안타깝게도 이슬람교도에 의해 눈 부분이 훼손된 것이 많았다.


키질 석굴 미륵설법도

벽화가 아름다운 베제클릭 석굴

토욕구 석굴을 나와 고대 투루판 인들의 무덤인 아스타나묘지를 둘러보고 북쪽으로 10km 떨어진 베제클릭 석굴로 향했다.

베제클릭은 '아름다운 그림으로 장식된 집'이라는 위그르말이다. 수많은 아름다운 벽화가 장식된 석굴 성격이 잘 표현된 이름이었다. 토욕구 석굴보다 조금 늦은 국씨 왕조시기에 만들어지기 시작해 14세기 이슬람화 되기까지 조영이 계속됐다. 확인된 83개 석굴 중 40개 이상에 벽화가 남은, 투루판 지역에서 벽화가 가장 많은 석굴이다.

초기 벽화는 중국 미술의 영향이 강했지만 9세기 중엽 위그르 왕조 등장 후에는 위그르풍 그림으로 바뀌었다. 벽화 내용도 대단히 풍부했다. 서역의 석굴에 많이 등장하는 천불도를 비롯해 <약사경> <관무량수경> 등 경전의 변상도와 공양자, 비천상 등 그림의 주제가 다양했다. 특히 석가모니가 전생에 과거 부처님들에게 공양하는 모습을 그린 과거불공양도가 많이 그려져 베제클릭 석굴을 대표하는 벽화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과거불공양도를 서양학자들은 '서원화(誓願畵)'라 부르지만, 중국학자들은 그림 내용이 <불본행경(佛本行經)>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불본행경변상도'라 부른다.

베제클릭 석굴의 과거불공양도 중 일부분이 현재 서울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최광식)에 소장돼 있다. 벽화는 20세기초 일본의 오오타니 탐험대가 약탈해 일본 강점기 총독부박물관에 소장했던 것으로, 제15굴에 있던 그림의 일부분으로 확인됐다.

같은 그림 나머지 부분 중 일부는 영국인 스타인에 의해 약탈돼 인도 뉴델리 박물관이 소장 중이다. 같은 그림의 일부분이 제국주의 국가였던 일본과 영국 탐험대에 약탈돼 각기 그 식민지였던 한국과 인도 박물관이 소장 중이라는 사실은 우연치고는 의미심장하게 생각된다.

최근 국내 일부 인사들이 국립중앙박물관 벽화를 원래 자리에 반환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식민지였던 한국과 인도의 박물관이 그림을 반환해 원래의 벽화를 복원한다면 과거 제국주의 열강의 국가들에게 적지 않은 자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현재 열강의 박물관에 흩어진 벽화들이 제자리로 돌아온다면 베제클릭 석굴은 원래의 '아름다운 그림으로 장식된 집'의 본모습을 되찾게 될 것이다.


키질가하 석굴.

베제클릭 석굴은 불교 벽화만 그려진 것은 아니었다. 제38호굴은 마니교도들이 만든 석굴로 흰옷을 입은 마니교 신도들 그림이 그려졌다. 10세기 급작스레 사라진 마니교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다.

대지를 깎아 만든 교하고성

베제클릭 석굴을 나와 투루판 유적 답사 마지막 장소인 교하고성(交河古城)으로 향했다. 교하고성은 기원전 2세기경 존재했던 차사전국(車師前國)이라는 투루판 원주민 국가의 도성으로, 서역지방에서 가장 오래된 도성으로 알려져 있다.

현장에서 본 교하고성은 지금까지 본 어떤 도성과도 다른 독특한 모습이었다. 성벽을 쌓아 만든 성이 아니라 야르나즈강이 두 줄기로 나뉘었다가 합쳐지는 지역에 약 30m 높이로 우뚝 솟은 대지를 깎아 만든 도시였다.

성모양은 버드나무 잎과 같은 모양으로 남북 길이 1700m, 동서 최대 폭 300m로서 면적은 고창고성보다 조금 더 컸다. 강이 성 전체를 싸고 흐르고, 30m 깎아지른 절벽으로 된 천혜의 요새였다. 성 출입구는 비교적 낮은 위치에 있는 남쪽 문으로 이 역시 강을 넘어갈 수 있었다. 성의 건물 대부분은 평지를 파내 만든 것으로 대형 건물인 관청과 사원들만이 흙을 쌓아 만들었다. 세계 건축사에서 다시 찾기 힘든 특별한 사례로 보인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성은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없고 반드시 지정된 보도를 걸어서 다니며 관람해야 했다. 성 중심부의 대형 사원 유적이은 당시 불교신앙의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40℃를 오르내리는 더위 속에 교하고성을 나온 일행은 모두 탈진한 상태였다. 이번 쿠챠와 투루판 지역 불적 답사는 이렇게 끝마쳤다.

사무직 모집

경기도 일산 소재 사찰입니다.

불심이 견고한
사무직 직원 (남 · 여 각 1인)을
모집합니다

※ 사찰에서 숙식 환영

전화 031)901-1954
www.jangansa.co.kr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풍동 138-1
장 안 사

다음 카페에 스님이 만든 원주생식을 쳐보세요!
통합검색 스님이 만든 원주생식 검색
생산물배상책임보험(동양화재해상보험)가입
ISO9001품질인증업체

자연의 건강함을 담았습니다!
원주스님의 정성을 담았습니다!
원주생식은 원주스님의 손길과 정성,
자연건강법까지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자연이 가르쳐준 그대로의 방법대로 식물이 가지고 있는
영양을 제대로 살려 원주생식을 만듭니다.
당뇨환자 난치성질환자 전화상담

스님이 만든 원주생식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준비하세요!

자연의 맛과 영양을 그대로 전하는 원주생식
원주생식에는 63여 종류가 들어 있어 자연 그대로의 영양을 전합니다.
특히 원주생식에는 한약재, 채소류, 해조류가 70%나 들어 있어 당뇨 및 간염에 좋습니다.
▶1일 1회 1포(40g)×60포(2개월분): 80,000원

곡류 50%를 발아시킨 원주발아생식
원주발아생식에는 발아 제품의 맛과 영양을 그대로 우리 몸으로 전하여 일반 발아 생식과는 차별화 하였습니다.
비만으로 고민하시는 분 및 두뇌개발에 적합한 생식입니다.
▶1일 1회 1포(40g)×60포(2개월분): 80,000원

검은 콩, 검은 깨, 검은 쌀의 영양 원주뽀선식
100% 국내산 원료를 사용하여 검정팥, 검은콩, 서리태, 검정깨 및 소맥배아, 현미배아 등을 복식 물어 만든 제품이며 한약재, 해조류, 채소류가 혼합된 제품입니다. 아기들 이유식 및 노인들 영양간식에 좋습니다.
▶1일 1회 1포(40g)×60포(2개월분): 90,000원

한약재가 듬뿍 들어있는 명품 참생식
원주참생식은 원주생식의 효능을 한단계 높인 생식으로 엽록소, 효소 비타민, 미네랄, 레시, 선추정 등이 그대로 살아 있으며 한약재가 듬뿍 들어 있어 건강을 위한 명품 생식입니다.
▶1일 1회 1포(40g)×60포(2개월분): 90,000원

원주생식 더욱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 요구르트 1병+우유 200cc+원주청국장 1스푼+원주생식 1봉

주문처: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1동 산 28-3
우체국 703314-01-001873 (예금주 : 무상사)
소비자 상담실 (053)958-5921

대웅전 건립불사
천 선 사
2010년 완공예정
차질없는 건립을 위하여 많은 동참 바랍니다
봉 행

우담바라 [신묘장구 대다라니 만독]
정 진 기 도



귀의 삼보 하옵고,
경주 남산 천선사 에서는 매월 둘째, 네째 주 토요일 철야법회를 2008년 5월 24일부터 2011년 2월 14일까지 천일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천선사 신도님들께서는 많은 기도정진 하시어 부처님의 자비광명과 불보살님에 가피력으로 각 가정마다 공덕을 길이길이 쌓으시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선종 총무원
천 선 사 주지 정관 합장

전화 054)748-0462 / 휴대폰 016-509-0462
FAX 054)771-6606

화제집중
관세음보살 순금 (22K) 목걸이 메달

대자대비의 발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의장등록 출연 중)

자비구세 정신의 핵심으로, 천 가지 지혜 눈으로 중생계를 살피고 천 가지 구원의 손길을 펴서 고해에서 허덕이는 중생을 구하시려는 넓고 깊은 원력을 지니신 대자대비의 유일한 진신 관세음보살님... 그 위신력과 가호를 항상 간직하시길 기원합니다.

사업성취, 신수대길, 재수대통, 복덕구족, 만사형통, 승진, 합격, 안전, 성취발원, 삼재팔난 관재구설 병고액난 일시소멸


확대[앞]


확대[뒤]

※ 메달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재질 : 순금 22K, 케이스 : 케노픽(항공기 유리소재) / 크기 : 가로 2cm × 세로 3cm

사찰 불사용으로 매우 좋습니다.
스님들께서 문의 주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립니다.

■구입문의 : 010-7208-3777, 010-2869-5777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봉상리 산100번지 각원사 혜일 합장
농협 231080-52-220201 이규상



사찰음식의 모든 것

정산 스님 산촌 대표

49 우뭇가사리 요리<2>-양념두부우무

여름은 입맛을 잃기 쉬운 계절이다. 무더위에 건강을 잃기도 쉬워 보양식을 자주 섭취해야하지만 비교적 칼로리가 높은 고단백음식들이 대부분이다.

이럴 때 신체 밸런스를 유지하는데 도움 되는 우무요리를 추천한다. 바다에서 나는 해조 우뭇가사리는 질감이 탱탱해 상쾌한 느낌의 샐러드로 매력 만점이다.

우뭇가사리 표백 방법

바다에서 갓 따온 우뭇가사리는 붉은 보라색이다. 신선한 우뭇가사리를 채반에 펴서 볕에 건조한 후 우뭇가사리를 다시 물에 흠뻑 적셔 말린다. 이를 여러 차례 반복하면 하얗게 색이 바래진다. 하얀 우뭇가사리는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비닐봉지에 넣고 보관한다.

우묵 만들기

건조된 우뭇가사리와 물을 1:10 비율로 솥에 넣고 40분 정도 강한 불에 끓인 다음, 약한 불로 20분정도 끓인다. 거품방울이 생기면 우뭇가사리가 다 익은 상태다. 끓인 우뭇가사리 물을 소쿠리나 어레미에 받쳐 네모난 그릇에 담아 식히면 굳는다. 산촌 (02)735-0312

더운 여름철 신체 밸런스 유지에 도움
하얀 우뭇가사리는 반드시 밀봉 보관을



양념두부우무 만들기

재료 : 우묵, 깨소금, 간장, 참기름.

만드는 법

① 끓인 우뭇가사리를 소쿠리나 채에 받쳐 약 2cm 깊이의 넓은 그릇에 붓는다.

② 두부는 바둑 썰기로 썰어 간장과 물을 자작하게 붓고 끓인 후 우무를 굳히는 그릇에 골고루 섞어 우묵이 물에 잠기도록 하고 그 위에 들깨로 장식한다.

③ 우묵은 여름 날씨에 10시간 정도면 완전히 굳는다.
(두부를 세게 끓여두지 않으면 우무가 10시간 굳히는 동안 우무와 섞여 두부 맛이 변하므로 주의한다.)

④ 굳은 두부와 우묵은 꽃모양으로 떠서 유리그릇에 보기 좋게 담는다.

⑤ 그릇에 간장과 참기름으로 간을 해 양념간장을 만들어 함께 먹거나 간장에 식초와 고춧가루를 약간 넣어 새콤하게 먹어도 좋다.



금강선원 초중 스님의 뽕잎차 이야기 ❸

뽕잎차 연구하며 '선농일치' 의 삶

그로부터 8년여를 해제기에는 농사를 지으며 자연에서 몸으로 묵묵히 일하면서 선농일치의 정진을 배웠다. 불가의 길이 어찌 염불하고 불경 읽는 것만 있겠는가. 농사 짓는 것에도 뛰어노는 아이들에게도 불가의 연은 이어져 있는 것이리라. 고구마 스님이 되어있는 동안 주위에 두었던 뽕나무는 어느새 고목이 돼갔다.

선방을 다니며 다양한 차를 접하던 중 신도가 직접 만들었다는 뽕잎차 공양이 들어왔다. 여러 도반스님들과 함께 마셔보니 몸에 좋은데다 녹차와는 다른 맛에 모두 좋아했다. 문득 금강선원 도량 주위에 남은 뽕나무가 생각이 났다.

'뽕잎차를 직접 만들어 보자'는 생각에 뽕잎차를 만들기 시작했다. 기존 뽕잎차들은 특유의 비린 맛으로 마시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처음 직접 만든 뽕잎차 또한 비린 맛이 심했다. 그래서 무엇보다 맛에 중점을 두고 시작했다. 차는 맛있게 마실 수 있어야 효능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후 해제기간마다 뽕잎차를 공부해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어 보았다. 비린 맛을 없애고 흡수가 잘 되며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차를 만들기 위해 그렇게 몇 년을 연구했다. 어느새 결제 기간에는 수행하고 해제기간에는 농사와 뽕잎차를 연구하는 것이 일상이 됐다. 선농일치라는 말처럼 농사가 선과 같다면, 뽕잎차에도 선이 있지 않겠는가. 사람들이 좀 더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뽕잎차를 마셨으면 하는 바람은 그렇게 이어졌다.

해제 기간 외에는 선방에서 공부했다. 표충사 선원을 처음 개원할 때 원주소임을 맡아서 여러 살림도 챙겼다. 그때 뽕잎차만큼이나 특별한 인연을 만났다. 원



주실을 나서는데 원주실 마루 밑에 자그마한 개 한 마리가 앉아있었다. 웬 개인가 싶어 주위에 물으니 주인이 개를 데리고 왔다가 개가 돌아가려고 하지 않아 주인이 결국 개를 두고 갈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개는 다른 곳도 아니고 원주실 앞에만 있으려 했다.

참으로 신기한 인연이라는 생각에 개에게 무심이란 이름을 지어줬다. "무심이가 스님의 시자"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무심이는 나를 따랐다. 절을 찾는 사람들을 안내도 하던 무심이는 표충사의 명물이었다. 무심이는 전생에 불심의 선근이 있었는지 불심이 없는 사람을 보면 짖고 불심이 있는 사람은 법당 안내를 하며 잘 따랐다. 선방스님들의 귀여움도 한몸에 받았다. 원주소임을 한철보고 가을 해제 때 "원주시자 무심이는 금강 스님과 연이 있으니 합천토굴에서 스님이 돌보라"는 대중 스님들 말에 무심이는 금강선원에 왔다.

그해 겨울 표충사에 유심이란 개가 들어왔고, 다음해 동안거 해제 후에는 유심이도 금강선원으로 데려왔다. (055)931-9590 <계속>



health 치아 건강 칼럼 column

소중한 이 치과 안은영 원장

37 치과질환 예방법

스트레스가 충치·치주질환 발생 높인다

최근 경제적 또는 사회적인 어려움으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람이 크게 늘고 있다.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면역체계가 약화돼 자신도 모르는 새 여러 가지 만성질환에 시달리게 된다.

치과질환도 예외가 아니다. 정신적 긴장이나 불안감 속에 생활하는 사람이 마음이 안정된 사람보다 치과질환 감염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자율신경계와 내분비계가 영향을 받아 면역세포가 감소한다. 면역기능이 약해지면 적절한 구강건강 관리에도 불구하고 치과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심리적 긴장과 불안이 높아지면 근육이 긴장되고 침의 분비량이 평소보다 80% 정도 줄어든다. 침에는 세균과 싸우는 물질이 들어있어 세균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데 침의 분비량이 줄면 세균 활동력이 높아지므로 충치가 발생할 확률이 늘어난다. 신경을 많이 쓰면 이가 들뜨고 잇몸이 부어오르고 양치질 할 때 피가 나는 경우가 있다. 스트레스가 치주질환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침의 분비량이 줄어들어 세균 증식이 왕성해지면 치태(플라그) 양이 증가해 치주질환 및 충치가 더 심해진다. 충치와 치주질환뿐 아니라 턱관절 장애도 스트레스가 원인이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으로 관절기능에 이상이 오거나, 이를 갈거나 악무는 습관으로 턱관절에 통증이 오거나 입이 잘 안 벌어지거나 씹지 못하는 등 기능이상이 온다.

모두 잠든 깊은 밤 옆 사람이 뽀드득 뽀드득 이를 간다면 이는 분명 소음이다. 외국에서는 이를 가는 것이 이혼사유 중 하나로 꼽히기까지 한다. 이갈이 습관의 원인은 대체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 등이 복합돼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수면 중 이갈이는 흔히 깊은 잠에서 가벼운 수면상태로 이행하는 시기에 발생해 본인이 자각하는 경우는 전체의 20%정도에 불과하다.

이갈이의 가장 객관적 증상은 치아의 마찰음. 실제 환자의 90%는 마찰음이 없는 상태로 치과의사의 진단이 필요하다. 이갈이는 소리 내어 이를 가는 것 뿐 아니라 치아를 지긋이 악무는 습관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갈이 습관은 같이 잠자는 사람을 괴롭힐 뿐 아니라 정상상태보다 많게는 100배까지 큰 물리적 힘이 치아 및 턱관절 부위에 가해진다.

따라서 치아의 씹히는 면을 닳게 하고 모서리가 깨져나가 잘 씹지 못하며 이가 시리고, 닳아진 치아 사이에는 음식물이 끼어 치주질환이나 충치까지 유발한다. 턱관절이나 근육동통과 두통을 일으키고 이를 갈 때 스트레스를 받아 맥박, 호흡수, 혈압 등의 변화가 일어나 깊은 수면을 이루지 못해 휴식을 취하는데 방해되기도 한다.



이갈이 습관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위 아래 치아 사이에 투명한 색상의 교합안정장치를 끼워주거나 잘 맞지 않는 치아 상태를 치료하는 교합치료, 행동조절, 약물치료 등으로 치료한다. 심한 이갈이 환자의 경우 잠자기 직전 진정제를 투여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과 질환을 예방하려면 올바른 치아건강 관리 방법 뿐 아니라, 스트레스 관리하며 정신적 안정을 유지하는 생활이 필요하다. 또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되면 구강관리 및 이악물기와 이갈이 등 습관을 더욱 조절하고 신경써 증상의 발현을 예방해야한다. (02)776-2882

[법보시 PR]

대중법문

무엇으로 중생을 성불케 하랴

(법화경)지금 너희들은
나 석가모니 부처가 석(?)씨의 궁을 나와 가야성에서 멀지 않은 도량에 앉아
이뇩다라삼막삼보리를 얻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선남자들이여 내가 성불한 뒤 지금까지 무량백천만억나유타겁이 되느니라.

석존 성도 이래 오랫동안 석존을 사사(師事)해온 많은 보살을 대표하여 미륵보살(彌勒菩薩)이 여쭈었다.

"이렇게 많은 무량 천만억 대중의 보살은 일찍이 보지 못했습니다.

모두 어디서부터 온 것이며 무슨 인연으로 이렇게 모였습니까? 부처님이 성도하신 지 40여년 동안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을 교화 하셨습니까"

법화경은 이리하여 여래수량품(如來壽量品) 제 16에 들어가는데 그 첫 머리에 [부처님의 참된 말씀을 신해(信解)하라]는 말씀과 [부처님의 말씀을 신수(信受)하여 받들겠습니다.]라는 미륵보살을 위시한 대중의 말에 되풀이 하여 응답하고 있는데 그것을 예문으로 실은 글이다.

곧 너희들은 모두 석가모니 부처가 석가존의 궁을 나와 가야성 가까운 보리도량에 앉아 무상의 깨우침을 얻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실은 내가 성불한 뒤부터 지금까지 헤아릴 수 없는 세월이 흘렀느니라고 하신 것이다.

이 세월이 어떻게 하여 얼마나 끝없는 옛날인가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 하셨다. 이것이 불타의 영원(永遠)한 선설(宣說)로 그것을 개근현원(開近顯遠) 또는 발적현본(發迹顯本)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글의 바로 앞에 "너희들은 자세히 듣거라. 여래비밀신통(如來秘密神通)의 힘이니라".라는 일절이 있는데 천태대사 지의(智?)는 이것을 해석하여 비(秘)라는 것은 일신즉 삼신(一身卽三身)이고, 밀(密)이 라는 것은 삼신즉 일(三身卽一)이며, 신(神)이라고 하는 것은 법신(法身)을 통(通)이라고 하는 것은 보신(報身)을 역(力)이라는 것은 응신(應身)이라고 가르친다.

그러므로 부처님이 깨우친 진리를 법신(法身), 오랜 수행에 의해서 얻은 훌륭한 습을 보신(報身),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화현(化現)하여 못습을 나타낸 것이 응신(應身)인 것이다. 곧 인도에 출현한 역사적 인물로서 석존이 응신이며, 이 응신이 다시 응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신, 법신을 합해서 삼신즉일(三身卽一)이 되어 개권현실(開權顯實)하신 것이다.



남해 미륵암 주지 청운

그리하여 그 삼신즉일(三身卽一)의 부처님은 "나는 항상 이 사바세계에 있으면서 설법교화한다"라고 하시며, 또 계속이어진다. 이것은 항상이라고 하는데 언제나 변해가는 때에도 영겁의 오랜 예날부터 영겁의 미래를 향해서도 언제나 마찬가지라는 뜻이다.

또 무엇보다도 지금 이순간도 역시 그렇다는 것이다. 그것은 서방의 미타정토도 동방 약사여래의 정유리세계(淨瑠璃世界)가 곧 그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부처님의 광명을 받으며 살고 있는 것이다.

여래수량품에서 장행(長行)의 후반 부분에 양의(良醫)의 비유가 설명 되어 있는데 이것은 멸(滅)하지 않으면서 멸을 나타낸 방편이다. 잘못하여 독을 먹은 자식에게 아버지가 멀리서 사람을 보내어 '아버지는 죽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여 이를 들은 자식들이 항상 비탄에 잠겨 고통스로워 하다가 드디어 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양의(良醫)가 남겨 놓은 약을 먹고 깨끗이 나았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실제는 있으면서 멸도를 하였다고 말하여 제도한 바에 따라 여러 가지의 법을 설하여 중생으로 하여금 속히 불신을 성취하게 하려는 의도이다. 이어서 계문의 마지막에 '언제나 스스로 생각을 한다. 무엇으로 중생을 무상도에 들게 하며 속히 성불하게 만드는가' 라는 말은 실로 부처님의 대자대비(大慈大悲)인 것으로 모든 중생을 여하한 방법으로 성불하게 끔 하고자 하는 부처님의 자비이다. 과거, 현재, 미래 곧 삼생(三生)의 자부(慈父)로서 이 중생을 다 자식으로 사랑한다는 뜻이다.

[미륵암 청운 011-870-0021]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 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불자생활정보

▷ 문의 : TEL 02)2004-8219,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parkwonbum@yahoo.co.kr
▷ 가격 : 1Box(4.4×4.4) 4만원, 1Box(9×4.4) 8만원
▷ 계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주)에이치비엠씨
▷ 원고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을 하셔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전통사찰 등록 / 문화재 등록 / 법인 등록
"비법인 설립"
(서류대행)
성산개발
011-9476-9001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02)374-9886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원인없이 아프신분 영험
궁금증 즉시 해결
수국사 원성 합장
02)2603-2992
011-340-5963

전통불교 문화예술대학
문화재9호 영산작법무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 문의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 (부산)
금정사 대명 합장

역학 개인지도
한문과 용신격국 몰라도 물상으로 철학 배우면 바로 상담할 수 있음
역학을 물상으로 실제 감정 위주로 배워 영가 빼내어 천도재 지낼 수 있음
(주지스님 직강)
051)333-3258
011-591-5277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역학, 전생요법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대한전통불교 문화예술대학
영산재 제9호 작법무 교육도량
●학인수시모집 : 범음,범패, 바라,나비춤
●사찰행사 : 49재,천도재, 점안식,구병시식
010-3928-0006
무량사 무상 합장

스님 되시렵니까?
45세 이하 결심 된분
전화 주십시오
02)584-8844
011-354-8484

각종 불공 범음·범패전문
점안식, 49재, 천도재, 구병시식 영산재, 수륙재, 각시식, 불교의식, 사물, 바라나비춤, 명리활법
실전 위주 교육. 학인행자모집
031)953-3328
011-9923-3329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보살선방
•1인1실 : 방1, 주방, 거실, 욕실 / 방1, 주방, 욕실
•부부실 : 방2, 주방, 거실, 욕실
절에서 수양하며 기도하고 불교공부하면서 노년을 보내실분 (일부시주금 내시고 종신재)
불광사 · 불광대학
053)656-6766

초혼 · 재혼 · 국내 · 국제
대졸 초 · 재혼,신원확실
직장인,공무원,사업가
국제,필리핀,베트남,한족
재혼 70세까지 전화상담환영
02)312-5004
017-766-6888

빙의퇴치 비법전수
신병 · 불치병 고쳐드림
30년 경력 혜봉스님
부처골 지장선원
054)383-8553

역학 · 건강 · 비법전수
한달이내 역학비법통달
비만 · 혈압 · 당뇨 · 암등근본치유 · 예방.
건강비법 전수
052)264-8183
011-855-8180
신불정사 무구 합장

역학비밀 출장 개인지도
초보자도 30일이면 사주를 통달할 수 있는 옛스님들의 비법을 시원히 전수해 드림
(비구, 비구니, 일반인)
010-5668-5775

사주학 · 매화역수 강좌
개인지도, 책임지도
평생운,연운,월운,일운,건강운, 빙의까지 정확히 적중시키는 수리학의 비법을 전수합니다.
(1개월 완성)
02)747-9136
011-307-2975

入山61년 雲水33년
이제야 비로소 入息 出息 自覺케 되었더이다
實參과 活句로써 전법 교화할 포교도량을 찾습니다
(대소불문)
011-9752-1080

도심속의 통영사
(희망을 열어가는 젊은 부처들)
산사 음악회, 대중행사 전문 포교도량 (무료봉사)
◇서울본사: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역8번 출구앞
◇강원지사: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고속터미널옆
선화법사 합장
02)3426-1357
010-8726-1357

미국(L.A.)에서 수행하실 스님을 모십니다
외국비자 있는 스님에 한함
042)282-927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지역 천년고찰
011-527-063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숙식 가능자)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02)3218-4818
016-9822-6460

산세좋고 물좋은 편안한곳에서 가족처럼함께 살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부부도 가능)
부전스님으로 계실 비구니스님도 모십니다
▷문경시 농암
010-8819-8988

부전스님 모십니다
031)592-7315
010-5290-3709

강원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스님이 되고자 발심한 초심자를 모집합니다
묵조선 명상선원
종무소02)464-8305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통장입금하시고 상담하세요
명리학 [사주첩경통달 이석영저자]
명리학 질문 10초내 답변
(만세력 책없이 5초 이내에 두뇌로 일주 통달, 양력)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울산
052)282-8793

행자모집
경기도 양평군 서정면 소재암자
031)774-4760

역학공부
•사주 + 궁합 + 택일 + 작명 : 초중급(월요일) 18:30 개강
•관상 · 풍수 : 매주 수요일 18:30
•인터넷 동영상 강의 : 사주+궁합+택일+작명(초급부터 완성까지)=45만원
www.kbs.cc 풍수, 관상, 육효, 자미두수, 수상/수료증 자격증
한국역학협회 관일학원 월간역학교육원
동대문운동장역 4번 출구 도보 2분. 전화 1688-1137

친환경 한지 영가옷
순수 한지로 만들어서 그을음이나 냄새가 전혀나지 않아 도심지 사찰에서 사용하기 좋으며 특히 백중에 많은 옷을 사용할때 더욱더 좋습니다. 우리 한지는 질겨서 잘 찢어지지 않으며 환경과 공해를 생각하시는 스님께서 많이 사용하는 영가옷 입니다.
●치수는 일반영가옷과 동일합니다. ●주문즉시 택배로 발송합니다.
●국내산 최고급 양초(밀초, 돈타레, 원백)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품질에 문제발생시 100% 환불 약속)
▷계좌번호 : 우체국 700013-01-002808 (예금주 : 관음사)
전화 054)972-9933 (꼭 필요한 번호입니다. 메모하세요)

격국 · 조후 · 통관 · 용신 · 신약 · 신강 신경쓰지 마세요.
핵심은 년·월·일·시 와 지장간 전체의 대흐름 판독입니다.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가출, 부부간의 갈등, 혼사지연, 부모와 자식간의 불화, 학업성적부진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리고 퇴마와 천도방법을 상담으로 알려드립니다
궁합보실분 10곳을 다녀보세요.
8곳은 ○표 2곳은 X라면 ○표를 믿겠죠.
X표는 내시경으로 본듯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찍어냅니다. 또 백호대살, 형살, 원진살 등흉살이 있다고 해도 고민하지 마세요.
사주첩경 6권을 보면 오히려 음덕이 있음을 많이 봅니다.
011-498-5067
(통화관계로 방문 사절)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수중촛대
2008년 9.5 ~ 9.8 한국불교 박람회 출품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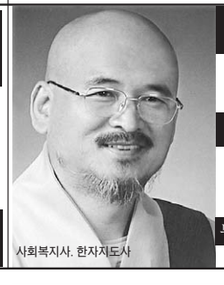
특 징
1.물속에서 양초가 타므로 화재위험이 없습니다.
2.촛불이 50시간-56시간 타므로 초 절약 됩니다.
3.촛농과 그름이 없고 공기정화 및 가습기능

만행화 011-9000-5715 / 02)733-5715

중국 소림 삼삼구 기공 지부장 전수자 모집
◇ 스님,법사님의 포교 방편최고 ◇
■ 最高의 神通氣功 名師
1.빙의(퇴마)치유,귀신을 잡아 보여줌
2.환상을 보게 하고, 온,냉의 기를 발생
3.기를 쏘아 부황으로 사혈
4.맨손의 기로 신문지에 불을 붙임
신통기공사 중국정부 추인 자
■ 웰빙 최고의 건강비법
1.스트레스 해소,각종 질병이 치유된다
2.기억력 상생,학생 성적 증진
3.성격이 바뀌고 비만이 치유
※일반 기본전수 3개월,속성전수 2개월
법회 100명이상 동참시 시범을 보여드림
사단법인 : 대한선행불교 조계종 총무원 * 사찰 입종 환영
부설:삼삼구 불기공 총연합본부(5호선 명일역 3번출구 인근)
전화 02)426-4774, 011-9092-0533 / 팩스 02)426-5585

행자 (예비스님) 모십니다
● 성별 : 남자 ● 학력 : 고졸이상
● 연령 : 48세 이하
● 1인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수행
● 산중 감포분원 및 대구큰절 중 택일
● 수행, 공부의 모든지원, 최적의 교육 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 행자문의 : 010-2488-8228
◇대구 도심 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 최첨단 시설, 편리한 교통, 한발 앞선 장례문화 시설!!
● 언제나 염불, 기도소리 들리는 법당안에 모셔져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설 · 추석 · 제사천도 · 기일에 천도 축원해 드립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053)474-8228 www. TVbuddha.co.kr

대방등 대집경 특별강좌
● 강좌내용 : 28숙 ● 대상 : 승려에 한합니다
● 위치 : 전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02)926-1259 / 011-741-0867


사회복지사. 한자지도사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
문의 051) 867-8438
진각 심리상담 아카데미
"鬱"막힐 울, 답답할 울, 성낼 울, 걱정할 울, 원망할 울.
우울이란 마음이며, 마음을 다스리는 행복한 마음을, 상담이나 최면을 통해서 찾아봅니다.
부산시청 뒤 거제리청과시장에서 양정쪽 150m 삼화탕 앞 송광정사

고(古)건물 수리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건물 넘어간집 바로잡음, 석가래 기둥 등 썩은곳 교체
신축 및 기와등 한옥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고도건축 대표 강충
연락처 053)964-0858 / 휴대폰 011-804-1748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성지아파트 3동 202호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복천암
• 법 명 : 만오(차차석) / 도봉(이경수)
• 주 소 :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1-19번지

상기사찰 및 본인은 귀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대한불교 정토종 총무원장 법하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용화사
• 주 지 : 지원
• 주 소 : 전북 부안군 행안면 역리 342번지

상기사찰은 귀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제원사
• 법 명 : 묘각(배연수)
• 등록번호 : 제277호 / 승려번호 : 1205-319
• 주 소 : 대구시 달서구 상인2동 1460-38

상기사찰은 귀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삼화불교총무원장 법하

육임 수강생 모집

「육임 수강생 모집」
1. 개인 지도 수갱생 모집
2달 완성 (수강료 300만원)
단, 명리나 오행에 기초를 익히신분에 한하여 가능함
2. 기초 수강생 수시모집 (수강료 100만원)
• 7월 개강) 목요반 4시 - 6시 30분
• 7월 개강) 토요반 10시 - 12시 30분
고급반 육임을 하신분들에 한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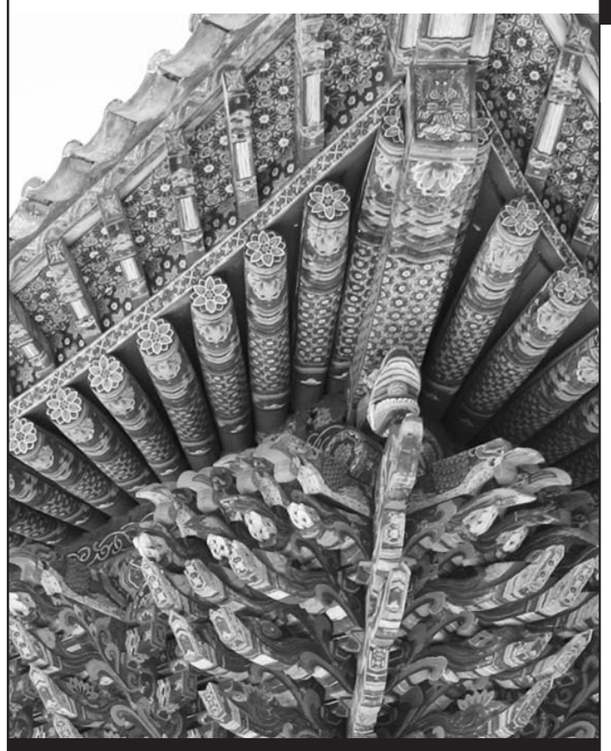
신 간 안 내

최고에 오행술인 육임을 보다 쉽고 빠르게 공부 할 수 있도록
설명을 각 점단마다 국수를 부쳐 설명하였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온 목적사을 말할수 있는 내정 비법인
시간법이 들어 있습니다.

공 념 학 당 : 상담 가능 (전화로도 가능)
■ 상담문의 : 02)793-7333 (전화 상담도 가능)
■ 홈페이지 : www.saju79.com (강의 홈페이지)
www.unsemaru.com (운세상담 홈페이지)
■ 사 무 실 : 서울시 용산구 보광동 35-45호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26-21-0792-969 (예금주 : 박옥자)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기본 규격 50.000원
규격 5× 7cm 70.000원
규격 5×10cm 100.000원
● 계좌번호 : 국민은행 222-25-0005-381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TEL 02) 2004-8219 / 02)732-1522 (直)
FAX 02) 737-0696
● 원고접수기간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e-mail : parkwonbum@yahoo.co.kr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 찰 안 내

● 위치 : 기도도량(의령)
● 대지 1000평
● 건물 목조법당 30평+ 10평+15평(3동) 요사 30평(공양간) 주차장 200평
● 산좋고 물좋고(계곡접) 전망좋은 기도도량 최고
● 양도가 : 2억8천만원
● 위치 : 양산(마당 넓은 절)
● 부지 500평 법당 30평
● 요사채 40평+20평 산신각 5평(목조)
● 5층탑 뒷산 아름다운 절 버스진입 가능, 주차장 완비 양명현 탁트인 전망
● 가격8억
부산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22
※부산 대형사찰 및 임법당 · 포교원 · 사찰부지 다량확보 1억에서 부터 세무상담 및 소유권이전 대행 무료상담 서비스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양평
● 법당 : 15평
● 요사 : 60평
● 부지 : 330평
● 가액 : 12억
● 위치 : 경북
● 법당 및 요사 : 70평
● 부지 : 220평
● 가액 : 2억
● 위치 : 서울
● 법당 : 28평
● 요사 : 38평
● 부지 : 170평
● 가액 : 10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남 함평군 대동면
● 대지 391평(사용가능 땅 600평) 대웅전 : 35평 요사채 방5개,부대시설 일절
● 영광불갑사까지 이어지는 산세
● 2억2천만원(절충가능)
010-6654-1600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두시지하철 2분거리 불교 도량 최적지
● 법당 25평, 요사25평, 대지 600평
● 가액 : 답사 후 절충
010-9798-1091
011-574-3303

사 찰 안 내

● 위치 : 밀양시에서 20분, 울산에서 25분거리
● 평수 : 321평
● 법당 21평,산신각,요사채, 컨테이너 박스
● 가액 : 3억
055)353-332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고령군 개진면
● 대지 120평
● 법당 15평 삼존불, 요사채
● 50년된 사찰로 국도변 5분거리 교통편리
● 가액 : 6천만원
010-2630-0192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시 달서구 두류1동
● 평수 : 35평 3층건물중2층 법당,방2,부엌,거실(총4칸) 단청시설되어있음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상담후 절충가능
011-847-5150

사 찰 안 내

천하절경 명당터 천연계곡접
● 위치 : 강원북부 영서지방, 서울에서 1시간 30분소요
● 1만여평 부지 중 대지 3000여평 전각10여동, 30억 이상의 가치
● 사찰연혁 3백여년
● 가액 : 17억원
http://blog.naver.com/mine4you
010-6304-5998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강북구 우이동
● 삼존불, 후불, 신중탱화
● 방2, 상담실, 주방, 최고급 시설
● 금 부처님, 목불 좌대
● 보증금 1천만원, 월70만원 시설비 3천만원
011-9725-3196
011-9108-5589

사 찰 안 내

● 신비의 바다 보배의 진도 (전남 진도군 내)
● 대지 : 2,500평
● 법당, 산신각, 요사채 전기보일러, 산세수려함
● 가액 : 3억 3천만원
011-9928-0005
061)544-048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조양동
● 법당 목조 18평, 종각, 요사채 40평 총 880평(대지 380평)
● 가액 : 4억 5천만원(시설비 포함) 전세도 가능
010-3112-3513

절터(급)안내

● 위치 : 경북 청도군 매전면
● 총평수 1706평
● 주변 산세가 수려하고 지세가 아주 좋아 명당절터자리임
● 가액은 2억 (답사후 절충가능)
011-9324-4732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진영읍 중구부락 210번지 금병암
● 평수 : 대지 총69평(일반주택)
● 법당 15평,삼성각2평,방4
● 가액:1억 3천만원
055)744-6188
010-4871-2745

사찰(급)분할,인수할분

● 위치 : 경북 고령군 국도변 대구에서 30여분거리
● 대지 약 600평, 건평 약 80평 법당 25평
● 삼존불 방7개,대형주차장 완비
● 노인요양시설신청, 추모사리불안치도 준비중
● 계약후 불사 협찬으로 장기 분할지불도가능한 좋은 조건임
● 양도가 : 융자 9700만원 포함 (찬조1억 양도인)2억6천만원 총액 4억 6천만원
053)471-3123
017-501-2315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횡성 IC 10분거리 이내
● 평수 : 5,800평
● 법당 3동, 요사채 5동, 창고 1동
● 가액 : 22억
010-8507-9909

포교원안내

● 위치 :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4층 건물 중 2층 약 45평
● 삼존불, 각단탱화 산신, 영가단
● 즉시 법회 가능
● 보증금 500만원,월 40만원 시설비 1500만원(절충가능)
031)405-418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북부 2개의 신도시 부근 노송우거진 풍치수려한 절
● 부지 630평(실사용 1000평이상) 법당 20평 요사채2동(100평,30평) 창고 2동 시설좋음
● 시청에서 차로 5분거리, 전철 개통 예정 포교수행의 최적지
● 가액 : 시세절반 상담후 절충가 주변 주택가 평당 1000만원에서 500만원선)
010-5290-3709

토 굴 안 내

● 위치 : 곤지암 IC 주변
● 대지 : 150평
● 법당 1,2층 요사채 100평
● 가액 : 2억 5천만원
018-330-5844

포교원안내

● 위치 : 전남 단양
● 법당 10평
● 수익성 사업체 가든 70평 포함, 주차장 500평
● 대로변 위치 최고 광주광역시 10분거리
● 합 5천만원
010-5262-5545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양천구 신정네거리역 3분거리 재래식 시장입구 6차선 대로변 횡단보도 앞
● 보증금 1천만원 월 70만원, 시설비 2500만원
● 몸만 오시면 됨
011-406-3659

지리산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산청 시천 중태리
● 대지 374평(실평수 약 600평)
● 법당, 요사,산신각
● 차실, 텃밭 760평 총 2800평
● 뒷산 홍송, 절옆 폭포
● 가액 : 2억8천만원(대출가능)
011-9393-4965

포교당 터 (임법당) 안내

● 위치 : 경북 칠곡군 왜관읍 낙동강변
● 대지 232평, 신축건물 60평(3년)
● 현재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주변경관이 사찰로 운영함이 좋을 듯 싶고 포교당으로도 적합함
● 심야전기시설. 주차시설 완비
● 가액 : 현 시가액에 맞지않은 3억2천만원에 인연맞는 분께 양도하려함
011-803-7448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관악구 신림1동 시장통
● 평수 : 40평 3층건물중 2층
● 즉시법회가능(10년운영중)
● 보증금 1000만원 월 80만원 시설비 1500만원
● 주지스님 건강문제로 급히 안내
010-4397-7772

절 받 으 소

● 위치 : 주왕산 국립공원內
● 평수 : 법당12평(목조) 요사채26평 산신각 2평 종교부지 340평 임야 1230평
010-7109-3281

사 찰 안 내

● 위치 : 의정부시 외곽
● 대지 56평(평당 400~450만원) 건평 23평
● 방 2, 주방 1, 법당 비구니스님 환영
● 12년 포교도량 스님건강상 양도
● 총가액 : 상담후 협의가능
010-4343-3115

포교당 안내

● 위치 : 기장 대변입구 3층건물중 2층
● 평수 50평
● 방4개 법당1 욕실구비 시설일체완비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 시설비 1200만원
010-4137-5413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대흥동
● 평수 50평 3층중 2층
● 법당 방3 해우소2 공양간 등 아파트식구조 모든시설 최상급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1300만원 (답사후 절충가능)
054)281-1147

포교당 안내

● 위치 : 기장 대변입구 3층건물중 2층
● 평수 50평
● 방4개 법당1 욕실구비 시설일체완비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 시설비 1200만원
010-4137-5413

포교원안내

● 위치 : 서대문구 홍은 1동 유진상가옆 대로변 3층
● 평수 : 22평(법당,스님방,후원)
● 삼존불상,대형후불탱화(5m), 신중탱화(2m)산신탱화, 인등, 범종 24관등 최상급 작품 각종 집기물 포함
● 시설비 2200만원 보증금 1500만원 월 50만원
011-274-3853

사찰(급) 안내

● 위치 : 안동 암산 유원지 테마 마을
● 대지 200여평 법당 28평
● 큰방3개, 비품 일절 양도
● 삼존불, 소불(240불) 각단탱화
● 관광단지조성계획지로 주변경관이 수려함
● 삼성각,지장보살(6m), 텃밭(80평) 시내 10분거리 주변땅으로 잔디조성
● 가액 : 1억 7천만원
054)858-9628~9
019-377-896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거창군 감악산(柑岳山)내
● 풍광 수려 대작불사 대가람 최적지
● 임야 4380평 유실수-감, 밤, 주목, 다수 관리지역"종교부지"허가 500평-현재대작불사중
● 법당 25평(예정) -다글라스 목재 구비 화엄성중전 10평 법당완축(알마시카목재) 지장전 15평, 관음전 15평, 요사 25평 (3채증축예정)
● 토목공사 완비 지주석-자연석 완비
● 요사 15평조립식(방4) 창고개조-5평(방사2) 전원주택 1동-건평 15평(방사2)대지100평 8평 조립식(방사2, 창고1)
● 원력 높은 스님 분께는 절충가능합니다 장난전화 사절
● 가액 : 4억 2천만원
010-5547-1518
010-4001-3415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서초구 양재동
● 평수 : 50평(5층)
● 법당, 방2, 사무실, 욕실, 주방, 시설완벽
● 보증금 및 시설비 5천5백만원
017-232-3389

사찰(터)안내

● 위치: 양산시 하북면 백복리
● 평수 : 700평
● 통도사 내원사에서 10분거리
● 가액 : 평당 50만원(절충가능)
011-558-6130
055)867-1610

사찰 암자 터 안내

● 위치 : 경북 영양 입암 양항 전320-1 입지 군도 접 약수터 개발지역 주변 상수도 자연수 세멘포장 도로접
● 가액 : 대지 100평 전 900평 평당 5만원

암자 별장 터 안내

● 위치 : 경북 영양읍 하원리 산 42-1 입지 읍소재2분 지방도 반변천 접 정남향 악산 암자터 약300평
● 가액 : 조경된 산 3800평 당1만원
영양읍 시방사 주지 덕월 합장
011-538-2211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전시 중구 대사동(국악문화회관 후문 건너편)
● 평수 : 90평(7층 건물중 7층 전체사용)
● 법당 : 40평(미타삼존불, 원불 200불, 인등 600개, 신중단, 영단, 연등)
● 주지실, 사무실, 상담실, 주방겸 공양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완비
● 보증금 4천만원, 월30만원, 시설비 5천만원(최상급, 절충가) 스님 급 사정으로 저렴하게 양도
042)252-5450/055)944-5450
011-649-0108

사 찰 중 개

● 위치 : 서울, 종로
● 부지 : 100평
● 법당 : 20평
● 요사 : 20평
● 가액 : 5억
● 전국 사찰 암자 급히 양도하실분이나 구입하실분 전화주세요. 만족을 드립니다. 성불하세요.
전국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소개합니다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연 락 처
부산지사	오 세 룡	051)632-0064 / 011-847-1211
대구지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6-813-8008
충청지사	혜철스님	043)732-5560 / 010-9422-8453
경남 동부지사	혜봉스님	055)353-1196 / 017-650-1196
경남 서부지사	영민스님	055)355-7472 / 011-9312-2228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384-3009 / 016-629-1508
전북지사	조 동 제	063)910-5199 / 011-9642-7733
영주지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1-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송찬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47>
(修習止觀坐禪法要)

제6장 정수행(正修行) ⑪

마음은 모든 인과를 조작

五作者 若作時應作是念 我今爲何等事欲如此作 若爲不善無記等事 卽不應作 若爲善利益事 卽應作 云何名作中修止 若於作時卽當了知因於作故 則有一切善惡等法 而無一法可得 則妄念不起 是名修止 云何名作時修觀 應作是念 由心運於身手造作諸事 因此則有一切善惡等法 故名爲作 反觀作心 不見相貌 當知作者 及作中一切法 畢竟空寂 是名修觀

다섯 번째는 '일'을 하며 닦는 지관에 대해 밝히고 있다. 예를 들면 물을 길고 나무를 나를 때나 손님을 맞이하고 보낼 때 등 일상적인 일을 하면서도 지관수행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작(作)이라는 것은 일의 조작을 의미한다. '작'이라는 한 글자는 실로 모든 선을 할 수 있는 으뜸이 되기도 하고, 만 가지 악을 일으키는 괴수가 되기도 한다는 점을 알아야만 된다.

따라서 수행자는 일을 하기 이전에 반드시 미세하게 추구하여 지금 현재 하려는 일이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인지, 이익이 되는 일인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이 일이 남에게 유익하면 용맹 정진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고 손해를 끼친다면 해서는 안 된다.

일을 하는 마음은 내적으로 육근에 있지도 않고, 중간으로 육식에 있지도 않고, 밖으로 육진에 있지도 않아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일을 하는 주체와 마음과 하는 일의 대상이 필경 공적하다고 여겨야 한다. 그 때문에 이를 관 수행이라고 한다.

또 마땅히 알아야할 것은 '조작'이라는 말은 그 세력이 매우 커서 인간 천상의 인과를 조작으로 인해서 이룰 뿐만 아니라 출세간으로서 사성(四聖)의 인과까지도 조작으로 인해서 생긴다는 점이다.

만일 조작이 아니라면 끝내 한 물건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마음이 지옥을 만들고 부처도 만들기도 하며, 생사로 유전하기도 하고 안락하고 오묘하고 상주하게도 하는데, 이 모든 것이 조작으로 이루어지며 다른 물건이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선과 악이 마음으로서 근본을 삼고, 마음은 조작의 근본이라는 점이다.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에 몸도 움직이고, 몸이 움직이기 때문에 경계도 따라서 움직인다. 만일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경계도 역시 움직이지 않는다.

옛날에 쇠를 다루는 장인이 있었는데, 그는 평생 쇠를 두들겨 병기를 만들면서 생활을 하였다. 이를 본 도인이 그를 민망히 여겨 "쇠를 한번 두들길 때마다 거기에 맞춰 나무아미타불을 염불하라"고 권하였다.

장인은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염불수행을 실천하여 오래토록 수행이 쌓여 공부가 성숙하게 되었다. 이를 두고 '물이 모이면 도랑이 이루어진다'고 하였을 것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임종할 때 "탕탕 쇠를 두드렸더니 쇠는 강철이 되었고 천하가 태평하니 나는 서방으로 가노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관찰해보면 염불하며 쇠를 두드리는 것이 즉시 지관을 수행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이러한 이치를 경솔하게 여기지 말아야만 한다.

六語者 若於語時 應作是念 我今爲何等事欲語 若隨諸煩惱 爲論說不善無記事而語 卽不應語 若爲善利益事 卽應語 云何名語中修止 若於語時 卽知因此語故 則有一切煩惱善惡等法 了知語心 及語中一切煩惱善不善法皆不可得 則妄念心息 是外修止

여섯 번째로 말을 할 때 지관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말해보겠다. 이른바 거친 말이나 미세한 말 등 이 모든 것이 제일의제로 되돌아간다는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일체 세간을 다스리는 언어와 희로애락은 실상의 이치와 서로 위배되지 않는다.

때문에 말을 할 때는 반드시 돌이켜 관조하여야만 이익이 매우 크다.

하지 않아야 할 말은 병 입처럼 입을 지켜 하지 말아야하고, 한마디의 말이라도 나라를 일으키고 백성들에게 복이 될 만한 말을 해야만 한다. 한마디의 말이 나라와 집안을 망치고 내 몸을 상하게 하고 생명을 잃게 한다면 하지 말아야만 한다.

마음 움직이지 않으면 경계도 움직이지 않아
한마디 말이 나라를 일으키고 망하게 하기도

공자는 논어에서 "한마디의 말이 나라를 일으킬 수도 있고 한마디의 말이 나라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였다. 또 "재앙은 입으로부터 나오고 병은 입을 따라서 들어간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다.

무엇을 말하는 가운데 지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하는가.

언어가운데서 지를 닦는 사람은 반드시 이치를 추구하여 말 때문에 일체 번뇌와 선악 등의 법이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한다.

일체 번뇌라고 하는 것은 어둡고 번거로운 법으로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뇌란시키는 것을 말한다.

번뇌가 많기는 하지만 세 가지 종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첫 번째는 견사(見思)번뇌인데, 이는 진여의 이치를 미혹해서 분별의 견해를 일으키고 경계를 맞이해서는 탐애의 생각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는 진사(塵沙)번뇌인데, 이는 중생 마음속에 망념습기가 허공에 떠도는 먼지와 같고 강가의 모래처럼 많은 것을 말한다.

세 번째는 무명(塵沙)번뇌인데, 이는 명료함이 없어 어두운 것을 말한다.

여러분이 알아야만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은 본래 청정한 유일대광명장(唯一大光明藏)으로써 이 세계의 이치를 남김없이 철저하게 관조하고 있는데, 중생이 전도망상 때문에 깨달음을 등지고 육진으로 합하여 본래 지니고 있는 실상의 오묘한 지혜가 변하여 무명흑암의 번뇌가 되어 자기마음의 오묘한 이성이 매몰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말을 할 때마다 지관을 수습해야만 한다.

대체로 지 수행은 미혹을 조복 받고, 관 수행은 좀 더 적극적으로 미혹을 타파한다. 삼지(三止)로서 미혹을 정지시키고, 삼관(三觀)의 지혜로서 공가중 삼제에 대한 미혹을 관조하여 타파한다. 근본삼지를 발현하여 자성삼제를 나타낸다면 본지 풍광이 철저하게 드러난다.

그러면 말하는 가운데서 지 수행은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말을 할 때 상대방을 관찰하지 말고 말하는 자신을 돌이켜 관찰하여 말을 하는 마음은 끝내 얻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으면 말하는 가운데 일체 선악 등의 법을 모두 얻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된다.

말하는 나의 주관을 떠나면 객관도 동시에 사라지게 되는데, 이와 같이 주관과 객관을 모두 얻지 못한다면 허망한 마음이 쉬게 된다. 이를 말하는 가운데 지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한다.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삼분(三分)

인능변(因能變)

식자증분 위에서 동시적으로 상견이분의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증분을 상견이분과 동일한 한 덩어리의 관점에서 과능변, 즉 현행계의 활동이라고 합니다.

또 알아야할 것은 일체의 심왕과 심소는 각자마다 상분과 견분과 자증분이라는 삼분[相見自證三分]으로 분석된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상분의 차별로 일어나는 우리의 인식활동이 바로 우주만상의 활동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활동하는 영역에서 종류별로 분별하면 심법과 색법 등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즉 자증분과 견분은 인식주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둘 다 심법에 소속되는 것입니다.

상분은 오직 인식대상경계일 뿐이기 때문에 이는 세간에서 말하는 물질현상계, 즉 색온에 해당됩니다.

유식학에서 주장하는 논리의 귀결점은 상분이 견분을 따라 동일하게 식자체분을 의지해서 변혁하였기 때문에 이는 바로 객관사물을 식자체로 귀결시키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만법유식이라는 논리적 성립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 우리는 앞에서 설명했던 심물(心物)현상은 과연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일어나는가 하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비록 상견이분이 동시적으로 자증분을 의지해서 일어난다고는 하지만 자증분은 상견이분을 대비해서 그 소의처(所衣處)로 붙여진 이름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증분과 상견이분은 동일하게 과능변, 즉 현행으로 활동하는 현상계의 모습일 뿐입니다.

과능변(果能變)

이러한 현상계가 어떻게 근거 없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때에 그에 대한 종자를 건립하여 과능변을 일으키는 그 근본으로써 인능변을 수립하였습니다. 즉 일체의 심왕과 심소와 상분의 삼분(三分), 즉 심물 만상법은 모두가 종자가 그 배후세력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능변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의지해서 과능변의 활동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들 종자는 제팔아뢰야식을 의지하여 그곳에 잠재해 있는 뭇 세력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능변의 현행활동으로 일어난다 해도 그것은 우리의 심식내적인 모습으로서의 우주만유의 활동일 뿐 우리의 심식밖에 따로 실재하는 사물, 즉 실아실법은 아닌 것입니다.

■정리=張如舟

공 고
형님을 찾습니다
◆직업 : 조계종 승려
◆옛 주소 : 종로구 효자동
◆서울 청운국민학교 졸업생
형님, 강산이 두어번 바뀌었습니다.
눈앞은 넓은 바다요,
조용한 곳입니다.
옛 모습 그리며 사자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금생이 아니라면, 내생에 뵙지요.
돌아보니 다 미몽이대요.
ksosing@naver.com
속명 : 박용민

(株)天星建設
석·납골당
석·굴법당 전문
석·납골당 조성공사
석·굴법당 조성공사 전문
석·축대 및 보수공사
석·저장실, 보관실(과일)
석·까다로운 석·길공사
석 파는 공사 전문 업체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1구 260-1
전 화 041)331-6863~5
팩 스 041)331-6862
핸드폰 010-4035-3354

간 건강해야 장수할수 이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깨끗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 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에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주문하시면 (생산) 달여 드립니다. 참 다슬기 농축액은 주문(생산) 달여들이며 주문시 기간은 3일~4일 걸리오니 참고하시고 주문해 주세요!
상담 (055)963-9583
문의 (055)355-5626
산마을 토종(민속농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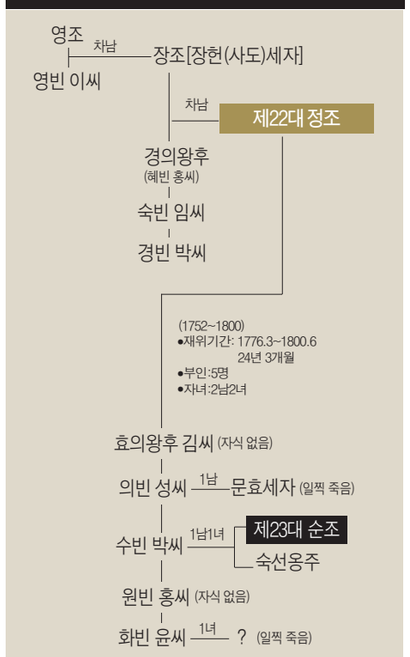
매일경제신문 인체경영학 연재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

아버지 사도세자의 초라한 죽음 화려하게 복원

㊾ 22대 정조, 효의왕후 – 융릉 (1)

정조 1752년~1800년(49세)
재위 24년 3개월.
1776년 3월(25세)~1800년 6월(49세)

제 22대 정조 가계도



건릉(健陵)

건릉은 조선 22대 정조와 그의 부인 효의왕후 김씨의 무덤이다. 경기 화성시 태안면 안녕리 1-1에 있다. 융릉과 함께 사적 206호. 정조는 효성이 지극하였으며 많은 인재를 등용하고, 조선 후기의 황금문화를 이룩하였다. 건릉은 현륭원의 동쪽 언덕에 있었으나 효의왕후가 죽자 풍수지리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서쪽으로 옮기기로 하고 효의왕후와 합장하였다. 무덤은 한 언덕에 2개의 방을 갖추었으며 난간만 두르고 있고, 그 외의 모든 것은 융릉의 예를 따랐다. 혼이 앉는 자리인 혼유석이 하나만 있으며, 융릉과 같이 8각형과 4각형을 조화시켜 석등을 세웠다. 문무석은 사실적이며 안정감이 있는 빼어난 조각으로 19세기 무덤 석물제도의 새로운 표본을 제시하였다. 융건릉 – 면적 83만9669㎡ (25만4000평)

"경들은 똑똑히 들으시오.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입니다."

화려한 즉위식을 마치고 처음 주재하는 어전회의에서 정조가 내뱉은 첫 번째 선언이다. 대신들은 경악했다.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노론은 숨이 멎는 것 같다. 비단천의 핏자국을 확인한 연산군이 광란의 칼을 휘둘렀던 250년 전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다.

내면을 숨기고 살아온 와신상담(臥薪嘗膽)의 결과가 어떠리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금방이라도 땅이 갈라지고 하늘이 내려앉을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든다. 지금 용상에 앉은 이는 어제까지 세손이었던 인물이 아니라, 14년 전 좁은 뒤주 속에서 비참하게 질식사한 사도세자가 다시 살아나 앉아 있다는 착각마저 든다.

사도세자가 뒤주 속에서 질식사한 후 세손 정조는 효장세자의 아들로 입적되었다. 세손은 이미 34년 전에, 10세로 죽은 효장세자의 아들로 살아야했다. 영조는 수시로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고 확인했다.

15년간 그렇게 살다가 이제 친아버지를 찾았다. 양주 배봉산 기슭에 초라하게 묻혀 있는 사도세자를 세상 가운데로 끌어내는 순간이다. 당연한 말,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 이전까지 사도세자라는 이름은 금기의 대상이었다. 온 나라가 연좌제에 걸려 있었다.

정조는 그 사슬을 풀기 시작했다. 즉위 열흘 후, 사도세자의 존호를 장헌세자(莊獻世子)라 올리고 배봉산 기슭에 외롭게 방치된 무덤의 묘호를 영우원(永祐園), 사당은 경모궁(景慕宮)이라 높였다. 정조는 매년 영우원에 참배했다. 비로소 사도세자는 금기의 대상에서 국왕의 아버지가 되었다.

그는 아버지 사도세자를 죽이고 세손마저 끌어내리려고 온갖 음모를 자행했던 무리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홍인한 등과 결탁해 자신을 제거하려 했던 화완옹주(정조의 고모)의 양아들 정후겸을 귀양보내고, 화완옹주는 서녀로 강등시켰다. 홍인한, 홍상간, 윤양로 등도 제거했다. 영조의 후궁 숙의 문씨의 작호를 박탈해 사저로 내쫓았다. 문씨는 할아버지의 후궁이었기에 목숨만은 보존해주려 했으나 대신들과 삼사(三司)가 거듭 상소를 올려 결국 사약을 내렸다.


정조의 건릉 전경.


정조가 부친의 능을 참배하는 장면을 재현하고 있다(사진 왼쪽). 군복입은 정조.



최고 명당자리 수원 용복면에 사도세자 능역 조성
승하할 때까지 12차례나 참배 위해 현륭원 방문

정조의 가장 큰 고민은 외조부 홍봉한의 처리문제였다. 사도세자를 죽인 주범이 홍봉한이라는 것은 공인된 사실이었다. 형조판서 이계, 성균관 유생들까지 홍봉한을 처벌해야 한다고 나섰다. 홍봉한의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는 군신상하가 편히 잘 수 없다고 주청했다.

그러나 정조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면 어머니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딜레마에서 고민하다가, 결국 용서의 길로 가닥을 잡았다. 대신 아버지 사도세자를 화려하게 복원하는데 전력을 기울였다.

정조 13년(1789) 10월4일, 사도세자의 영구(靈柩)가 양주 배봉산에서 수원으로 가는 날이다. 비참하게 죽은 지 27년 만에 벌어진 화려한 행차다. 목적지는 수원 용복면(龍伏面)에 있는 화산(花山)이다. 지명조차 예사롭지 않다. 왕릉이 입지한 곳은 명당 아닌 곳이 없다. 택지할 당시 최고 명당을 찾는다. 물론 정성의 차이는 있을 것이다. 정조가 아버지에 대한 지극정성을 누가 따르겠는가. 그래서 경기도 이천에 있는 세종의 영릉과 함께 국내 최고의 길지로 꼽히는 곳이 수원 화산의 융건릉이다.

"화산이 왼쪽으로 돌아 서북쪽(乾方)으로 떨어져서 주봉우리가 되고, 서북쪽의 주산(主山)이 서북과 북쪽 사이(亥方)로 내려오다가 북쪽(癸方)으로 돌고, 다시 북동쪽(丑方)으로 뻗어오다가 동북쪽(坤方)으로 바뀌면서 입수(入首)합니다. 앞에 쌍봉이 있는데 두 봉우리 사이가 비었고, 안에 작은 언덕이 있는데 그 형상이 마치 구슬 같습니다. 청룡 네 겹과 백호 네 겹이 에워싸 지세가 만들어졌는데, 혈(穴)이 맺힌 곳은 마치 자리를 깐 것처럼 펑퍼짐합니다. 뻗어온 용의 기세가 700리를 내려왔는데 용을 보호하는 물이 모두 뒤에 모였으며 현무(玄武)로 입수했으니 천지와 함께 영원히 더할 수 없는 길지(吉地)입니다."

당시 명성 있는 지관들의 한결같은 말이다. '용이 엎드린 곳(용복면)'이란 지명도 예부터 길지라는 증거다. 능역을 조성하는 작업도 남달랐다. 능지로 택지되면 민간의 집이든 묘든 군말 없이 철거해야 하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다.

백성들의 원성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했다. '사도세자의 묘를 이전하는 것은 백성들의 고통이 아니라 축제여야 한다. 민심이 즐거워야 내 마음이 편하다'는 확고한 소신이 있었다. 철거되는 민가에는 내탕금을 내려 땅값을 넉넉하게 보상해주고 새 집 지을 자금까지 주었다. 전무한 일이니 이주하는 백성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정조는 사도세자가 묻힌 곳을 현륭원이라 이름짓고 이장 후부터 승하하기 전까지 열두 차례나 참배했다. 요즘 같으면, 대통령이 서울에서 수원까지 이동한다는 것이야 뉴스거리도 안 되지만 당시는 거국적인 행사였다.

어가를 따르는 인원이 6000명이 넘고 동원된 말(馬)이 1400여 필이다. 뚝섬에 띠배를 엮어 한강을 건너고 말죽거리, 과천을 거쳐 수원 화산에 당도한다. 정조의 잦은 능행은 참배의 목적과 함께 왕실의 위엄을 과시하여 노론 세력의 기를 꺾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능의 조성과 함께 정조의 머리속에는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다. 팔달산 아래가 큰 고을이 들어서기에 적합하다는 보고를 받았다. 현륭원이 있는 수원에 행궁을 설치하고 정조17년에는 수원을 유수부로 승격시켰다. 그리고 수원에 화성 행궁을 건립했다.

화성 행궁은 모두 555칸이나 되는 최대 규모의 행궁이다. 이어서 현륭원과 행궁을 보호하기 위해 정조 18년 2월~20년 9월, 화성(華城, 수원성)을 완성했다. 대단한 추진력이자 효성이다. 정약용의 거중기가 축성작업에 위력을 발휘했다.

글=이우상(소설가 asdfsang@hanmail.net),
사진=최진연(사진작가)

이 름	나 이	신장	학 력	직 업	주소지
정영식	1964년생	170	고 졸	공 무 원	서 울
임용우	1966년생	174	고 졸	자 영 업	청 주
노해용	1972년생	173	고 졸	C E O	청 주
이준우	1964년생	168	고 졸	회 사 원	대 전
김현태	1957년생	173	고 졸	회 사 원	대 구
조복재	1965년생	180	고 졸	일반전문직	구 미
임태빈	1981년생	180	대 졸	공 무 원	서 천
김기엽	1969년생	180	전문대졸	자 영 업	서 울
홍봉표	1967년생	180	전문대졸	회 사 원	경기고양
최명길	1974년생	165	고 졸	회 사 원	경기시흥
오상택	1965년생	165	고 졸	회 사 원	경기부천
한용석	1975년생	167	고 졸	회 사 원	부 여
최경복	1971년생	174	고 졸	회 사 원	전 주
이정배	1966년생	172	고 졸	회 사 원	충북영동
임형준	1973년생	176	전문대졸	회 사 원	대 전
이영근	1976년생	165	대 졸	회 사 원	대 전
김대중	1974년생	173	대 졸	회 사 원	경기용인
정화섭	1960년생	175	대중퇴	공 무 원	경기이천
이동희	1972년생	180	대 졸	회 사 원	경북예천
강정복	1965년생	170	고 졸	자 영 업	인 천
정지영	1974년생	174	중 졸	회 사 원	수 원
임인갑	1974년생	165	고 졸	회 사 원	대 구
이현철	1972년생	175	방통대재	금 융 직	서 울
김종희	1963년생	163	고 졸	회 사 원	서 울
이영일	1965년생	165	대 졸	회 사 원	강원태백
박종구	1972년생	175	고 졸	회 사 원	경기안양
최용상	1970년생	170	방통대재	공 무 원	서 울
이동원	1970년생	172	대 졸	회 사 원	서 울
남정대	1971년생	173	고 졸	회 사 원	경북구미
육근성	1970년생	185	전문대졸	회 사 원	충북옥천
박이수	1960년생	168	중 졸	회 사 원	경기수원
배영순	1956년생	150	대중퇴	자 영 업	경기화성
오성택	1970년생	165	고 졸	사업예정	경기부천
변희섭	1965년생	174	고 졸	회 사 원	경북구미
김대환	1973년생	172	대 졸	학원실장	광주광역시
김창영	1970년생	163	대 졸	복 지 사	충주시
박영학	1967년생	170	고 졸	회 사 원	고양시
홍진석	1968년생	167	대 졸	시설관리	부천시
조성현	1969년생	170	전문대	회 사	서 울
배병언	1967년생	169	대 졸	회 사	부 산
전남진	1972년생	172	전문대	치기공사	서 울
이규안	1970년생	165	대 졸	건 설 사	광주시
이광표	1968년생	168	고졸자	영 업	서 울
권순석	1978년생	171	대 졸	건 설 사	경기도
박영규	1966년생	182	고졸자	영 업	전주시
문윤종	1970년생	163	고졸자	영 업	광주시
김길성	1975년생	175	전문대	공 무 원	대 전
민의식	1969년생	172	고 졸	회 사 원	부 산
최정우	1978년생	178	대 졸	건 설 사	서 울
노금광	1972년생	162	고 졸	회 사	진해시
정연종	1959년생	165	고 졸	공 무 원	충 남
오세준	1975년생	175	고 졸	회 사	경기도
박헌득	1964년생	163	고 졸	회 사	서 울
임상훈	1973년생	172	대 졸	회 사	경기도
연길호	1973년생	175	대재학	공 무 원	경기도
박성준	1965년생	169	고 졸	회 사	대구시
박준규	1971년생	170	대 졸	건 설 사	제천시
최용우	1962년생	164	고 졸	자 영 업	홍성군
조현욱	1972년생	166	고 졸	조 리 사	경기도
김진묵	1969년생	170	고 졸	공 무 원	충 북
김재원	1966년생	175	고 졸	회 사	대 구
서종은	1971년생	170	고 졸	회 사	경기도
이건우	1971년생	173	대 졸	자 영 업	경주시
박천수	1975년생	160	전문대	발전공사	강원도
모용구	1973년생	175	대학원	교 육 직	경기도
박대식	1974년생	177	대학자	영 업	충 남
최병익	1974년생	176	고 졸	회 사 원	서 울
김진혁	1964년생	160	초 졸	회 사 원	경기도
정지민	1970년생	162	고 졸	회 사 원	대 전
정일도	1967년생	165	고 졸	회 사 원	서 울
박선준	1974년생	175	대 학	회 사 원	인 천
진인덕	1965년생	157	대 학	농 업	경 북
연태현	1973년생	182	고 졸	회 사 원	서 울
전홍배	1979년생	170	대 졸	자 영 업	대 전
박정은	1972년생	168	대 졸	학원강사	충 북
강충남	1973년생	160	고 졸	회 사 원	전 북
손종헌	1971년생	172	고 졸	회 사 원	경기도
김대수	1973년생	170	대 졸	교 육 직	서 울
장천석	1965년생	175	고 졸	회 사 원	서 울
안상기	1966년생	185	고 졸	공 무 원	충 북
정우철	1974년생	175	대 졸	회 사 원	충 북
김윤구	1979년생	170	대 졸	회 사 원	경 기
정효승	1975년생	170	대 졸	회 사 원	대 전
유준호	1971년생	176	대 졸	회 사 원	서 울

현대불교신문 구독자
인연찾아주기

[캠페인 PR] "아름다운 인연 찾기" 공개 구혼

현대불교신문 독자님들을 위한 인연 찾기 캠페인입니다.
부처님 제자로서 서로 아끼고, 함께 닦아 갈 인연을 찾습니다.
오랜 인연의 기다림으로 여성 불자님들의 전화를 기다립니다.

현대불교신문 충청지사 대성사 주지 혜철

주관 현대불교신문 충청지사 지사장 혜철스님 충북 옥천군 옥천읍 교통리 297-4 대성사
전화 | 043)732-5560 / 010-9422-8453 팩스 | 043)732-5520
홈페이지 | www.dss.or.kr 다음카페 | cafe.daum.net/dasungsa



생활 속에서 참다운 인간의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사세요!

(지난 호에 이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공했다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만약에 우리가 '이놈이 뭣고?' 하고 화두를 잡고 한다면, 내가 바로 화두인데도 불구하고 화두를 또 거기다가 붙여서 잡고 있다면 몇백 년이 가도 나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시대에 따라서 공부도 하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노인네들 공부하실 때는 뭐 조선어니 뭐니 해서 과목이 몇 가지밖에 없었죠? 지금 보세요, 어떤가? 예전에는 무명옷을 입고 명주옷을 입었는데, 지금은 무명옷 입은 분이 하나도 없네요. 이렇게 시대가 바뀌어지는 대로 우리는 마음의 촛불을 켜고 앞장서서 밝게 중용을 하면서 나갈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불법이지 어디 따로 불법이 있겠습니까?

법당에 가면 법당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 부처의 형상과 나의 형상이 둘이 아니요, 부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니요, 그 생명과 내 생명이 둘이 아닌 고로 일체 만물만생이 다 둘이 아닙니다. 왜 부처님께서 뼈 무더기를 보고 그렇게 삼배를 올렸겠습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은 "사생자부(四生慈父)이신 당신께서 어째서 거기다가 예배를 합니까?" 하니 그것도 여러분 잘 알아들으셨겠지요? "이것이 바로 내 할머니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느니라. 억겁을 거쳐 오면서 그렇게 살아왔느니라. 그런데 나를 따라다니면서 너희는 아직도 그걸 터득을 못했다면 어찌하겠는고!" 하고 말씀하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미생물에서부터 진화돼서 모습을 바꿔 가면서 거쳐 왔다는 것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아! 이것 참 어렵겠는데' 하고선 '이것이 좋겠다, 키가 크다 키가 작다, 다리가 길다 다리가 짧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는 반드시 그다음에 나올 때는 생각한 대로 나올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한생각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 한생각이 진화를 시키고 그 마음에서 진화력이 조달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나서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무엇이 됐었는지 그것도 모르기 때문에 남을 항상 깔보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을 뿐더러 자기를 자기가 무시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나는 모르니까, 나는 중생이니까' 이렇게 말입니다. 파리가 구더기를 모르고 구더기가 파리를 모르듯이 말입니다. 파리가 전자에 구더기였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 뱃속에 구더기가 들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자기가 전자에 구더기였다는 걸 알게 된다면 자기 뱃속에 구더기가 없을 겁니다. 사람들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경향이 생긴다고 봅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요런 말을 한 번 더, 재차 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가환과 병고와 가난에 찌들어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몸을 깨끗하게 씻고 먹는 것도 가리고 잠자리도 가리고 온통 여러 가지로 가리면서 석 달 열흘을 기도를 하고 인등을 켜고 이렇게들 합니다. 몸뚱이를 아무리 씻어 봤던들 마음보다 더 깨끗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봐야 하고, 그렇게 하는 동안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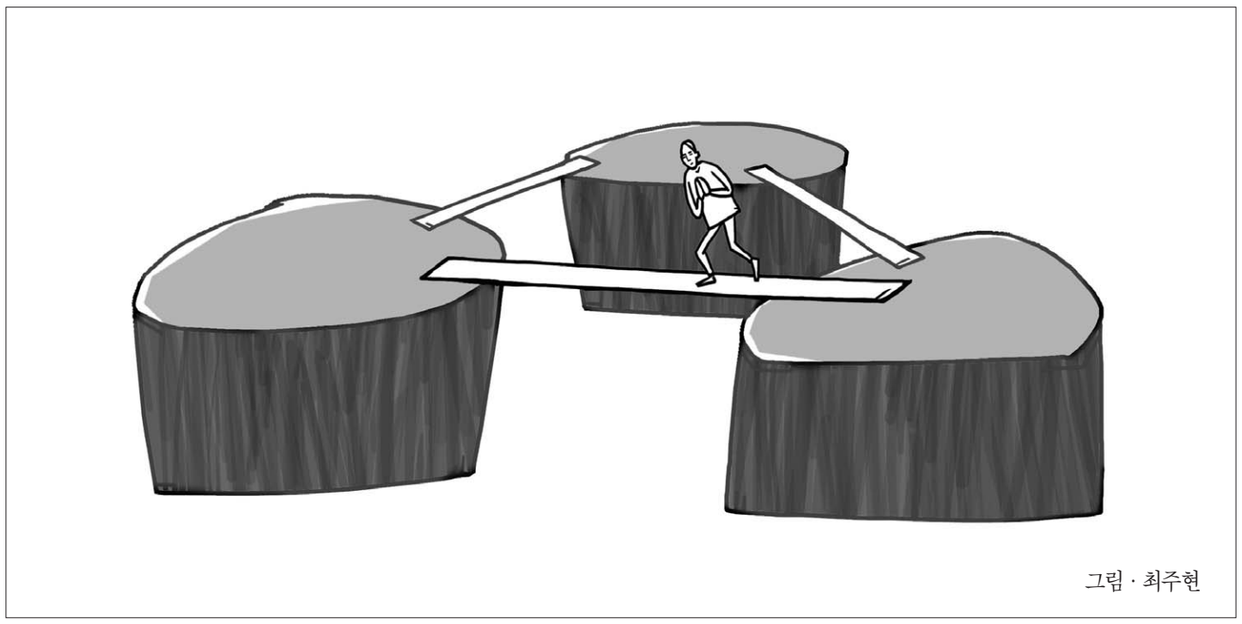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남편을 굶주리게 하고 가족도 굶주리게 하고 애들도 굶주리게 해서 나쁜 길로 가지나 않을까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마음 자체를 그렇게 일심으로써 주인공 안테나에 맡겨 놓고, 병고에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아! 거기에서 나온 거니까 거기서 해결할 수밖에는 없는 것이지.' 하는 믿음을 진실하게 가지고 물러서지 않았을 때 그 병고를 그냥 그대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가난도 그렇고 모든 게, 일체가 다 그러하니 여러분이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무명에 묻혀 있는, 땅속에 있는 보배와 같다고 해서 지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땅속에서 금을 찾아서 바깥으로 캐내서 광을 내야만이 빛이 나죠? 그와 마찬가지로 내 마음 무명 속에 묻혀 있는 그 보배를 바로 지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것을 발견한다면 바깥으로 광명이 나가니 그게 관세음입니다. 자기가 행하는 일체가 스스로 보살행이 되게 되니까요. 자기가 하려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 스스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스님네들이 250계나 348계를 지키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도 상식적으로나 교양적으로나 모든 이치에 맞게 스스로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다 이겁니다.

참으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그 뜻이 무엇인가? 부처님 이전에 단군께서 가르치신 천부경 그 81자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이 잘 음미해 보신다면 불법이 얼마나 광대무변하고, 우리들이 살아나가는 이치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즐겁고 환희로우며, 내 마음 하나에 의해 일체가 자유스럽게 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바로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지구가 어디로 돌아가는지도 모르면서 지구 배에 타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뱃속에 들어 있는 중생들도 우리가 지금 부산을 가는지 제주도를 가는지 여길 왔는지 저길 갔는지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끌고 가는 선장이 한마음의 안테나를 세우고 '야! 너하고 나하고 둘이 아니다. 너밖에는 나를 튼튼하게 할 수 없어. 네가 건강하고 네가 회전을 잘해 줘야 내가 건강하지 않겠느냐? 너를 끌고 다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다면 참, 그냥 뭐 회전을 잘해 주지요. '아하! 지금 여기 가고 있구나!' 하고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좋은 법이죠.

이거는 과학으로도 해명 못하고 의학으로도 해명 못하고, 이건 어떤 것으로도 못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내가 그 점을 지난번에도 얘길 했지만, 정자 난자에 의해서 영원한 자기 자체가 태어난다 이겁니다. 거기에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왜 자식들이 부모들과 성격도 닮고 모습도 닮고 그런 줄 아십니까? 정자 난자의 그 뜻을 받아서 몸을 빌려 가지고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수십억 마리가 다 없어지면서 하나를 뽑아 놓는 겁니다. 뽑아 놔 가지고서는 물질은 다 없어지고 심령은 그 하나 뽑아 놓은 데 다 접합니다. 인연 따라서 만난 몸이기 때문에 다 그 몸뚱이로 합쳐져서 세포 세포에 자기 소임을 맡아서 바로 한 집으로 듭니다. 그래서는 정자 난자의 그 뜻을 받아서 몸뚱이를 키우는 것이니, 아버지 어머니의 그 혜택으로 인해서 몸뚱이를 다 받게 된 것이라 그것도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애들은 "왜,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왔어? 나를 낳아 놓고 내게 해 준 게 뭐 있어?" 이렇게 한대요, 글쎄. 그런데 그렇게 몸과 마음과 피와 살을, 그리고 의식까지도 차원까지도 받아서 나옵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모이는 거죠. 그래서 그 몸뚱이 속에서도 끼리끼리 인연 따라서 나한테, 즉 한 집으로 들어서 소임을 맡아 가지고 나를 운행을 해 주는 거죠. 그런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몸뚱이, 수많은 몸뚱이를 운행해 주는 것도 부모의 그 몸뚱이를 빌려서, '그 몸뚱이를 빌려서'가 아니라 그 몸뚱이가 그 몸뚱이입니다. 그러니까 2세의 아버지고 2세의 어머니죠. 그러니 그게 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을에 단풍이 들어 낙엽이 졌다고 그래서, '아! 허무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자기를 낳아 놓고 자기가 옷을 벗고선 그 밑으로 또 나오는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그러니까 죽는 것도 없고 사는 것도 없습니다. 마음이라는 건 죽는 것도 없고 사는 것도 없습니다. 마음이 불 속에 들어가도 뜨거울 것도 없고 물 속에 들어가도 빠져 죽을 것도 없고 찬 것도 없고 뜨거운 것도 없어요. 이 마음이라는 건 무한대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그 도리를 아신다면 여러분은 가정이나 몸뚱이나 참 편안할 겁니다.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유마힐 거사가 병을 앓고 있으니까 모두 병문안을 갔거든요. 병문안을 가서 "편찮으셔서 어떡하느냐, 어서 나으셔야지." 하니까 뭐라고 그러냐 하면 "중생들이 다 나아야 내 병이 낫노라!" 이러더랍니다. 우리가 당장에 그것을 모른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지금 각자 자기 몸뚱이 하나를 보세요. 유마힐 거사가 말한 게 재깍 나오죠. 아니, 글쎄 이 뱃속의 내 중생들, 그것들이 회전을 깨끗하게 다 잘해 주고 건강해야 내 몸이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 중생들이 다 나아야 내가 낫죠.

그러니 참말로 불법이라는 이 자체가, 가면 갈수록 이 세상 이치가 어쩌면 그렇게 묘하고 광대하고, 알면 알수록 그렇게 떳떳하고 바다로 물 흘러 내려가듯 너무나 신비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몸을 가지고 나와서 만약에 이 도리를 모르고 간다면 또다시 윤회에 끄달리면서 사생을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짐승이 됐다가 사람이 됐다가 벌레가 됐다가 이렇게, 좌천했다가 승진했다

☞26면으로 계속

한국불교 비구니계의 산 역사!
광우 스님의 출가 70년, 포교 50년 이야기

교보문고 추천도서



전국비구니회관 건립 당시 85억을 쾌척했던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과의 인연이야기
일제 강점기 출가했던 도반들의 이야기
비구니로서는 최초로 4년제 대학에 입학했던 이야기
한국불교 비구니로서는 최초로 조계종 명사법계를 품서한 이야기 등
살아 있는 한국불교 비구니계의 역사를 담았습니다.

부처님 법대로 살아라

광우 스님과의 대담 인터뷰 최정희(전 현대불교 편집국장) | 조계종출판사 | 396쪽 | 14,800원

광우 스님은 이 책에서 "한 번도 평범하게 사는 삶이 부럽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야말로 수행자의 표본이다. – 「조선일보」

광우 스님의 출가 70년 이야기는 굽이굽이 새긴 한국 비구니史 그 자체다 – 「한국일보」

종단에서 비구니의 위상이 일천하던 시절 출가해 '나 한몸부터 제대로 살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흐트러지지 않는 수행 본분을 지켜온 한국 비구니계의 산증인 광우스님의 회고록 – 「서울신문」

일제 말기 여승들이 정신대로 끌려가지 않으려 환속하거나 심지어 은사 스님들의 강권으로 결혼해 뿔뿔이 흩어지자 혼자가 돼버린 이야기 등 첫 장부터 가슴을 애잔하게 한다. – 「세계일보」

광우 스님 수행 · 포교 이야기로 불교에 대한 전문 지식 없이도 쉽게 읽을 수 있다. – 「매일경제」

동국대 불교대학에 입학하고 남자 옷 차림으로 대학을 다닌 일 등 다양한 일화가 담겨 있다. – 「한국경제」



『조계종출판사』는 삶의 곳곳에 존재하는 불교의 향기를 한 권의 책으로 소중히 담아내겠습니다.

110-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5번지 동일빌딩 8층 | Tel 02-733-6390 | Fax 02-720-6019 조계종출판사 아름다운 인연

buddhanews.com

말로만 배우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 이익이 없어요

☞25면에서 계속

가 이렇게 하고 또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람이라고 해서 사람으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고정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천당도 이 자리에 있고 지옥도 이 자리에 있죠. 바로 우리 마음이 옹졸하고 불이 치밀면 그것은 화탕지옥이요, 그것을 다 놓고서 평안하게 '내가 이런다고 해서 이렇게 불이 나게 하면 되나! 모든 게 내 탓이니까 바로 주인공 당신밖에는 해결을 못합니다.' 하고선 탁 놓았을 때, 방하착 했을 때 바로 보살의 마음이요 바로 자비스런 부처의 마음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저 집에 들어가면 참 아주 복잡하지 않고 좋아.' 하고 돈도 올 거고 가난도 없어질 겁니다. 화목해야 가난이 없어지는 거지 화목하지 않고 만날 싸움이나 하고 그러는데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그것들도 다 생명이 있는데 말입니다. 눈이 있어요. 돈도 눈이 있고 생명이 있고, 좋은 데 알고 나쁜 데 알아요. 그러니 돈뿐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감사한 줄 알아야 해요. 이 세상에 지수화풍이 없으면 여러분은 한자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몸뚱이도 지수화풍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두가 둘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주 개공을 맛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도 물과 불과 흙과 바람이 아니라면 없었을 테니까요. 이 찻잔도 지수화풍으로 인해서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고교하게! 찻잔이라고 이름을 가지고서 이 세상에 출현을 했다 이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앞으로 점점 가면 점점 더할 거예요.

기독교에 십자가 붙인 거 많이 보셨죠? 우리라고 그렇게 못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법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저 이 도리를 열심히 배워서 법사의 자격을 따 가지고 법전만 들면 어디 가서 법륜 마크를 걸고라도 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법입니다.

여기 부산의 여러분도 그렇게 해 보십시오. 지금 서울에 교육원을 설립했습니다. 엊그저께 개원식을 했습니다. 젊은이들을 키워서 법사 자격증을 줘서 국내에서나 해외에서나 이렇게 신비하고 좋은 우리 불법을 포교를 한다면 그것을 갈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원을 설립한 겁니다. 요번에 법전이 나오면 여기 부산에도 교육원 설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될 수 있으면 젊은이들이 좀 더 열심히 해서 대구니 어디니 방방곡곡에 법륜 마크를 걸어 놓고 이 마음 법을 전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말하자면 모든 샘터에 샘물이 나오게 해서 그대로 자기가 퍼 먹을 수 있게끔 이끌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보살행이며 그것이 법신이며 화신입니다. 그런 문제는 말로만 하거나 이론으로만 한다면 아무리 알아도 소용이 없어요! 실천으로 옮기고 행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말로만 이렇게 하고 실천을 옮기지 않는다면 아무 이익이 없어요. 나는 실험을 해 보고, 내 몸뚱이를 수천 번 던져 보고 수천 번 칼로 찔러 보고, 이렇게 해서 얻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얻은 것을 여러분한테 전달하는 겁니다. 실험을 해 보지 않고 책으로만 봐서 남의 말을 듣고 한다면 천만의 말씀이야! 지금 내 이 모습을 가지고 아주 거짓 없는 진실한 말만 하고 살아도 얼마 안 있어서 이게 단풍 들어 떨어질 텐데 이 몸뚱이 가지고 얼마나 살겠다고 거짓을 해요? 한마디 잘못하면 그게 부처님 법에 누가 되는, 한데 떨어지는 말이요, 한마디 거짓을 안 한다면 우주간 법계에서 알고 있는 거거든요. 벌써 내가 한 마디 거짓을 하면 그것을 감추려고 백 마디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거짓말을 하면 이 뱃속에 수십억 마리가 다 알게 되지요? 음파를 통해서 벌써 법계에서 허공에서 다 알게 되지요. 그러니 내 꼴이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 거짓말하려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거짓 없이, 우리 생활 속에서 참다운 인간의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사세요. 하늘이 무너진대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사는 그 삶의 참보람을 느껴 보세요.

지난번에 미국 산호세에 가니까요, 거기가 이천 평이 조금 넘어요. 그래서 거기 밭에 있는 풀을 전부 긁어냈어요. 거기에다가 또 거름을 끼얹고 그냥 기계로 갈아 버렸어요. 갈고선 어떻게 했느냐 하면 감나무 한 백 주를 심었어요. 그래 가지고 밭에 흙 안 묻히고 스위치만 틀면 감나무 하나하나에 물을 주게끔 파이프를 전부 놨어요. 이렇게 해 놓고 또, 울타리 나무 있죠? 여기선 그런 나무를 볼 수가 없어요. 이파리 하나 쳐지지 않는 덩어리 나무 있죠? 그것이 울타리나무라나요? 그거를 한 백 주 넘게 사서 뺑 둘러 가면서 전부 심었어요. 그렇게 하고 또 다른 과실나무도 조금 심고요.

그렇게 하고 있다가 뉴욕에서 말입니다, 길에 나가면 병을 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백납이니 백혈병이니 에이즈병이라나 뭐 그거, 또 요새 유행되는 게 무지하게 많아요. 뚱뚱해서 걸음을 못 걷는 병도 있어요. 허, 참 내!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섯 여섯을 하나로 뭉쳐 놔도 아마 그렇게 뚱뚱하진 않을 거예요. 휠체어를 타고 다녀요, 휠체어! 내가 가만히 볼 땐 먹는 거 때문에 그러리라고 봐요.

어느 식당에 한번 들어가니까요, 글쎄 이렇게 뚱뚱한 사람이 뭐를 가지고 들어가느냐 하면, 큰 접시에다 고기를 한 접시 야채 한 접시 또 아이스크림이 한 접시 또 닭 한 접시, 네 접시를, 허허, 글쎄 혼자서 가져가기에 나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죠. '아! 여러 사람이 오니까 뷔페식으로 저렇게 갖다 놓고 덜어 먹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우리는 거기 구경하자고 들어가서 아이스크림하고 야채하고 먹는데요, 고 조그만 것도 배가 부른데 아이, 나중에 보니까 그걸 다 먹었어요, 글쎄. 하하하, 너무나 깜짝 놀란 거 있죠? 그러니 몸뚱이가 그렇게 안되느냐는 얘깁니다.

그래서 요새 일본 사람들이 아주 한 등 올라선 게 뭐냐 하면 일본식으로 스시나 야채를 튀겨 놓는 거, 이런 걸로 아주 붐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오셔서 나만 얘기하게 하지 말고 질문하실 게 있으면 질문하세요. 잘못된 게 있으면 '이런 거는 불법에 어긋난 게 아니냐?' 하고 얼마든지 항의하셔도 저는 그냥 받겠습니다.

질문자1(남)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큰스님 제가 이날까지 수없이, 설법이라기보다는 제 나름대로 경험한 대로 말씀을 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얼마나 오래 지났는지 모릅니다. 그런 자료들을 읽고 보고 들으시면서 각자가 스스로 공부를 하셔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태어나셨으니까 선생님이 화두고 선생님이 근본이라고요. 그것이 지수화풍의 근본이요, 지수화풍 속에 바로 나의 중생들이 그렇게 많고 한마음으로 그렇게 돼 있고 나를 회전시켜 주고…. 그러니까 바로 부처는 당신한테 있으니 주인공 안테나를 꼭 믿고 내면세계를 믿으라고요. 그리고 일체 만법을 들이고 낼 때에 물러섬이 없이 '거기서만이 내 인생을 해결할 수 있다' 하는 믿음을 진실하게 가지시고 쭉 계속해서 나가신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 착착 신기하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우연히는 아닙니다.

질문자1(남)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

큰스님 예. 글도 이 모든 세포, 여기서부터 요기로, 이렇게 해서 눈 시력이 여기로 통해서 다 통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인공에다 모든 걸 맡겨 놓고 아침에, 소금을 물에 타서 뒀다가 그 물로 먼저 씻으세요. 꿈벅꿈벅해서 들어가게 하고 씻고선 가만히 양쪽 손으로 눌러 주세요. 주인공에다 모든 걸 맡기면서 그렇게 몇 번만 하세요. 그러면 그것은 나을 겁니다.

지난번에 누가 갑자기 아예 그냥 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부인도 두 눈이 다 안 보이지, 애들은 있지 또 남편도 한 눈이 안 보인다죠. 그래서 주인공에 모든 걸 맡겨 두면서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나았습니다. 바로 자기가 자기를 고치는 겁니다. 나는 내가 고쳐 준단 말 안 해요. 왜? 당신만 있고 나만 있는 게 아니고 나도 있고 당신도 있으니까. 당신 주인공에 나도 접해 있거든요. 이 세상 일체제불 만생 만법이 다 거기 있는데 뭘 그래요.

질문자1(남) 그러면 그냥 소금물에 타 가지고….

큰스님 이따 이 스님한테 잘 들으세요.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또 말씀할 분 없습니까?

질문자2(여) 한쪽 눈이 잘 안 보이거든요, 갑자기.

큰스님 눈 안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한다면 좀 이익이 될지 모르니 내 주인공에다 '내 눈 밝게 하는 것은 내 주인공밖에 없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이따가 이 스님한테, 눈으로 인해서 문제 있는 분은 이 스님 만나세요, 그 이치를 일러 드릴 테니까요.

질문자3(여) 스님, 제가 양 무릎 밑이 좀 안 좋거든요.

큰스님 지금 아픈 것으로 질문을 자꾸 하시는데, 그런 질문은 조금 있다가 공양들 하시고 개인별로다가 하시고요, 법에 대해서 질문할 분 있으면 하세요. 또 병으로 질문하려고요? (대중 웃음) 그것은 이따가 하세요.

질문자4(남) 쉬어라, 쉬어라 하시는데 어떻게 쉬라는 말씀입니까?

큰스님 주인공에 모든 걸 맡겨 놓고 사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마디 해 드리죠. 여러분, 카세트로 항상 노래도 듣고 뭐, 영어도 배우시고 그러시죠? 여러분은 이 세상에 탄생할 때 과거에 살던 카세트를 짊어지고 나온 겁니다. 짊어지고 나온 카세트에서 솔솔 풀려서 나오는 대로, 각본대로 여러분은 연예인들처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카세트에서 나오는 데다가 지금 현실에 '아이고, 네가 한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그 카세트에다 도로 맡겨 놓으면 바로 그 카세트에 앞서 감긴 거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팔자 운명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렇게 맡겨 놓고 사는 것이 바로 방하착 하는 것이요, 쉬는 것이요, 놓으라는 것이요, 보임하는 것이요, 바로 참선이요, 그렇게 여러 가지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쯤 아세요.

그러면 오늘은요, 이렇게 좀 간단하게 그칠까 합니다. 무슨 문제로 인해서 말씀하실 분이 계시면 조금 있다가 공양하시고 질문하십시오. 공양은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그저 산보 나온 것처럼 들고 나오셔서 그냥 잡숫고 가시도록 하십시오.

※위 법문은 1988년 7월 3일 부산지원 대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지는 대로 우리는 마음의 촛불을 켜고

앞장서서 밝게 중용을 하면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호남 범음회 회원 모집

호남범음회는 호남재를 중심으로 계승하고
화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종단의 문턱을 넘어 전통불교 의식인 범음,
범패에 관심있는 스님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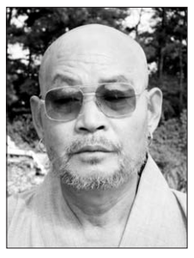
○ 정기모임은 한달에 한번
○ 매년 하계, 동계 수련법회 10일간

회 장 휴암스님
교육원장 지산스님
강 사 운산스님
지헌스님
총 무 자인스님

연락처 호남범음회본부 063)858-5895
011-680-7458

호 남 범 음 회

노인복지 함께 하실 불자님을 모십니다



평생을 불가에서 지냈습니다. 이제 노인복지의 원력을 세워 금생을 회향하고자 합니다.

어릴 때의 사고로 1급 시각장애를 갖고 있으나 10여년 전 아미타종을 창종하여 노인복지의 원력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몇 번의 시행착오가 있었으며, 이젠 잘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만큼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비영리단체인 '달마노인복지회'를 통해 무의탁 노인들의 공동체를 꾸리는 것이 저의 원력입니다.

이러한 노인복지의 뜻에 동참하여 부처님의 은혜를 갚고 싶으신 분들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대한불교아미타종 종정 달마 합장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 138-1 용주사

031)642-8345 / 010-7493-8977

21세기 불자 자가(自家) 기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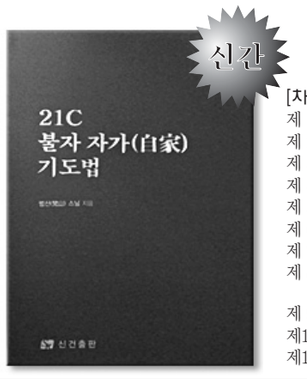
해조(解祖) 범산(梵山)큰스님이 쓰신불자 한 사람이 꼭 한 권씩 수지 독송해야 할 **"21C 불자 자가 기도법"**이 드디어 불자님들께 선을 보입니다.

이책은 한글만 아는 사람이면 자기 집에서 혼자 충분히 기도할 수 있도록 저술하였음으로 불자님들에게는 필수적인 경서 입니다.

· 해조(解祖) 범산(梵山)스님
· 1949년 전남 순천출생
· 東山 無盡 큰스님을 은사로 득도 수계
· 법무부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역
· 대한불교 원효종 경남종무원장, 중앙종회의원 역
· 현)해동불교대학,대학원교수
· 현)몽골불교대학 객원교수
· 현)여래암 주지

[논문]
· 인도불교의 철학적 고찰
· 원시불교의 선정사사에 대한 연구
· Buddkism과 인도철학과 제학파의 비교 연구
· 공사상에 대한 일 고찰
· 독서문화의 정착 방안에 관한 고찰 등

[저서]
· 그 속에 길이 있었다 · 웃으며 가는 저승길
· 공저 국역상용법요집 · 외 전문분야 다수



[차례]
제 1장 – 기본학습
제 2장 – 중요경전
제 3장 – 불공편
제 4장 – 진언과 다라니
제 5장 – 각종발원문
제 6장 – 기도체험수기
제 7장 – 불서출판수지공덕
제 8장 – 내면탐사와 여래33천통기도
제 9장 – 자가기도법
제10장 – 불교기초지식
제11장 – 권선문

◆ 택배발송(발송비 무료) ◆ 정가 30,000원
◆ 문의 : 055-761-7462 / 011-552-3222
◆ 계좌번호 : 농 협 801032-51-032261
우체국 610790-01-001194 (예금주: 여래암)
홈페이지 www.yeraeam.com / cafe.daum.net/yeraeam

한국불교여래종
입 종 안 내

사찰등록 및 여래종에 입종하여
여래의 사도(스승)로서 포교 및 전도를
함께할 종도 · 문도를 환영합니다.

◆ 사찰등록 및 입종 준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사진(여권용) 4매
3. 사찰전경 및 법당내부 촬영사진 각1매

한국불교 여래종 총무원

행자(남,여) 모집

불교교학 연구및 수행을 통하여 포교및
전도의 뜻을 둔 초심자를 모집합니다.

한국불교 여래종 총본산 대약사사
전화 043)731-2261 / 043)731-6454
팩스 043)731-6453

충북 옥천군 동이면 우산리 산71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 강건너)



불자 세상보기

정 용 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實用' 외교와 '失用' 외교

이명박 정부의 실용외교가 연일 난타를 당하고 있다. 4월 한 · 미 정상회담이후 불거진 미국 쇠고기 파동과 부시 미대통령의 일방적 방한일정 변경, 독도 영유권문제를 둘러싼 한 · 일관계의 경색, 미국 지명위원회(BGN)의 독도 표기 수정,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과 이로부터 비롯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성명 삭제파동 등이 그것들이다.

그 결과, 출범한 지 반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벌써부터 이명박 정부의 외교에는 전략도, 원칙도 그리고 사람도 없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외교정책의 실패는 곧 국익의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이명박 정부는 그들의 외교안보라인을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일에서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은 우리와 대화를 나누는 상대국과의 역사적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독도문제를 야기한 일본과의 문제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역사관계가 중요하다. 오늘날 한국과 일본 간에 일어나는 현실정치들은 대부분 역사가 낳은 산물들이다. 또 한 · 일간에서는 국가이익도 중요하지만 국민감정과 정서도 매우 중요하다. 대통령이라도 이 부분을 소홀히 하면 엄청난 부담을 피할 수 없다. 역사관계의 중요성은 주변국인 중국과도 마찬가지이다. 지금 중국은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일본 다음으로 자국을 방문한 것부터 못 마땅해 하는 눈치이다. 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적 대북정책이라고 하는 '비핵 · 개방 3000구상'에 대해서도 중국은 지지표명이 없다. 중국은 북한의 혈맹이다. 우리가 우방이라고 믿고 있는 미국이 우리 편을 들어 주지 않는 경우는 있어도, 중국은 북한을 돕는 일에 적극적이다. 이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다음은 상대방 국가의 정보나 전략을 파악하는 일이다. 최근 미국은 베트남과 이라크전의 교훈을 바탕으로 분쟁지역에서 가급적 개입을 자제하려는 외교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주일 만에 원상복귀 하는 해프닝이 됐지만 이번 미국의 지명위원회(BGN)가 독도를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표기했던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취해진 조치로 이해된다.

다음은 이명박 정부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소통'의 문제이다. 소통은 국내정치에서도 필요하지만 외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국내정치와 외교는 동전의 앞뒤와 같다. 국내정치가 어려운데 외교가 잘 될 리 없다. 이번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좋은 예이다. 외교부 관계자들이 ARF 참가국 대표들에게 금강산 사건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던 때,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금강산 사건은 남북문제이므로 남북끼리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밝혀 부쳐 간 엇박자를 표출하였다고 한다. 또 외교부는 당초 아쉽지만 10 · 4선언과 관련된 내용을 수용할 만하다고 하였다가 뒤늦게 청와대의 강한 반발기류를 감지하고 부랴부랴 수습에 나섰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렇게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외교 상대국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기대한다는 것은 요행에 불과할 따름이다.

외교에는 국가의 존망이 달려있는 문제부터 지엽적인 문제들까지 혼재해 있다. 지엽적인 문제로 여겼던 일이 커지면 중대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냉엄한 국제사회에서는 영원한 우방도 그리고 영원한 적국도 없다는 말이 있다. 지금 국제사회는 세계경제의 위기 가능성을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 원유가 인상, 미국의 경기침체, 이러한 것들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은 참으로 지대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위기를 몇 번이나 강조를 하였어도 신뢰가 떨어진 대통령의 말을 어느 누구도 믿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대통령이 솔선수범하여 난관을 타개하는 리더십을 발휘하여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이른바 농구경기의 용어인 'all court pressing(전면강압수비)'의 자세로 경제위기를 극복하여야 한다.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외교도 살리는 길이다.

"내 새끼, 소중한 내 새끼"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㉟ 부처님의 아이

절에서 사는 아이

"얘야, 내 새끼야." 송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러나 분명히 그렇게 들렸다. 송씨는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었다. 갓난아이 때 자신을 절에 데려다 놓고는 소식이 없었다는 것이다. 산골의 작은 절이었다. 성이 송(가명)이라는 것만 알았다. 스님들은 잘 키워 주었지만 어린 송씨의 마음은 항상 쓸쓸하고 허전하였다.

초등학교 때 제일 부러운 것은 단연 부모님이라는 존재였다. 친구들처럼 한번이라도 "엄마, 아빠"하는 말을 해 보고 싶었다. "너는 왜 절에서 사니? 엄마는 어디 있어?"하고 물으면 제일 싫었고 할 말이 없었다. 엄마 손 잡고 가는 아이들을 보며 눈물을 닦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부모에 대한 그리움과 외로움이 항상 가슴 깊이 새겨져 있었다.

송씨는 중학교 때부터 도시에 가서 혼자 자취를 하며 살았다. 스님이 가끔 와서 이것저것 보살펴 주었다. 그래도 혼자 밥해 먹고 사는 것은 무척 힘이 들었다. '이럴 때 부모가 계시다면 투정도 해 보고 힘들다고도 할 텐데.' 병이 날 때가 가장 힘들었다. '엄마, 아빠, 나 아파요'하고 속으로 불러 보며 이불을 뒤집어쓰고 울곤 하였다.

부처님 너무 해요

성실한 송씨는 어른이 되었고, 착한 사람을 만나 사랑하게 되었다. 드디어 결혼하기로 결정하던 날, 부처님 앞에 가서 서럽게 울었다. 딸이 결혼하는 줄도 모르는 내 부모는 어디 계시는 걸까. 지금 부모님이 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시고 축하해주셨을까. 마음이 저리고 아팠다.

결혼한 후에 송씨가 가장 기대한 것은 자신의 아이였다. 부모에게 못 받은 사랑을 내 아이에게는 목숨 걸고 다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하늘을 날아갈 듯 기뻤다. 육아책을 잔뜩 사오고, 아기용품 파는 곳에는 매일 출근하다시피 하며 이것저것 살펴보았다. 조금이라도 더 잘 준비하고 싶어서였다. 장을 보러 가서도 근처 장난감 가게를 찾아가서 구경하고 왔다. 날마다 "너무 행복해요, 부처님, 감사해요"하며 다녔다.

그렇게 임신 몇개월인 어느 날, 청천벽력같은 일이 일어났다. 뜻밖의 자동차 사고로 병원에 실려 간 것이다. 다행히 송씨는 무사했지만 그만 유산을 하게 되었다. 믿을 수 없었다.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았다. 어떤 위로의 말도 들리지 않았다. 병원에서 송씨는 자기도 그냥 아기와 같이 죽고만 싶었다.

"단지 죽지 않은 이유는 살아서 꼭 다시 아이를 가져야만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퇴원한 며칠 후, 절에 갔다. 부처님께 원망하고 싶었다. "부처님, 정말 너무 하세요. 제 인생은 왜 이래야 하나요. 평생 부모님도 모르고 살았는데, 가족의 정을 모르고 살았는데, 왜 이제 아기까지 데려가 버리시는 거예요?! 정말 너무하세요!"

난 부처님의 아이

법당에 앉아 송씨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새삼 자신을 버리고 간 부모가 너무 원망스러웠다. 아기를 잃은 슬픔에 펑펑 눈물이 쏟아졌다. 부모도 없고 아기도 잃어버린 자기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것만 같았다.

몇 시간을 울자 지쳐서 온몸이 아팠다. 불상을 바라보며 "너무해요, 너무해요"하고 말하였다. 그 때였다. "얘야, 아가"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깜짝 놀라서 주위를 돌아보았으나 법당 안엔 아무도 없었다. 잘못 들었나 싶었다. 그러나 다시 "내 새끼, 소중한 내 새끼"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순간 송씨는 그것이 부처님의 음성이란 확신이 들었다.

"그건 부처님의 음성이었어요. 잘못 들었건 아니건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뭐래도 좋아요! 그건 저에게 말씀하신 부처님의 음성이었어요." 송씨에게 중요한 건 그 '내 새끼'라는 음성에 온몸과 마음의 세포까지 다 녹는 것 같은 사랑과 감동이 느껴졌다는 점이다. "그런 느낌은 정말 난생 처음이었어요. 그 말씀이 엄청난 에너지같이 온 몸을 감싸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 날 이후 더 이상 '난 버림받은 아이'라는 생각이 없어져버렸다. '내 새끼'라는 말, 친부모에게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말이 너무나 큰 힘이 되어 주었다.

송씨는 그 후로 힘들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며 '그래, 난 부처님의 아이야'하며 스스로를 격려하게 되었다고 한다. 세월이 흘러 지금은 십대의 1남1녀를 두고 있는 어머니이다. 그래도 평생 부처님이 해 주신 그 '내 새끼'라는 말을 가슴에 품으며 살 것이라고 한다.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社說

종교편향 종식은 국력 배가다

한나라당 조문환 의원(비례대표)이 7월 30일 국회에 제출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그간 빈번하게 발생해 온 종교편향 사례들과 관련 불교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조 의원은 이 개정안의 제출과 관련 "국가 기관이나 공직자에 의한 종교적 편향 문제를 종교의 관대함으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국은 다종교 사회다. 헌법에 이미 종교적 자유는 선언되어 있다. 그럼에도 개별법에서 종교편향과 관련한 금지 조항이 필요한 것은 종교편향 문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요소로 사회문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 의원은 종교편향과 관계된 시정과 구제 절차를 국가인권위를 통해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물론 개정안은 종교편향에 있어 직접적인 당사자의 '구제 사실 입증 책임의 배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도 포함하고 있다. 제출안 개정안이 얼마나 빠른 시기에 어떤 절차를 통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는 지켜볼 일이다.

이 시점에서 한국의 종교는 새로운 점검과 반성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 종교 편향이라는 이슈 자체가 한국 종교계의 수준을 대변하는 중요한 코드란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보편적으로 종교는 개별적 인간과 인류의 행복을 가르친다. 세상을 파탄으로 몰아넣으려는 종교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는 배타성을 지닌다. 스스로의 교의에 대한 확신을 다른 가치에 대한 배타적 태도로 지키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종교가 가르치는 가치는 인간을 벗어날 수 없고 인간과 행복 인류의 평화를 벗어날 수 없다.

궁극은 다르지 않은데 방법론의 차이가 갈등을 야기한다면 그 갈등의 소지는 인간에게 있다는 얘기다. 그것은 또 시정이 가능하다는 전제이기도 한다. 그러나 시정 보다는 자신들의 방법을 고수하는 쪽으로 합리화 하는 경우엔 마찰이 불가피하다.

한국의 종교현실은 과연 어떤가? 정통 가치와 20세기 들어 물밀 듯 들어오고 우후죽순처럼 자생한 종교들이 백화점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산업화를 넘어 첨단의 시대를 맞이하며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내는데 소극적이거나 지나치게 적극적이어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상호 존중의 미덕 보다는 '생존 경쟁'식의 선교와 배타적인 가치 주입이 종교편향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의도적인 편향 사례도 있지만 당사자가 의식하지 않은(혹은 안한 척 하는 가운데) 사례도 적지 않은 것은 종교의 궁극 보다는 방법론에 지나치게 경도된 탓이다.

무엇보다 공직 사회나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종교편향 사례는 국익에 반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 통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종교를 이유로 갈등을 한다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법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시비를 가리는 분쟁의 폭도 넓어진다는 의미일 수 있다. 종교편향이 사회문제로 확산되는 것은 국민적 불행이다. 그러나 반대로 법규정의 설치가 종교편향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가 되고 한국의 종교계가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자성의 계기가 된다면 그만큼 풍요롭고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1-8413



불상, 석탑, 석등 사찰공사 전문업체 **일심석재**

대한민국 석공예명장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등석 : 황등석은 색상이 아름답고 천 년의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아 절분이 많고 쉽게 부식되는 중국산 수입 돌과는 차원이 다른, 석질이 우수한 익산에서만 생산되는 무절분 화강암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931-1
전화 063)836-0231 팩스 836-7527
011-673-7527



김옥수 석공예명장

- 대한민국 석공예명장
- 전라북도 무형문화재(제36호)
- 대한명인(06-122호)
- 現 일심석재/일심산업 대표이사
- 전국기능올림픽 석공예 2위
- 대한불교조계종 금산정사 공로패 수상
- 원광대학교 대학원 한국사상과정수료
- 대한광업진흥공사 석공예기능 훈련강사 역임
- 전국 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 역임
- 노동부장관 표창
- 대구기능대학교 명예교수
- 사)돌문화보존회 이사장
- 제9회 돌문화축제위원회 위원장

인터넷 블로그에 「김옥수」 또는 「일심석재」를 검색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수월관음도

사찰법당과 스님 접견실에 걸으면 품격 가정에 걸으면 재난과 액운을 쫓고 번영



무명의 어둠을 밝게 비춰주는 수월관음도는 세상사는 동안 모든 재난과 고통과 액운을 소멸하고 오는 생에 좋은 과보와 무량대복을 주고자하는 자비로운 구제자의 영험을 보여주는 불화다.
수월관음도는 불화의 대가인 법성께서 판화한 대작으로 수월관음도를 받아보는 순간 누구나 두 번 감탄을 한다. 첫째는 처음 느끼는 영험에 감탄을 하고 둘째는 섬세한 선율에 어떻게 이렇게 그릴수가 있을까하고 감탄을 한다. 수백년을 이어갈 사찰의 소장품으로 가치가 있으며 스님 개인 소장품으로 손색이 없다.
가정에서는 자자손손 가보로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으로 거실에 걸면 집안의 분위기가 품위있게 바뀐다. 2단 돌출 최고급 표구와 100% 천연코튼판화지에 판화된 수월관음도는 수백년이 지나도 변색되지 않게 베르린왁시를 처리한 특별 제작된 불화로 이제 두 번 다시 재현할 수 없는 국보급 세기의 불화다.
일부 시중에는 본 불화를 컬러복사해 표구를 그럴듯하게하고 베르린 왁시 처리를 하지 않아 2~3년만 지나면 색상이 탈색되고 진품 인양 판매하고 있으므로 표구 뒷면에 불광사의 보증서와 소장인란이 있는가를 확인하면 안전하다.
전화로 신청하면 특급 택배로 안전하게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격 195,000원

※ 사찰 스님 신청시 20% 할인 특별보시.

문의 (02)741-4488
입금은행 :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보궁여의주

필승합격과 승진의 영험



■ 필승합격과 승진을 위한 축원불공 마친 비방!

필승 합격을 기원하는 선물로도 품격! 필승 합격을 기원하는 스님 선물로 최고!

■ 시험을 보면 꼭 1~2점차로 낙방

여의주는 글자 그대로 원하는것이 이루워 진다는 구슬이다.
전설에 따르면 아들형제를 데리고 어렵게 살아가는 어머니가 남섬부주 바닷가에 떨어져 있는 구슬두개를 너무나 아름답고 신비해 집에 가져왔다. 집에는 관료가 되어 어머니를 편히 모시겠다는 형제가 시험만 보면 번번이 낙방을 하며 세월만 보내고 있었다. 아들에게 집에 오는길에 예쁜 구슬을 주었다고 보여주웠다. 구슬을 본 형제는 참 신비한 구슬 갖아요, 어머니는 아들 형제에게 하나씩 주었다. 그후 매번 낙방만 하던 형제가 그해 관료에 등과되어 어머니는 소원을 이루고 관료가된 형제는 큰 공덕을 쌓으며 다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각종 불경 해설서를 보면 제석천왕과 아수라가 싸울때와 전륜성왕이 바위를 부술때에 남섬부주에 떨어져 변한것이라고 도하고 용왕의 몸에서 나와 사람이 여의주를 집안에 두고만 있어도 독이 헤칠수 없고, 불속에 있어도 타지않고, 권세와 명예를 얻는 공덕이 있는 구슬로 사갈라 용궁에도 있고 여의륜관음 두손에도 들고있어 중생들이 뜻한바가 이루워지는 비방의 법구다.** 시험을 보고나면 꼭 1~2점차로 낙방을 한다. 수험생들은 한두문제로 인해 1년을 또 고통속에 시험준비를 하고, 승진도 마찬가지다. 승진시험과 승진심사날 심사위원의 마음이 누구에게 가느냐에 달려있다. 보궁여의주는 수험생에게 부처님의 지혜인 금강의 지혜를 주고 부처님 가피로 승리하는 비방의 법구다. 불광사에서 필승합격과 필승 승진을 위한 축원불공을 마친 보궁여의주는 인도양 수심 100m~150m에서 채취한 청궁석(일명 용궁석) 원석이며 받침도 길상원목으로 품위있게 제작하고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리며 수험생의 필승합격을 위해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해드리고 있다.

수험생에게 필승의 영험을!

보시가격95,000원 (사찰스님 신청시 20%할인)
전화 (02)741-4488
입금은행 :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대입수험생, 중고등학생, 승진을 준비하는분, 로스쿨준비생, 사법고시 준비생, 행정고시준비생, 공인중개사, 세무사, 기술고시준비행, 공무원시험준비생 등 각종시험 준비생에게 부처님의 지혜인 금강의 지혜와 가피로 필승하게 점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마친 영험의 비방법구다. 보궁여의주를 받으시면 수험생 책상위에 놓아주면 집중력과 마음의 안정도 찾게된다.

장사 성공의 법구 금강 삼고저

안되는 장사, 안되는 사업, 산재 사고도 예방



개업 스님 선물로도 품격! 사업 성공의 선물로도 품격!

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법구인 금강삼고저는 밀교법구로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가 보기만 해도 도망가고 화로부터 사업장의 안전을 지키며 사업장의 성공을 위해 동서사방에서 인연의 귀인들을 불러드리는 영험의 법구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경제대국 일본의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있는 것을 쉽게 볼수있다. 불심사에서 장사흥왕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가로 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문안쪽 위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품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보시가격:85,000원
문의 (02)741-4488
입금은행 :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사찰 스님 신청시 20% 할인

장사와 사업 흥왕의 비방 법구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타,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상,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않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풍수학적으로 보면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다.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

인도산 천연 백수정 54염주

평생 인연의 귀인을 만나는 인도 전설의 염주

화제의 염주 인도에서 스님과 지도층 인사들 사용



수입 기념 특별선물
⊙ 스님께는 천연백수정 27주 법륜염주
⊙ 불자님께는 천연백수정 합장주

영원히 살아 숨쉬는 승리의 염주

영원히 살아 숨쉬는 불멸의 천연백수정 54법륜염주가 수입되어 시판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천연백수정을 영원불멸의 부처님 보석이라하여 천연백수정을 간직하고 있으면 인연의 귀인을 만나는 행운과 그 인연으로 인해 원하는 계획이 성취된다는 행운의 보석으로 천연백수정을 염주로 만들어 예불법구로 사용하고 있다. 고대 인도와 아라비아 상인, 정치가, 지도층 인사들의 전통모자에는 어떠한 고통과 역경이 와도 승리한다는 행운의 백수정을 부착하고 다니는 것을 지금도 볼 수 있다. 세상사는 동안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인연법으로 한 사람의 좋은 인연의 만남으로 평생 인생이 바뀌는 것과 계획한 것이 쉽게 성공되는 것을 주변에서 볼 수 있다. 원대한 불사계획을 가지고 계신 스님, 원대한 불사를 시작했으나 어려우신 분, 중대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 분, 평생 인연의 짝을 찾고 계신 분, 건강이 나빠 인연의 의사를 만나고 싶은 분 등은 믿음으로 사용하면 원하는 소원이 성취된다는 평생염주다.
천연백수정 54염주는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받으시고 천연백수정 54염주 외 스님께는 천연백수정 27주 법륜염주를 일반불자께는 천연백수정 손목합장주를 수입기념 특별 선물로 드립니다.
가격 95,000원 (사찰스님께는 20% 할인)
전화 (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자동차용 미륵반가사유상 호신불

자동차 사고예방의 영험! 생명을 보호하는 비방!



■ 아내와 자녀에게 안전의 선물
■ 스님께서 아끼는 불자에게 안전의 선물

차안에 걸면 대단히 품위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차를 종종보게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 법구중에는 중생들이 사는동안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 비방의 법구들이 많이 있다. 그중에서 달리는 자동차에 꼭 맞는 법구가 호신불이다.
우리나라 호신불의 역사는 삼국시대 신라부터 귀족여성들과 전장에 나가는 장수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들에게 왕이 직접 전장에서 죽지말고 승리하고 돌아오라는 뜻에** 서 목각으로 만든 미륵반가사유상 호신불을 하사 했으며 호신불을 몸에 지니고 전장에 나간 장수는 한명도 죽지 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전해진다. 설화에 따르면 원효대사가 태종 무열왕의 딸 요석 공주에게 세상이 험하니 몸에 꼭 지니고 다니라고 미륵반가사유상 호신불을 선물한것이 인연이 되었다고도 전해진다.
한치 앞도 모르는 험한세상 살인, 납치, 강간, 유괴, 실종, 하루에도 수백명씩 교통사고로 사망하는등 편한날이 없는 오늘도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미륵반가사유상 호신불을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운전을 하는 남편에게, 스님께서는 아끼는 불자들에게 귀중한 선물이 될것이다.
1500년전 신라 화랑장수와 귀족들이 수호신으로 사용했던 호신불을 재현한 미륵반가사유상 호신불 앞면에는 미륵반가사유상을 넣고 뒷면에는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옴"자와 백연화 넣었으며 생명보호와 자동차사고 예방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고 있다. 청동으로 제작해 평생 사용할 수 있고 여성은 지갑속에 자동차는 운전석위 룸밀러에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품위가 있다.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가격45,000원.

문의(02)741-4488(사찰스님 20%할인)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황금털사자의 미미소

禪

한국 근현대 선사들의 眞面目을 선시로 읽다.



선의 중흥조 경허 스님에서 고암 스님까지 12명 걸승들의 살림살이가 녹아든 선시의 **'완전 이해'**

〈황금털사자의 미미소〉는 한국 현대 문단에 선시의 이론을 세운 독보적 존재 송준영 시인이 12명 선사들의 삶과 수행의 핵심을 소개한 노작입니다.

[송준영 지음 / 여시아문 펴냄 / 575쪽 / 25,000원]



경허 | 용성 | 학명 | 만공
한암 | 만암 | 만해 | 효봉
혜암 | 동산 | 경봉 | 고암

여시아문 02)2004-8237 | 016-217-4845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 국민 023-25-0007-617 예금주:(주)에이치비엠씨